

3 5 (2009 9 · 10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2009년 9·10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CONTENTS

## 9 September 2009

1주차  
08.31-09.06

1. 대내정세 — 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7  
가. 유엔 안보리 제재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북·러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22

2주차  
09.07-09.13

1. 대내정세 — 2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42  
가.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49

3주차  
09.14-09.20

1. 대내정세 — 54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65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72

4주차  
09.21-09.27

1. 대내정세 — 76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86  
가. 유엔 안보리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91

5주차  
09.28-10.04

1. 대내정세 — 94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09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14

인쇄 : 2009년 11월 발행 : 2009년 11월

발행처 : 통일연구원 발행인 :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 북한연구실 편집간사 : 권혜진 연구원

등록 : 제2-02361호(97.4.23) 주소 :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 두일디자인 2285-0936

(비매품)

# 10 October 2009

## 1주차 10.05-10.11

1. 대내정세 — 118
  -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25
  - 가. 6자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35

## 2주차 10.12-10.18

1. 대내정세 — 138
  - 가. 정치 관련      나. 경제 관련
  - 다. 군사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46
  - 가. 북·미 관계      나. 북·일 관계
  - 다.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50

## 3주차 10.19-10.25

1. 대내정세 — 154
  -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65
  -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71

## 4주차 10.26-11.01

1. 대내정세 — 176
  -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87
  -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96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8.31-09.06

9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제재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북·러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별첨 1: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 (전문)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함북서 경제시설 시찰 계속(9/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성진제강연합기업소와 김책대흥수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는 함경북도 경성군과 명천군의 경제시설들을 현지지도했다는 3일 보도 이후 하루만임.
- 김 위원장은 성진제강연합기업소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주체철에 의한 가장 선진적인 제강법을 완성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새로 완성한 주체철에 의한 제강법을 생산에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야금공업의 주체화를 빛나게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
- 현지지도에는 홍석형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와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등 노동당 책임간부들이 수행

#### ● 김정일, 함북도 경제시설 현지지도(9/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경성군과 명천군의 여러 경제시설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경성혁명사적관과 염분진혁명사적지, 경성애자공장, 김정숙요양소, 칠보산유원지, 황진온천마을 등을 시찰, 현지지도에는 홍석형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와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등 노동당 책임간부들이 수행

#### ● 김정일, 군부대서 공연 관람(9/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제264 대연합부대 지휘부를 방문, 부대 장병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이 부대 장병들이 “훈련을 강화하여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경계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으며 이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통신은 보도,
- 그는 이어 이 부대의 장병, 군인가족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 이날 군부대 시찰과 공연관람에는 북한군 대장들인 현철해, 리명수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간부들과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동행

## 나. 정치 관련

### ● 통일신보, 현 남북관계 전환이나 현상유지나 기로(9/5,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5일 '자주의 대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남북관계는 "민족의 기개와 존엄을 다시 한번 떨치는 획기적인 전환이나, 아니면 어물어물 시간이나 보내는 현상유지나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남측 당국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
- 통일신보는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대결과 반목으로 6.15 이후 좋게 발전해온 북남관계에 파국의 1년 반이라는 공백을 초래한 교훈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 또 "북남관계는 어느 일방만의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고 민족 모두의 이익을 위한 관계이고 통일발전을 위한 관계"라며 특히 남북관계의 "주인도 북과 남의 쌍방 당국이고 우리 민족"이라고 역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남측 당국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요구

### ● 美 초대형 '병커버스터' 생산 비난(9/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미국의 신형무기는 결코 만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최근 북한과 이란의 지하 핵시설 등을 겨냥한 초대형 관통폭탄(MOP)인 '병커버스터'의 조기 생산 움직임에 대해 "제2의 조선전쟁 도발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는 극악한 범죄행위"라며 비난, 통신은 "현실은 미국이 변화에 대해 떠들고 있지만 그의 호전성에는 어떤 변화도 없으며,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의 모험적인 전쟁 책동을 각성있게 주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자위적 조치들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 조선신보, 대화나 제재나 시한부 양자택일(9/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5일 "대화나 제재나 시한부 양자택일, 편지에서 밝힌 조선의 비핵화지향"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조선의 요구대로 사죄를 하고 지금의 사태에 종지부를 찍지 못한다면 우선 대화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미국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 조선신보는 이날 북한이 보낸 편지의 핵심은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에 대한 북한의 “원칙적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것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
- 신문은 8월 초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사실을 상기시킨 후 “편지에서 또한 주목되는 것은 비핵화지향에 관한 표명”이라며 “편지를 통해 표명된 비핵화지향은 조선측이 ‘평양에서 이룩된 견해일치’를 전제로 하여 결단과 행동의 준비를 갖추어 놓았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
- 또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점을 북한이 여러 차례 천명했음을 상기한 후 “미국의 오바마정권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의 ‘도덕적 책임’에 대하여 말하면서 ‘핵이 없는 세계’를 지향해 나가자고 호소하고 있다”며 “조선측도 여기에 반대의견은 없다. 쌍방이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두가지 지향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 신문은 “조선의 금후 행동은 미국이 시한부 양자택일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에 달려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음.

● 北, 내각 부총리에 박명선 임명(9/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일 ‘정령’을 통해 박명선을 내각 부총리로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북한 내각의 부총리는 4명 가운데 지난 4월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 당시 곽범기, 태중수, 로두철 3명이 유임되고 2003년 9월 임명된 전승훈 대신 전자공업상을 지낸 오수용이 새로 기용됐으나, 지난달 태중수 부총리가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인사는 태 부총리의 자리 이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임. 조선중앙통신은 신임 박 부총리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북한 주요 인물 가운데 박명선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에 이어 12기 대의원이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과 내각 인민봉사위원회 대외봉사국 국장을 거쳐 평양 대외봉사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인물이

있으나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문타폰 유엔보고관, 北인권 상황 매우 나빠(9/4, 연합)**

-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4일 식량 부족과 공개 처형, 고문과 광범위한 억압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독히 나쁘다(abysmal)'고 밝힘.
-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회람된 유엔 총회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지독히 나쁜 상태"라면서 2008~2009년 상반기의 북한 인권 상황을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 그는 이 같은 평가의 근거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는 지속된 반면, 북핵 6자회담 표류와 북한 핵 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숙원지원이 줄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 악화된 점을 들었음.
-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정권이 빈곤과 공포, 차별, 박해, 착취로부터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인권 항목을 일상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 축소로 원조단체의 도움을 받는 북한인의 수도 2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지적
- 그는 북한 정권은 87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에게 식량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타지로 망명하려는 자를 처벌하지 말 것, 공개 처형을 중지할 것, 국방예산을 사회 분야 예산으로 전용할 것, 민주적 절차를 도입할 것 등을 요구, 그는 또 국제사회에도 북한이 '선군 정치' 대신 '인민 우선 정치'를 택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

● **北, 남북·북미관계 동시개선 입장(9/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4일 '정세 주도의 열쇠는 우리민족끼리 이념'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조미(북미), 북남의 관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조선반도의 대립구도 청산이 가능하다"고 강조, 현재 북한의 입장이 통미봉남이 아닌 북미 및 남북관계의 동시 개선에 있음을 시사
- 조선신보는 "긴장완화를 지향한다면 북, 남, 미국의 엉켜진 이해관계를 풀고 서로 맞물리도록 해야 한다"며 "종전처럼 북-미·남의 대결관계가 지속된다면 평화 논의는 없다"고 언급, 신문은 지난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의 방북과 북한의 특사 조문단의 서울방문 등을 “8월의 사변”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의 이같은 행보는 “(남한) 실용정부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

- 신문은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제재로 인해 “6자회담의 구도는 허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핵문제를 주제로 조선반도의 안보문제가 다시 논의될 경우 북남관계의 진전 상황은 중요한 변수”라며 “남측의 진로선택이 주목”된다고 언급

● 北중앙통신이 전한 北유엔대표 편지 내용(9/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4일 보도, 통신은 “그는 편지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이른바 제재관련 위원회가 우리에게 그 무슨 해명을 요청해온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미 천명한 원칙적 입장과 대응조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다”고 밝혀 이 서한이 대 이란 수출용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이 아랍에미리트에 압류된 후 유엔 제재위원회의 설명요구에 대한 응답임을 밝힘.

● 北방송, ‘9.9절’ 앞두고 정권수립 찬양(9/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오는 9일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 61주년을 앞두고 3일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업적 영원하리’라는 제목의 방송물에서 고 김일성 주석의 정권 수립을 찬양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유산을 물려받아 북한을 융성하게 하고 있다고 선전
- 방송은 김일성 주석이 “10대의 어린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 20대에는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의 전면대결을 선포했으며, 30대에는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했다”고 찬양,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거 간부들에게 “9.9절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수반을 모신 날”이라며 “사실 말이 쉽지 30대에 국가수반이 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리 수령님만 하실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소개

● 北, 브라질대사에 리화근 임명(9/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브라질 주재 대사에 리화근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인용해 보도, 리 대사는 2005년 5월 임명됐던 박혁 대사의 후임이며, 인적 사항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음. 전임 박 대사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대사를 겸임했었으며 북한과 브라질은 2001년 3월 9일 수교

● **北매체에李大통령 혐구 재등장(9/3, 평양방송)**

- 서울을 방문했던 북한 특사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돌아간 뒤 지난달 말부터 북한의 각종 매체들의 대남 비난물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역적패당” 등의 혐구가 사라졌다가 3일 평양방송에 재등장
- 평양방송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방송한 ‘주택난을 통해 본 남조선 사회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방송물에서 이 대통령의 실명에 “역적패당” 등의 혐구를 붙이거나 이명박 정부를 “괴뢰 집권당국”이라고 표현, 방송은 또 “이명박 독재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며 반정부 투쟁도 선동

● **北노동당 후보위원 강순희 사망(9/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강순희(70, 여) 중앙경공업제품건설부관 부관장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 부관장의 사망에 조화를 보냈다고 전했으나 그의 사망 일시와 사인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1934년생으로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한 강 부관장은 최고인민회의 제8기, 9기와 11기 대의원을 지냈으며 노동당 제3경제사업부장, 경공업부 부부장, 당 경공업위원회 부위원장, 경공업성 부상 등을 거침.

● **노동신문, 150일 전투 최대 성과 마무리 촉구(9/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150일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총돌격 앞으로!’라는 제목의장문의 사설을 싣고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여 다시 한번 세상을 놀래우는 새 기적을 창조해야 한다”며 “150일 전투 성과를 최대로 올려야 다음 단계의 투쟁을 더 본때 있게 벌이고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역사적인 변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삼남 김정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

- 진 ‘150일 전투’는 4월 20일에 시작됐기 때문에 오는 17일 종결될 예정
- 신문은 “세계적인 위성 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선군조선의 인민답게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150일 전투에서 조선 사람의 슬기와 지혜, 자력갱생의 기질을 힘있게 과시해야 한다”며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킴.
- 이 신문은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기관 일꾼들”에게 특히 희천발전소 건설, 남흥 가스화 대상공사,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 건설 등 주요 사업의 목표 달성에 주력할 것을 주문

● **北김정일 영화부흥 추진, 당에 영화부 신설(9/1, 연합)**

- 북한이 지난 2월 노동당 내에 영화부를 신설하고 부장에 최익규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짐.
- 한 대북 소식통은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지시로 노동당 안에 영화와 무대공연 부문을 전담하는 영화부가 설치됐다”며 “영화부는 체계상 당 선전선동부 안에 배속됐지만 국제부 등 다른 부서처럼 비중과 역할 등 모든 면에서 사실상 독립적인 부서나 다름없다”고 전언, 영화부 신설은 체제 유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설득력있는 영화를 제작·보급할 필요성을 새삼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이 소식통의 설명
- 다른 소식통도 “북한이 올해 초 노동당내에 영화부를 신설하고 최익규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부장에 임명했다”고 전언, 이 소식통은 “지난 3월 최익규 부장이 북한 언론보도에 ‘당 부장’으로 등장했을 때 선전선동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당초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선전선동부장은 여전히 공식인 채 김기남 당 비서가 당 역사연구소와 함께 선전선동부를 관장하고 있고 최 부장은 영화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 그는 “영화부의 선전선동부 배속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독립적인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
- 영화부가 신설되고 최익규가 재등장하게 된 것은 올해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화를 관람하다가 “왜 요즘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좋은 영화가 나오지 못하느냐, 최익규를 데려다가 좋은 영화를 만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짐.
- 그 결과 지난 2월 당 선전선동부의 영화과를 확대해 영화부가 신설되고 내

각에도 국가영화위원회가 신설됐으며, 2005년 당노 등 지병으로 은퇴했던 최익규 전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당 영화부장 및 국가영화위원장으로 복귀하고 3월 실시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음. 최익규 부장은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운의 후계체제 구축 선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이 작업은 김기남 비서와 리재일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맡은 것으로 알려짐.

- 국가영화위원회의 당 책임비서에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출신의 리상태가 임명됨.

● **김정일, 북미 평화협정 체결해야 해결(8/31,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조미(북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평양방송이 31일 보도
- 방송은 이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범죄적 본질’이라는 제목의 방송물에서 이같이 전했으나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장소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음.

**다. 경제 관련**

● **나노과학기술발표회 개최(9/4, 조선중앙TV)**

- 제6차 전국 나노과학기술발표회 및 나노제품 전시회가 최근 평양 인민대학 습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4일 보도
-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발표회 및 전시회에는 나노 절연재료를 비롯해서 100여 점의 나노 분말재료와 제품들이 출품됐으며 나노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120건의 과학기술 성과 및 경험들이 발표됐다고 방송은 보도

● **北,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사용료 면제(9/4, 길림신문)**

-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더욱 적극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매년 부과하던 토지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외국인투자 기업 생산품이 북한

국내 수요를 충족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이 기업상품의 시장을 보장해주는 등의 특혜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길림신문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열린 제5차 지린동북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무역성의 대외투자국 운영석 부소장이 ‘조선의 날’ 행사에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설명하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해마다 지불하던 토지사용료를, 토지를 출자한 조선(북)측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해당 법과 규정을 수정했다”고 밝힘.
- 과거엔 북한의 토지임대 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료는 임대 기관에, 사용료는 “소재지 재정기관(당국)”에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이 냈지만 이제는 외국인 기업은 임차료만 내고, 사용료는 북측 임대기관이 당국에 내도록 했다는 설명

● **北원산에 장애인 삼륜오토바이 운송사업 등장(9/4, 연합뉴스)**

- 북한 강원도 원산시에서 장애인들이 외국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삼륜 오토바이를 운용하며 미니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의 조선장애보호연맹 중앙위원회는 외국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또 미장원, 이발소, 양복.양장점 등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마련을 추진하는 등 북한에서도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방북한 등대복지회 신영순 이사가 4일 밝힘.
- 7월 하순 원산 등지를 다녀온 신 이사는 “원산에선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들이 유럽연합(EU)과 호주 마라나타 신탁회사를 통해 삼륜 오토바이 8대를 공급받아 짐과 사람도 날라주고 있었다”며 “탄광에서 일하다 사고로 다리를 잃은 50대 장애인이 의족을 한 채 삼륜 오토바이를 양손만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설명

● **북중 접경 지역 밀수 성행(9/4, 아사히신문)**

-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밀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보도, 이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의 수출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
- 밀수업을 하는 한 북한 여성(42)은 아사히 신문에 한국산 DVD 밀수입으로 “땀을 때는 하룻밤에 130만원 가량을 벌 때도 있다”고 언급, DVD 밀수입

이외에도 북한산 금 등 보석과 모피 등을 중국에 밀수출하며 이익은 연간 수천만원에 달함. 하지만 이의 절반은 접경지역을 경비하는 북한의 군인이나 정부 간부에게 밀수 목인용 뇌물이나 접대비로 사용

● **평양국제상품전람회 21~24일에 개최(9/3, 미국의소리 방송)**

-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 최대 규모의 무역박람회격인 국제상품전람회가 예정대로 9월 21~24일에 열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
- 평양에 있는 '유럽기업협회'는 이 방송측과 전화통화에서 "가을철 전람회가 당초 예정대로" 열린다고 밝힘. VOA는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참가 문제와 관련, "주최측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신청할 경우 다른 외국 기업보다 20~30% 저렴하게 장소를 제공할 용의를 밝히기도 했다"고 보도
- 올해로 5회째인 가을철 전람회는 북한 무역성 산하 조선국제전람사가 주관하고, 광고관련 업무를 맡은 '조선광고회사'가 외국기업의 전시품 반출입허가 수속을 함께 담당하며, 화물 수송은 이탈리아에 본사가 있고 평양에도 지사를 둔 국제운송업체 '오티'사가 대행

● **北, 올해 가을 유럽에 재생에너지 연수단 파견(9/3, 자유아시아방송)**

- 재생에너지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한이 스위스의 대북 지원단체의 초청으로 올해 가을 풍력발전을 비롯해 태양에너지와 수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 연수단을 유럽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
- 북한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지원하는 캠퍼스 파워 크리스투스의 북한 담당자 스테판 부르크하르트씨는 이 단체가 북한의 황해북도 지역에 300W와 2KW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각각 1대씩 이미 설치한 데 이어 북한의 요청에 따라 추가 지원한 2KW짜리 풍력발전기의 설치가 끝나는 대로 북한 연수단을 유럽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 북한은 지난 3월에도 재생 에너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연수단을 유럽에 보내 스위스와 네덜란드, 독일을 순방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비자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음.



- 캠퍼스 뛰어 크리스투스는 2020년까지 북한에서 총 500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풍력발전기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방송은 전언

● 유엔기구들, 北과 작황 실사단 파견 논의(9/2, 미국의 소리 방송)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올해 농작물 작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사단을 공동파견하는 방안을 북한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일 보도
- FAO의 청 팜 아시아 담당 경제전문가는 VOA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달 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작황 상태와 생산성, 산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적당한 시기는 9월이며, 수확량 조사는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
- FAO와 WFP는 지난 1995년부터 매년 한두 차례 북한 당국의 초청 아래 실사단을 파견해 작황 조사를 벌여왔지만 2005년부터는 북한 측의 거부로 작황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작년 10월 재개
- 팜씨는 “북한은 올해 기상조건이 양호했지만 비료 공급 부족 등 이유로 작황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올해 비료 사용을 크게 줄였는데 이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비료 지원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고 언급

● 프랑스 지원단체, 北에 토끼 지원사업(9/1, 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 비정부기구(NGO)인 ‘프리미에 위장스’가 중국에서 400마리의 토끼를 구입해 수주내로 북한의 평안북도와 황해북도의 7개 협동농장에 보낼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일 보도.
- 이 단체의 데이비드 제르맹-루빈 대북사업 담당자는 “지원된 토끼가 북한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비슷한 환경인 중국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현재 번식력이 뛰어난 토끼를 골라내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2010년 말까지 북한에 토끼의 번식력을 높일 수 있는 선진 사육 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장비를 제공해 북한의 토끼 생산능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소개
- 프리미에 위장스는 평안남도 평성시와 남포시, 황해북도 토산군 등 세 지역

에서 병원 재건 사업도 펼쳐 평성에 있는 도 병원과 남포시 병원의 난방과 환기 시설을 모두 교체했고 현재 식수를 공급하고 오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 중임. 제르맹-루빈씨는 “북한의 병원을 재건하는 사업을 위해 직원 2명이 북한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최근 1명을 추가로 보냈다”며 “내년부터 북한 내 다른 병원에 대한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중이지만 아직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언급

● **北 논밭, 비료부족으로 초록빛보다 노란빛(8/31, 연합)**

- 북한 논밭의 작물들이 비료 부족으로 인해 초록빛 대신 노란빛을 띠고 있는 곳이 많이 목격돼 올해 가을 작황이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최근 북한 농업 지원을 위해 방북하고 돌아온 농업전문가들이 일치된 진단을 내놓고 있음.
- 월드비전 관계자도 “이번 방북 기간에 량강도 대홍단군과 평안남도 중화군 등을 다녀 왔는데 가는 곳마다 비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비료를 제대로 주고 있는 곳은 벼들이 쑥쑥 자라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시퍼렇게 자라고 있지 못했다”고 언급

**라. 군사 관련**

● **北 핵시설 재건 흔적 없어(9/5, 연합)**

- 2007년 2·13 합의에 따른 불능화 조치로 불능화 되었던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와 파괴된 냉각탑이 복구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의 핵군축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5일 밝혔다. ISIS는 미국의 위성사진업체인 디지털글로브가 지난 8월 10일 북한 영변 핵시설 일대를 위성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파괴된 냉각탑 시설 부근에서 어떠한 재건 활동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힘.
- 위성사진에 따르면 불능화 된 원자로 등 핵심 시설은 여전히 파손된 상태였고, 이를 새롭게 다시 건설하기 위한 어떠한 자취도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았음. 영변 핵시설 원자로의 냉각탑은 지난해 6월 27일 핵 시설 불능화 약속 이행 의지를 과시하는 이벤트로 북한이 세계 주요 언론을 초청한 가운데 폭파했으며, 원자로는 6자회담 합의사항인 불능화 조치중 하나로 불능화 되었음.

● 北경비정 1척 한때 NLL 침범(9/4, 연합)

- 북한 경비정 한 척이 3일 오전 1시 43분께 서해 백령도 동북방 10km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6분여간 침범했다가 되돌아갔다고 군당국이 4일 밝힘. 우리 해군은 NLL에 접근하는 북한 경비정을 향해 “귀측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경고통신을 했으나 북측 경비정은 응답하지 않은 채 NLL을 넘은 것으로 알려짐.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올 들어 이번이 9번째임.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김정일 일대기 기록영화 2부 제작(9/6, 조선중앙통신)

-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애에 대한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시리즈중 제2부 ‘혁명전통을 빛내이시며’를 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2부는 김정일 위원장이 1950년대 중엽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 답사길을 개척하고 1970년대에 ‘왕재산혁명사적지’와 ‘삼지연혁명전적지’ 건설을 발기 및 지휘한 내용 등 이른바 “선군혁명전통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이끈데 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중점으로 수록하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
- 앞서 지난 7월 제작돼 8월 말 첫 방영된 1부 ‘조선을 빛내이리’는 김 위원장의 출생부터 6.25전쟁시기 등 유년시절과 대학졸업까지 성장기를 다뤘음.

● 北매체, 폐 약하면 냉·온탕욕 피해야(9/6,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6일 ‘건강상식-체질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권고’라는 글에서 “폐기능이 저하되면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도 떨어지므로 자극을 주는 것을 반드시 삼가야 한다”면서 “폐가 약할 때에는 적당한 온도의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음.

● 북한 청소년 5만명, 클린턴 떠나자 눈물(9/5, 조선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클린턴이 북한을 찾았을 때 대(大)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준비해 놓았음. 그는 클린턴에게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관람을 세

- 차례나 제의했으나 클린턴은 음식으로 화제를 돌리며 거부
- 클린턴과 김정일의 면담 날 평양에서는 4만~5만명의 청소년이 폭염 속에서 있었는데 이는 언제 공연 지시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임.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에게 대기 특별명령이 전달된 것은 클린턴 방북 1주일 전임. 내용은 “장군님을 모시고 ‘1호 행사’가 진행될지도 모르니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으로 1호 행사란 김일성이나 김정일 부자(父子)가 참석하는 것을 뜻함. 8월 4일에는 지친 북한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탈수 현상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대북소식통은 전언
  - 북한에서는 같은 ‘아리랑’ 공연이라도 김정일이 참석한 공연은 특별대우를 받음. 2000년 10월 방북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김정일이 관람한 아리랑에 김정일이 대만족하면서 참석자 전원은 큰 선물을 받은 바 있으며 연출자 등 간부진은 특별훈장을 받아 출세길이 열렸음.
  -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이 함께 참석하는 ‘아리랑’ 공연이 성사됐더라면 참가자들은 역대 집단체조 참가자들보다 더 큰 선물과 훈장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게 무산되면서 일부 학생들은 눈물까지 흘렸다고 함.

● ‘아리랑’ 공연 10월 17일까지 연장(9/5, 미국의소리 방송)

- 북한이 최근 집단체조 ‘아리랑’의 올해 공연 기간을 10월 17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
-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북한 전문 관광회사 ‘아시아태평양 여행사’의 월터 키츠 대표는 이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부 당국자가 지난 3일 전 자우편을 보내 아리랑 공연 기간이 (다음달) 17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힘.
-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관광’도 “북한이 아리랑 공연 기간을 연장해 이 기간 북한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은 모두 아리랑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
- 북한 당국은 애초 9월말 까지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8월 해외 여행사들에 아리랑 공연 기간을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1차 통보한 데 이어 다시 공연 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 관광객들을 더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VOA는 보도
- 올해 아리랑 공연 기간은 늘어났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관광객 수는 크게 줄었다고 VOA는 밝힘.

-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친선연환모임(9/4, 조선중앙통신)
  -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친선연환모임이 3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모임에는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인 장웅 국제무도경기위원장, 국제태권도연맹 부총재인 룡와이맹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사무총장과 집행위원들,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인 황봉영 조선무술련맹 위원장 등이 참석
  
- 北옥류관에 철갑상어 요리 등장(9/3, 노동신문)
  - 평양의 대표적 음식점인 옥류관이 철갑상어 수족관을 새로 설치하고 철갑상어 요리를 메뉴에 추가했다고 노동신문이 3일 보도,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철갑상어를 양식하는 신창양어장을 시찰했을 때 주민들이 “하루 빨리 그 맛을 볼 수 있게 옥류관에 철갑상어를 보내주며 살아있는 철갑상어를 보고 그 맛도 볼 수 있게 해줄 데 대하여”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보도
  - 북한 매체들은 최근 김 위원장이 옥류관에서 메추리 요리를 내놓도록 지시했다고 전하는 등 그가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 향상에 관심이 많다는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
  
- 北, 가을철 약초·약용식물 관리 강조(8/30, 노동신문)
  - 북한이 가을철 ‘약초재배 월간(9·10월)’을 맞아 각종 한약의 재료가 되는 약초와 수익성 나무의 재배와 채취, 철저한 관리를 독려, 노동신문은 ‘약초 자원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라는 글에서 “효능높은 약초, 약나무 열매들을 더 많이 마련하여 고려약(한약) 생산을 늘이는 것은 큰 의의를 가진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봄내, 여름내 정성껏 심고 애써 가꾸어온 약초, 약나무 열매들을 허실없이 말끔히 거두어들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 것”이라고 강조
  
- 평양서 8월 규모 3.8 지진 발생(8/26, 민주조선)
  - 평양에서 8월 21일 밤, 규모 3.8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었다고 민주조선이 8월 26일 보도, 신문은 이 지진이 당일 오후 11시 2분 2초계 평양시 중화군 금산리 일대에서 일어나 “시내 중심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지진의 크기는 “M(규모) 3.8정도로서 작은 지진에 속한다”고 밝힘. 그러나 신문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여부는 전하지 않음.

● **북한도 TV 상업광고 시대 열려(8/20, 조선중앙TV)**

- 북한에서도 TV광고 시대가 열리고 있음. 대동강 맥주를 소개하는 TV광고가 7월 2일 첫 전파를 탄 이후 개성고려인삼도 조선중앙TV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고, 북한의 대표적 음식점인 옥류관의 ‘메추리 요리’도 TV광고대열에 합류
- 조선중앙TV는 30일 “평양냉면으로 소문난 옥류관에서 9월 1일부터 메추리 요리를 봉사하게 된다”며 메추리구이, 메추리쌀밥소찌구이, 메추리고기완자탕 등의 메뉴를 소개함으로써 옥류관이 상품 출시를 앞두고 사전광고를 시행
- 통일신보는 대동강 맥주가 TV를 통해 광고를 낸 뒤 맥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최근 소개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제재관련**

● **보즈워스 방한, 북핵 대응방안 논의(9/4,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순방의 일환으로 4일 오후 방한, 중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보즈워스 대표는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중국을) 떠날 때 할 말을 했고 (한국을) 떠나기 전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숙소로 향했음.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5일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 및 만찬을 함께 하고 북핵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

● **유엔 北대사, 내가 편지 보냈다(9/4, 조선중앙통신)**

-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

- 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내가 직접 편지를 보냈다”고 답변, 신 대사는 3일 오후 뉴욕 맨해튼의 유엔본부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
- 이에 대해 9월 유엔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미국의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그런 서한의 내용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다”면서 “아직 편지를 받지는 못했다”고 언급, 그는 그러나 “이것이 편지가 발송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우리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
  - 앞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대표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나라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면 폐연료봉 재처리도 마무리 단계이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북한은 최근 이란 수출용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억류된 사건에 대해 유엔 제재위원회가 해명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응답 차원에서 이번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짐.

## 나. 북·미 관계

### ● 보즈워스, 北 핵무기화에 우려 표명(9/4,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4일 북한이 우리나라 농축에 성공하고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중국과의 북핵 문제 협의차 방중한 보즈워스 대표는 4일 오전 베이징 웨스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의 무기화를 주장한 것과 관련 “전날 밤 소식을 들었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분야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려가 된다”고 언급
- 보즈워스 대표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고 있지만 이는 오직 6자회담의 틀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수차례 강조
- 그는 3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4일 오전까지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 및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개별 회동을 가짐. 그는 “중국 관리들과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같이했고 비핵화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자회담(6자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

했다”고 언급하고 또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답변

#### 다. 북·중 관계

##### ● 北김영일, 방중 마치고 귀국(9/5, 연합)

-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4박 5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5일 귀국, 1일 베이징에 도착한 김 부상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비롯한 중국 외교부 관리들과 북중 관계와 양국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
- 아시아 담당으로 2003년 8월에 열린 1차 6자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김영일 부상은 북중 수교 60년 기념행사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하면서 6자회담 문제도 함께 다룬 것으로 알려짐.
- 외무성 대표단은 2일에는 고 김일성 북한 주석이 지난 1991년 10월 방문했던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를 방문,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상이 장쑤(江蘇)성에 머물고 있다”면서 “곧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 이번 주말 귀국할 예정”이라고 언급

##### ● 북·중 수교 기념화첩 발행(9/3, 조선중앙방송)

- 북한과 중국의 수교 60돌 기념화첩 ‘조(북)·중 친선은 세기를 이어’가 3일 발행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화첩 발행식은 북측에서 강능수 문화상, 최경국 외국문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림원보 출판지도국 국장, 전영진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측에서 고수무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세계지식출판사 대표단,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가 참가

##### ● 中, 北억류 美여기자 주장 반박(9/3, 연합)

- 중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 여기자 2명이 자국 영토에서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유 대변인은 3일 두 여기자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당신들(언론)이 설명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답변



- 로라 링과 유나 리는 9월 1일 소속 방송사인 커런트 TV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자신들이 북한 국경을 잠시 넘어갔다가 다시 중국 쪽으로 나왔으나 뒤쫓아온 북한군 병사들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밝혔음.

● 中, 동북아 긴장완화 기회 살려야(9/1, 연합)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동북아시아에 긴장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이 기회를 잘 포착해 국면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장 대변인은 지난달 6 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의 방북 이후 추가로 대북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대답
-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우 부부장의 방북 이후 중국이 조만간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의 고위급 특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것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北 만수대창작사, 중국제예술전 참가(8/31, 연합)

- 북한 최고의 미술창작단체인 만수대창작사가 31일 제12회 베이징 국제예술전람회에 참가해 북한의 현대 미술을 중국 관객들에게 소개, 북한 인민 예술가인 리창(67) 화백을 비롯해 공훈예술가 최명식, 1급 예술가 전병진·최영철·김영일 등 창작사 소속 화가 5명은 27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이번 미술전에서 북한의 색채를 담은 풍경화와 인물화 등 사실주의적인 작품 21 점을 선보임.
- 특히 이번 대회에서 리창 화백의 대표작인 ‘몽금포의 해질무렵’이 북한의 전통 기법을 현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고 창의상’을 수상

라. 북·일 관계

● 北매체, 日총선 정권교체 논평없이 보도 (8/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일본 총선 결과 “정권이 자민당으로부터 민주당으로 넘어 가게 되었다고 한다”며 일본의 정권교체 사실을 비교적 신속히 보도
- 통신은 “선거 결과 민주당이 국회 중의원의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였으며

자민당은 큰 참패를 당하였다”며 자민당의 ‘큰 참패’를 거론했으나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은 곁들이지 않음.

## 마. 북·러 관계

### ● 러시아, 6자회담 재개 北 압박할 것(9/4, 인테르팍스 통신)

- 러시아는 최근 우라늄 농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한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임하도록 압박할 방침이라고 4일 인테르팍스 통신이 알렉시 보로답킨 러시아 외무차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
- 보로답킨 차관은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와 이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뒤 “이 목표들은 6자회담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

## 바. 기타 외교 관계

### ● 北-쿠바 외무장관 회담 개최(9/4, 조선중앙방송)

-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이날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데 대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은 보도
- 회담에 앞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도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을 만나 환담을 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하는 선물도 전달받음.
- 호세 몬타노 북한 주재 쿠바 대사는 이날 쿠바 정부대표단의 방북을 맞아 연회를 개최했으며 북측에서 박의춘 외무상, 김용진 교육상, 김태종 당 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형진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

### 3 대남정세

- **北, 예고 없이 댐 방류, 6명 실종·사망(9/6, 연합)**
  -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쯤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부근에서 야영 중이던 7명이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음. 이중 2명은 헤엄을 쳐 빠져나왔지만 나머지 5명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또 인근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김대근(39) 씨도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11시 25분쯤 숨진 채로 발견됐음.
  - 소방당국은 북한에서 댐을 방류해 임진강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수위는 평소 2.3m 정도이지만, 사고 당시에는 4.96m 정도까지 수위가 올라갔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음.
  
- **정부, 이산가족상봉 합의대로 진행(9/4, 연합)**
  - 정부는 4일 남북 간 진행 중인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합의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적인 내용의 편지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것과 관련, “가장 인도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가족상봉 행사는 이미 남북간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언급
  
- **남북경협사무소 7일부터 정상운영(9/4, 연합)**
  - 남북은 2008년 ‘12.1조치’로 폐쇄됐던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9월 7일부터 정상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4일 밝힘.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지난해 12월 1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쇄한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를 9월 7일부터 정상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남북은 어제 사무소에서 근무할 양측 근무자의 명단을 교환했다”고 밝힘.
  - 우리 측에서는 유종렬 소장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와 민간기구 인사 13명이, 북측에서는 량기건 소장을 비롯한 6명이 경협협회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며 우리 측 인사는 7일 방북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소개
  
- **대북 지원단체 2곳 ‘의료협력’ 방북(9/2, 연합)**
  - 지난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북 지원단체 2곳이 방북한 데 이어 이

번주도 나눔인터내셔널 등 2곳이 평양을 방문, 나눔인터내셔널 관계자 3명은 2일부터 5일까지 평양 적십자병원 등을 둘러보고 의료협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고, 순복음교회 신하 선교회 관계자 1명도 2일에서 8일까지 평양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신축중인 '조용기심장병원' 공사에 대한 기술감독을 할 예정

-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뒤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의 물자 반출과 방북이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가 이달 초 일부 해제돼 월드비전과 겨레의 숲을 비롯해 지금까지 수개 단체가 방북, 그러나 물자반출은 여전히 대부분 제한되고 있음.

● 경기도, 2년 1개월만에 北 식량지원 재개(9/2, 연합)

- 경기도가 2년 1개월만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재개, 도(道)는 8월 초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으로부터 “지난 5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측이 식량 지원을 요청했는데, 공동 지원하자”는 제의를 받고 지난해 편성해 놓은 사업비 1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힘.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기도 지원금에 성금 등 자체 모금액을 더해 중국에서 알갱이 형태의 옥수수를 구입, 옥수수 4천200t을 1일 북한에 전달
- 이 민간단체는 이번에 전달한 물량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40억원 상당의 옥수수를 북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 모두 9회선(9/2, 연합)

-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2일 정상 가동, 남북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을 연결하는 총 9회선의 군 통신선을 개설해 놓고 있음.

● 정부, 남북 열차운행, 물동량봐가며 검토(9/2, 연합)

- 정부는 경의선 남북 화물열차 운행 재개는 물동량 등을 봐가며 검토하겠다고 2일 밝힘.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북한 열차 운행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화물열차 운행과 관련한 문의를 해왔다”고 소개한 뒤 “정부는 물동량 등을 봐가며 화물열차 운행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 “이에 따라 오늘 북측 열차 운행사무소에 화물열차 운

행과 관련한 우리측 입장은 추후에 통보하겠다는 통지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소개

- ‘물동량이 늘지 않으면 개통을 안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물동량에 따라 ‘하겠다, 안 하겠다, 언제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힌 뒤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 입장에서 일정 물동량이 유지돼야 하는 게 중요한 고려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답변

● 정찰 위해 고의로 월선, 北 시인 강요(9/2, 연합)

-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예인됐던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선적 ‘800연안호’는 위성항법장치(GPS) 없이 조업에 나갔던 것으로 밝혀짐.
- 정부합동조사반은 1일 “연안호가 GPS를 장착하지 않은 채 오징어 조업을 나갔다가 나침반과 경험에 의존해 거진항으로 복귀하던 중 항로착오를 일으켜 북한 해역으로 월선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 연안호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쯤 GPS 없이 출항해 거진항 동방 69마일(127.8km) 공해상에서 조업하다 어획량이 적어 돌아오던 중 항로 착오를 일으켰으며 이튿날인 7월 30일 오전 6시 17분쯤 속초 어업정보통신국과 북한 경비정 출현 사실을 마지막으로 교신한 연안호는 오전 6시 30분 거진항 동북방 22마일(40.7km), NLL 북방 8마일(14.8km) 해상에서 나포
- 선원들은 북한에 있는 동안 대북정찰 임무 등을 위해 고의로 월선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받은 것으로 나타남. 합조반은 “북측이 연안호의 GPS 미장착 경위에 대해 추궁하고 을지훈련 대비 정찰임무 등을 부여받고 고의로 월선했던 혐의를 시인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힘. 선원들은 영해 불법침입죄로 인민재판에 회부하겠다는 협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은 예인 직후 이튿간은 연안호 내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원산항으로 이송돼 지난 19일까지 하루 30분~1시간 정도씩 조사를 받았음. 조사 과정에서 선원들은 정탐 부분 등은 강력히 부인했지만 월선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자술서를 제출

● 9/1부터 개성 육로통행 정상화(9/1, 연합)

- 남북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북측의 '12.1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1일부터 경의선 육로통행이 정상화, 금강산 지구 출입경이 이뤄지는 동해선도 요일에 상관없이 사업자들의 편의에 따라 시간대를 조율해 드나들 수 있게 됐지만 하루 통행횟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 통일부에 따르면 '12.1 조치' 이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3차례 걸쳐 이뤄지던 하절기(4~9월) 경의선 육로 방북 횟수와 시간대가 이날부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2차례로 증가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3차례씩 이뤄지던 귀환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됨.
- 하루 3차례씩 이뤄지는 토요일 방북과 귀환도 각각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 7차례, 5차례로 늘어남.
- 또 각각 250명과 150대로 한정됐던 통행 시간대별 인원과 차량 대수 제한과 880명으로 묶어 놓은 개성공단 상시체류자격 소지자 수 제한도 전면적으로 풀림. 이와 함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방북, 오후 3시 귀환으로 제한됐던 동해선 육로 통행도 이날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사업자들의 편의에 따라 시간대를 조율해 드나들 수 있게 됐지만 아직 하루 통행횟수는 결정되지 않음.

〈첨부1〉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6월 13일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조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전면배격하며 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했다.

따라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른바 제재관련 위원회의 해당요청에 응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8월 25일에 진행된 남조선 위성발사를 침묵으로 대한 것처럼 애초에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문제시하지 않았더라면 2차 핵시험과 같은 우리의 강경대응도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평화적인 경제건설 권리까지 빼앗으려는 강권과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행동조치는 너무도 정정당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 유엔 성원국의 응당한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사죄할 대신 오히려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결코 적반하장격으로 만들어낸 ‘제재 결의’를 우리가 인정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데 이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 행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이미 명백히 밝혔다.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속단계에 들어섰다. 우리는 대화에도 제재에도 다 대처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부 상임이사국들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다.

만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길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에 더 이로운가를 똑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의 사태를 지속시킨다면 우리는 이미 표명한 대로 또 다른 자위적인 강경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09.07-09.13

9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북, '김정은=후계자' 사실상 공식화 단계(9/13, 연합뉴스)

- 각 가정 유선방송 통해 김정은 실명으로 선전, 참관지 해설원, 방북 인사에 '김정은 대장' 언급
- 북한 당국은 지난 7월계부터 북한 가정에 설치된 유선 라디오 방송인 '제3방송'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 된 셋째 아들 정운(김정은)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의 자질과 능력을 주민들에게 적극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지난 8월 북한을 방문했던 남측의 한 인사는 한 참관지에서 해설원이 "이곳은 김정일 장군님과 김정은 청년대장 동지께서 다녀가신 곳"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으로 전해짐.
- 제3방송의 김정은 선전 방송과 관련, 한 대북 소식통은 13일 "북한 당국은 그동안 제3방송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를 '김 대장'으로만 호칭하다 2개월여 전부터는 평양의 제3방송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해가며 그를 찬양하는 우상화 선전을 하고 있다"며 "평양에서는 이 방송을 통해 김정은의 '혁명 일화'도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 그는 다른 지역 제3방송에서도 이 같은 선전방송을 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임.
- 평양의 제3방송이 주민들에게 선전한 김정은 관련 '혁명 일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민군 '대덕산 초소' 일화, 휴전선 서부지역에 있는 이 초소는 김일성 부자가 수차례 찾았으며 북한에선 '일당백' 구호가 유래된 곳으로 알려진 곳인데 제3방송은 "이곳 군인들이 물이 없어 고생하고 있을 때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 쇠파이프를 박고 지하수를 파내는 데 성공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김정은 대장이었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것으로 전해짐.
- 제3방송은 또 김정은에 대한 첫 찬양가로 알려진 '발걸음'이라는 노래 가사 가운데 김정은을 '김 대장'으로만 지칭하던 것을 수정해 '김정은 대장'이라고 실명을 넣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제3방송은 주민통제와 사상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만 전달됨.

- 또 북한의 대남 관계자들은 최근 방북한 남측 인사들에게 ‘김정운 후계’에 관해 비교적 스스로 없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 소식통은 “지난달 북한에서 만난 관계자는 후계자 김정운을 상징하는 노래인 ‘발걸음’이 ‘조직적으로 포치(전파)되고 있다’며 이 노래의 의미에 대한 질문엔 ‘2~3년 후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급
- 이 노래는 “척척 척척척 발걸음/우리 김대장 발걸음” 식으로 김정운을 가리키는 ‘김 대장’이라는 표현이 매절에 들어가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월 생일을 염두에 둔 ‘2월의 위업 받들어’ 등의 가사가 포함돼 있어 김정운 찬양가로 해석되고 있음. 8월말 방북했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관계자도 “봉사원에게 ‘발걸음’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자 주저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고 전하고 ‘후계를 암시하는 노래냐’는 질문에 다른 북측 관계자는 “맞는데, 개인적인 견해”라고 답했다고 설명

● 김정일 삼남 이름, ‘정은’으로 판단(9/11, 연합)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삼남 이름이 그동안 알려진 ‘정운’이 아니라 ‘정은’인 것으로 정부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대북 소식통은 11일 “정부 유관 당국은 최근 김 위원장 삼남의 정확한 이름이 기존에 알려진 ‘정운’이 아니라 ‘정은’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 통일부와 정보 당국자 등은 이에 대한 공식 확인 요청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힘.
-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삼남 이름이 원래 ‘정운’이었다가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정은’으로 개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 그동안 김 위원장 삼남의 이름은 김 위원장의 전속 요리사로 활동했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藤本建二) 씨의 증언 등으로 지명되 ‘정운’으로 알려져 왔음. 일본 마이니치(毎日) 신문은 최근 자체 입수한 북한 내부 문건에 ‘김정운’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 삼남 이름이 ‘김정은’으로 표기돼 있었다고 지난 8일 보도

● 김정운은 군사의 영재, 日紙 北우상화 문건 입수(9/8, 마이니치 신문)

- 북한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삼남 정운(正雲)을 우상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중국에서 입수했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

- 이 8일 보도, 마이니치는 이 문서에 ‘정운’이라는 이름이 ‘정은’으로 표기돼 있어 앞으로 ‘正銀’ 또는 ‘正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
- 신문이 입수했다고 보도한 문서는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 등 세 종류임. 이 자료에는 ‘김정은 대장은 군사적 안목이 넓고 실력이 비할 데 없이 높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는 우리의 군대와 인민을 지도해온 유일무이한 분의 후계자’ ‘천재적 영지(英知)와 지략을 지닌 군사적 영재’ 등의 표현이 들어 있음. 마이니치는 이 문서가 인민무력성 또는 국가안전보위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문서에 노동절(5월 1일) 불꽃놀이 행사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그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마이니치는 또 다른 문건에 ‘하루라도 빨리 김정은 대장 동지를 경애하는 장군님의 후계자로 추대하여 장군님의 노고를 가볍게 해준다면 좋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 마이니치는 ‘정은’이라는 이름과 관련, 김정일 위원장의 한자 이름도 1980년 10월 그 당시까지 알려진 ‘金正一’이 아닌 ‘金正日’로 확인된 바 있다고 보도

## 나. 정치 관련

### ● 北매체, ‘김정일 공격정신’ 따르라 주문(9/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12일 ‘과감한 공격정신과 대고조’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격하고 또 공격해 나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격정신’을 따를 것을 주민들에게 강조
- 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어느 한 단위의 일꾼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한 평생 강한 의지력을 지니고 공격정신으로 일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주도한 것이나 ‘150일 전투’를 시작한 것도 “그런 공격정신의 발현”이라고 말했다고 소개
- 신문은 “공격정신은 말 그대로 공격전의 정신”이라며 “‘150일 전투’의 양양된 기세를 계속 견지하면서 총공격전으로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전환의 해, 변이 나는 해로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최후 승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또 공격”할 것을 주문

● 北, '150일전투' 이어 '100일전투' 계속(9/11, 조선신보)

- 북한은 '150일전투'가 끝나는 대로 연말까지 '100일 전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조선신보가 11일 보도, 조선신보는 '만풍년'이라는 제목의 '메아리'란에서 "(북한에선) '150일 전투'가 '만풍년'을 자랑하듯 여러 단위들에서 연일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100일 전투'에 이어 나간다고 한다"고 밝힘.
- 신문은 "총련(조총련) 중앙위원회 21기 3차회의 결정에 따라 총련에서도 100일 운동이 시작되니 조국인민들과 총련은 올해 막바지까지 힘찬 투쟁을 함께 벌리는 셈"이라고 언급
-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는 2012년을 '강성대국' 달성의 목표 시한으로 잡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말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방문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주문한 데 따라 지난 4월 20일부터 '150일 전투'에 들어가 9월 17일 종료할 예정

● 北, 정권수립 61돌 차분한 분위기(9/9, 연합)

- 북한은 정권수립 61돌(9.9)을 맞아 예년 수준의 기념행사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150일전투'와 연계해 주민들의 노력동원을 극대화하는데 주력, 기념행사로는 고(故)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 업적'을 선전하기 위한 공연과 전시회가 개최중임.
- 북한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일성화(花)·김정일화 전시회'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묘향산(1~3일)과 칠보산(5~7일)에서 각각 열렸음. 7일에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의 공연이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청년들의 경축음악회가 청년중앙회관에서 각각 개최, 북한이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이라고 자랑하는 '아리랑'은 지난 8월 10일 평양 룡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개막공연을 한 데 이어 현재 공연이 한창 진행중임.
- 8일 저녁에는 당·정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보고대회가 개최, 이와 함께 북·중 '친선의 해'를 맞이해 중국 작가들이 창작한 미술작품 90여 점이 출품된 중국미술작품전시회가 7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됐으며, 지난 1일 방북한 러시아의 '21세기 관현악단'은 지난 4일 평양대극장에서 첫 공연을 진행, 중국과 러시아, 조총련의 각급 대표단들은 '9.9절' 행사에 맞춰 평양을 방문

● 노동신문, 목표달성 강조(9/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150일 전투' 종료를 10일 앞둔 7일 장문의 논설을 싣고 “혁명적 기세는 계속 견지돼야” 한다고 말해 '150일 전투' 종료 이후에도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위한 대중동원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
- 신문은 “우리의 대진군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올해는 “이상스러울 정도로 모든 일이 잘 되는 해”라며 “대비약의 돌파구는 이미 열려졌다”거나 “우리의 승리는 과학이며 필연”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낙관을 심으려 노력
- 신문은 그러나 “지금 세계에는 우리의 강성대국 건설 투쟁의 승리와 그 정도에 대하여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조선이 인차(곧) 주저앉게 될 것이라는 낭설이 얼마나 많이 떠돌았는가”라고 말해 북한 내부에서도 불안감과 회의론이 떠돌고 있음을 방증
- 신문은 한편 “대고조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하는 당 간부들의 “송풍기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 “생산과 건설을 캄파니아(캠페인)식으로, 임시변통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 신문은 이와 함께 “단결의 천하지대본은 민심이며, 민심을 틀어쥐는 길은 혁명적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데 있다”며 ‘군중노선의 관철’을 강조

● 노동신문, 군사적 강권으로 비핵화 진전 없어(9/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백해무익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미국은 우리와의 대결 역사를 총화(결산)해 볼 필요”가 있다며 “거기에서 교훈을 찾고 백해무익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미국에 거듭 요구
- 신문은 이날 “미국의 대조선(대북) 군사적 강권정책이 강행되는 속에서는 조미(북미)관계와 조선반도 비핵화에서 그 어떤 변화도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평양에 첫 러시아상품 전문상점 개점(9/11, 조선신보)

- 평양에 러시아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점이 생겼다고 조선신보가

11일 보도, 북한의 금영합작회사가 운영하는 이 상점은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원동지역 권천식 위원장과 러시아 웨네라 유한책임회사의 정혜성 사장 등 러시아의 고려인들이 투자

- 평양시 중구역 동흥동에 현대적인 건물을 세우고 지난 3월 초 개점한 이 상점은 러시아제 남녀 계절옷과 가방, 신발, 화장품을 비롯한 경공업 제품, 보드카를 비롯한 식료품을 판매, 1층의 상점과 2층의 식당은 언제나 손님들로 붐비며, 3층에는 현재 첨단과학기술자료 봉사실이 건설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금영합작회사의 박미화(41) 부사장은 “재러시아 동포들과 공동으로 러시아 상품의 전문판매점을 내오기는(조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

● 평양거리에 염소젖발효유 전문매대 등장(9/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평양 곳곳에 염소불고기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선 염소젖 발효유를 일컫는 러시아말인 케피르를 비롯해 염소젖가공품(유가공품)들도 판매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소개
- 케피르는 젖을 젖산균과 알코올 발효균이 들어 있는 케피르씨균으로 발효시켜 만든 유제품으로, 새콤하고 달며 차게 먹는 것으로 알려짐. 평양시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 케피르판매소의 최윤희 지배인은 “판매소 산하 각 구역의 분점들에서 신선한 염소젖가공품을 봉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앙통신도 “각 구역에 자리 잡은 케피르 분점들은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수많은 손님들로 언제나 흥성이고 있다”고 말해 케피르를 염소불고기 식당 외에 거리 전문매대에서도 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통신은 “수도의 거리마다에 케피르 매대가 생겨난 것은 여름철의 유다른 풍경”이라고 말해 이번 여름부터 케피르 매대가 생겼음을 시사, 평양시 평천구역 북성1동에 있는 염소불고기 식당은 케피르, 치즈, 고기케피르즙구이, 치즈감자빵가루튀기, 염소고기 완자 등 10여 가지 음식을 제공
- 조선중앙통신은 또 평양의 대동강식료가공공장이 최근 “질적 특성이 비할바 없이 개선된” 새 과일탄산단물가루 제품들을 개발했다고 소개, 이 가루는 “탄산가스 포화도가 종전의 3배 이상”이고 “가스가 순간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출”돼 “시원하고 짙한(짜릿한) 맛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

● 北-EU간 2008년 교역 40% 증가(9/11, 자유아시아방송)

- 2008년 북한과 유럽연합(EU)간 교역액이 약 2억700만 유로를 기록, 2007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EU의 대북 무역통계를 인용해 11일 보도
- 그러나 2007년 북한과 EU간 교역액은 2006년에 비해 53%나 감소한 기록이어서 2008년 급증은 2006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의미, 2007년 교역액의 급감은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EU가 본격 동참한 결과, 이에 따라 북한의 지난 5월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874호를 EU가 엄격히 이행할 경우 앞으로 북한과 EU간 교역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오티사는, 北-유럽 운송 거의 도맡아(9/10, 연합)

- 아랍에미리트에서 압류된 북한 컨테이너의 운송을 담당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이탈리아 업체 오티(OTIM)사는 북한과 유럽 간 물자운송의 대부분을 담당
- 1950년대 후반 설립된 오티사의 주 업무는 해상 및 육상, 항공 운송. 이밖에 전시행사 대행과 관광업도 수행, 연 매출 4천만 유로(약 700억 원) 정도의 가족기업이지만, 북한에 사무실을 가진 유일한 이탈리아 기업으로서 특히 유럽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물자의 운송을 거의 독점
- 마리오 카르니글리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북한과 거래를 트게 됐고, 로마 주재 북한대사관의 추천을 받아 본격적으로 거래하게 됐다”고 소개, 그는 “다른 회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고, 복잡한 절차와 서류 작업을 필요로 하는 국제운송사업의 특성상 기존에 거래해온 우리 회사와 계속 거래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더 편리하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언급
- 오티사는 북한에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의료장비와 용품, 건축자재 등을 운송해왔고, 피아트 자동차를 부품 형태로 운송해 남포항에서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수출하기도 했으며, 북한산 맥주의 병입(보틀링)도 맡아왔음. 특히 이 회사는 북한이 매년 5월과 9월 두 차례 개최하는 평양국제상품전람회(PITF)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의 전시품 반출입 허가수속과 수송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을 정도로 북한당국의 신임을 받고 있음.

- 한편 오툼 사는 이탈리아에서 북한으로 가는 여행자용 비자 발급을 대행하는 업체이기도 함.

● 평양, 도로 새로 포장하고 건물도 새로 단장(9/9, 연합)

- 8월부터 9월 초까지 북한을 방문한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평양이 최근 도로 아스팔트를 새로 깔고 노후한 아파트를 새로 칠하는 등 시내 모습이 산뜻해졌다고 전언
- 의료협력차 9월 초 방북한 관계자는 9일 “작년부터 해 오던 도로 보수작업의 일환으로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고 건물에 색칠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많이 깨끗해졌다”고 언급, 그는 “평양에는 1970~80년대 지은 건물이 많아 2000년대 초입까지만 해도 우중충 했지만 최근 단장을 새로 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 그는 짓다 말아 흉물로 방치돼왔던 105층짜리 류경호텔도 전면 유리공사를 거의 끝내고 옆면 유리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
- 8월 말 평양을 둘러보고 온 등대복지회 신영순 이사도 “평양 보통강구역에 있는 보통강종합편의시설 앞 왕복 8차선 도로도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다”며 “지난 4월 방북했을 때는 사동구역에 있는 미림학원 가는 길도 포장 공사 중이었는데 이번에 보니 왕복 6차선 도로가 포장이 다 돼 새 길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전언, 그는 “30, 40년 된 건물의 낡은 외관에 타일을 새로 붙이고 도장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
- 8월 초 방북한 월드비전 관계자도 “평양이 전체적으로 깔끔해졌고 ‘장군님’이 마련해 줬다는 교통경찰의 새 파라솔 초소가 눈길을 끌었다”고 말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도 “2012년까지 평양에 10만호를 새로 짓는다는 현장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약 2년 만에 방북했는데 평양이 깨끗해졌더라”고 전언
- 이들은 방북기간이 북한이 세계 최대 집단체조라고 자랑하는 아리랑공연 기간이어서인지 호텔, 식당 등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고 설명, 한 방북단체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이 훨씬 많아졌다”며 “직급별로 배당되고 요금은 자기가 내는데 카메라폰은 소위 ‘뺨’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 그는 “이전에는 총사장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번에 갔을 때는 참사까지 사용했는데 아직 과장급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소개

- 北, 10월 신의주서 고려링크 이통 개통(9/9, 연합: 제295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당국은 10월 10일부터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도 북한과 이집트 오라스 콕사간 합작사인 고려링크를 통한 휴대전화의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9일 온라인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 최근호(제295호)에서 보도
  - 북한 당국은 그러나 신의주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 7월 1일부터 단속중이며, 이를 위해 “육성 통화 내용은 물론 문자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고 이 소식지는 소개
  - 자유아시아방송(RFA)도 8일 “중국내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평양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가 신의주에서도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라고 보도
  
- 北도 첨단 나노기술 개발에 관심(2009년 8월호, 천리마)
  - 북한 ‘천리마’가 8월호에서 ‘나노기술의 놀라운 세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나노기술은 21세기 정보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며 국제사회의 나노기술 개발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나노기술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보여줌.
  - 잡지는 이어 “나노구조 물질은 단단하고 강력하며 신뢰성이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전의 재료에 비하여 사용 수명이 몇배나 길다”며 따라서 “다리외도로, 도로표식 및 교통통제 체계뿐 아니라 가볍고 오래 쓸 수 있는 재료를 필요로 하는 수송기재나 항공우주 탐색장치 재료로도 안성맞춤”이며 “군사분야에서도 광범히 이용될 전망”이라고 설명
  - 조선중앙TV는 9월 4일, 제6차 전국 나노과학기술발표회 및 나노제품 전시회가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려 나노 절연재료를 비롯해 100여 점의 나노 분말재료와 제품들이 출품됐으며 나노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120건의 과학기술 성과 및 경험들이 발표됐다고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2008년 9월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들이 “무기질나노분비막과 나노항균섬유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나노복합 자외선차단재료를 찾아내는 데 기여했다”고 보도

- **北원산제염소, 연간 1만5천t 생산(8/29,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월 28일 시찰한 강원도 원산제염소는 500정보(1정보=3천평) 규모 면적에 연간 생산량은 1만5천t이라고 노동신문이 29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제염소 현지지도 당시 “원산제염소는 인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업소”라며 소금 증산을 위한 기계화를 강조
  
- **태양에네르기발광합작회사, 태양전지제품 생산(9/6, 조선중앙TV)**
  - 북한의 태양에네르기발광합작회사가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춰 “여러가지 효율높은” 태양전지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조선중앙TV가 6일 보도
  - 이 회사 제품에는 3W, 5W, 10W, 20W, 40W 태양전지 제품과 휴대용 태양전지, 탁상등, 태양전지컵등, 태양모자 등이 있음. 방송은 이 회사 관계자와 문답 형식을 통해, 사용방법에 대해선 태양전지판을 베란다나 해가 비치는 곳에 수평면과 30-55도의 경사를 두고 태양과 일치하게 설치한 뒤 전지판에 연결된 코드를 가정에서 쓰는 12볼트용 대용량 충전기나 배터리에 연결, 충전해 사용한다고 설명
  
- **8월 생산계획 초과 수행(9/5, 조선중앙방송)**
  - 북한에서 4월 시작된 ‘150일전투’가 막바지 단계인 가운데 8월 생산계획이 119%로 초과 수행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5일 주장, 방송은 “이 기간 철강재, 전력, 석탄, 철광석, 시멘트, 화학비료, 일반 천 등 인민경제 주요 지표들의 생산과 철도화물 수송량이 지난해 같은 때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설명
  - 화학공업성은 8월 계획을 128%로 완수했으며, 건설건재공업성은 8월 계획을 1.2배로 끝냈다고 방송은 주장, 금속공업 부문의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강철과 압연강재 생산계획을 각각 105%로 수행했으며, 채취공업성은 150일전투 계획을 앞당겨 끝냈다고 방송은 보도
  
- **옷 설계 전 공정 컴퓨터화(9/3, 조선중앙통신)**
  -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정보센터가 최근 모든 공정이 “컴퓨터”된 새로운 피

복설계 지원체계를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이 체계는 작도, 옷본 작성 및 증감, 자동 및 대화식 본배열, 옷착용 모의 기능 등을 갖췄음.

- 자료 입력부터 옷본 설계, 본 배열, 검사와 수정 등 “모든 공정이 컴퓨터화”된 결과 “기술준비 공정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설계의 정확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통신은 보도
- 이 자동설계체계는 이미 애국모란피복공장, 애국최종락피복공장을 비롯한 평양의 여러 피복공장에 도입됐으며, 최근 열린 평양시 청년과학기술성과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통신은 보도

● 무연탄 다량채굴 공법 새로 개발(9/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석탄과학분원 석탄채굴공학연구소가 무연탄 다량채굴 공법을 새로 개발해 여러 탄광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이 공법은 탄층의 매장량, 지질학적 조건 등을 정확히 판정한 뒤 채굴층을 넓은 범위로 확대해 채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통신은 설명, 2.8직동청년탄광에선 이 공법으로 석탄 구획의 분포 특성을 파악해 “채탄 방출구당 생산성, 교대당 생산능력을 훨씬 높였다”고 통신은 말하고 “서부지구의 여러 탄광들에서는 이 공법을 도입하여 많은 석탄을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

● 량강도, 혜산식료공장 건설 마무리단계(9/2, 9/4, 평양방송)

- 량강도가 건설 중인 혜산종합식료공장이 건물의 벽체와 지붕, 내부 미장 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와 타일붙이기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평양방송이 2일 보도
- 이에 따라 량강도는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제품지표 연구사업을 광범위하게 조직”해 감자와 참나물, 산과일 등 특산물과 도 자체 원료를 갖고 16종 220여 가지의 식료품을 가공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방송은 설명
- 또 자강도의 종합식료가공공장도 현재 건물 내·외부 미장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방송은 4일 보도

## 라. 군사 관련

### ● 北학자들, 8월말 “우라늄 기술 확보” 공개 주장(9/9, 연합)

- 북한이 9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라늄 농축 시험의 성공’을 주장하기 앞서 이미 8월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학술 회의에 참가한 북한 학자들이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기술을 확보했다”고 공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짐.
- 한반도평화연구원(KPI) 홈페이지에 게재한 ‘상해 남북학술회의 참가기’에서 이 회의에 참가한 북한 학자들이 “6자회담에는 절대로 안 나간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제는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도 좋다”며 ‘비장한 각오’를 표시했다고 소개됨.
- 이 학술회의에서 특히 북한 조선사회과학원의 리경철 법률연구소 실장은 주제발표를 한 뒤 북한이 말하는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의미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경제가 최고조로 달했던 수준” 즉 “1987년의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참가기 작성자 김병로 교수는 전언

## 마. 사회·문화 관련

### ● 北, 평남 순천시 총연장 6km 석회동굴 발굴(9/13, 평양방송)

- 북한은 평안남도 순천시 오봉리에서 약 10만년 전 제4기 빙하기 시절에 형성된 자연동굴을 발굴, 천연기념물로 등록했다고 평양방송이 13일 보도
- 평양방송은 이날 평안남도 명승지관리소 한은남 소장의 말을 인용, “순천시 오봉리에서 자연동굴을 발굴해서 천연기념물 ‘오봉동굴’로 등록하고 보존 관리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오봉동굴은 순천시 북쪽지역에 있는 오봉의 네 번째 봉우리인 사봉산에 자리 잡고 있는데 “동굴의 총 연장길이는 6km가 넘고 명소구간은 600여m에 달한다”고 소개

### ● FIFA, 北-마다가스카르 친선경기 주선(9/11,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축구연맹(FIFA)이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북한 축구대표팀을 위해 아프리카 대륙 동쪽의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와 북한간 친선경기

를 추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

- 북한은 본선 진출이 확정된 이후 한국 등 다른 진출국들과 달리 지금까지 한차례도 국가대표팀간 평가전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선경기가 성사되면 북한팀엔 본선 준비를 위한 첫 국가대표팀간 평가전이 될 뿐 아니라 월드컵이 열리는 아프리카의 기후와 토양에 대한 적응훈련 기회
- 마다가스카르 축구연맹의 사린드라 대변인은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FIFA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오는 11월 북한 축구 대표팀을 마다가스카르로 불러 친선경기를 하겠느냐는 제안을 했다”면서 성사되면 경기 날짜는 11월 14일이나 18일, 장소는 마다가스카르 수도인 안타나나리보의 마하마시나 시립경기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

● **교육프로그램 전시회 개최(9/8, 조선중앙통신)**

-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전시회가 2일부터 8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소개, 전시회에는 모의실험실습, 원격교육, 전자도서관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비롯해 교육정보와 관련된 750여 건의 프로그램이 전시

● **김정일, 마약으로 뇌졸중 치료, 복에 소문(9/8, 동아일보)**

- 북한에서 마약인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이 뇌중풍(뇌졸중)特效약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8일 보도
- 또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장군표 맥주’를 사용해 뇌중풍 마비 후유증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북한과 중국 국경 일대에 퍼지고 있다”고 소개, 장군표 맥주는 중국에서 히로뽕을 지칭하는 은어
- 신문에 따르면, 히로뽕 밀매에 관여한 적이 있는 한 북한 주민은 최근 “북한에서는 ‘얼음’이 뇌중풍特效약으로 알려져 있어 노인이 있는 집에서는 비상약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 북한에서는 히로뽕을 ‘얼음’ ‘아이스’ ‘빙두’ 등의 은어로 지칭, ‘얼음’은 북한에서 g당 북한 돈 6만 원 가량(약 2만 원)에 팔리고 있음. 반면에 ‘얼음’을 사용한 사람들에게선 식욕이 감퇴하지만 활동량은 매우 증가하고 살과 머리카락이 급속히 빠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함.

● **바지 입는 북한 여성 늘고 있다(9/7, 온바오닷컴)**

- 여성의 바지 착용에 대한 북한의 금기가 풀려 최근 바지를 입는 여성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중국의 동포 매체인 온바오닷컴이 7일 보도, 이 매체는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의 9월 4일자 평양발 보도를 인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바지를 입는 여성이 늘었다고 보도
- 환구시보는 “북한 노동당 중앙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편리하고 보기 좋게 입자는 내용으로 여성들도 단정한 바지를 입자고 건의했다”고 보도, 환구시보 평양주재 기사는 “지난 2년 간 평양에서 바지를 입은 여성을 보지 못했다”며 “춘하추동 4계절 내내 평양의 여군을 제외한 일반 여성, 여경 등은 치마를 입었지만 최근 바지를 입는 여성이 늘었다”고 언급, 이어 “이런 변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하면서 “거리에서는 규찰대가 여성들의 옷차림을 지도하고 있다”고 소개, 또한 “여성들은 바지가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색상이 단조로우며 스타일도 다소 촌스러웠다”고 설명
- 신문은 이어 평양의 한 외국인 회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이 치마와 바지의 장단점에 대해 “치마는 전통적인 여성의 복장으로 여성미를 보일 수 있다”며 “바지는 주로 날씨가 추운 겨울에 보온을 위해 입는다”고 말했다고 전언
- 평양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 중국인 상인은 “이전에는 여성들이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해 수요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달라져 바지를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에서 좋은 품질과 멋진 패션을 내세운 의류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 한편, 2008년 12월 12일 자 텐진일보(天津日報)는 “북한에는 여성들이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며 “김일성 생전에 바지는 남자들이 입는 것이라고 강조해 여성들은 바지를 입지 못했다”고 보도

● **北서해갑문 수역 철새 56종 관찰(2009년 4호, 과학원통보)**

- 과학원통보는 2009년 제4호에서 ‘우리나라 서해갑문 수역에서 주요 물새류의 가을철 이행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주요 물새들이 서해갑문 수역에 겨울나기(겨울나기)하러 오는 시기는 9월 초이며 12월 상순까지 이행이 계속된다”고 밝히고, 그 가운데서도 10월 말~11월 초에 가장

많으며, 조사 기간에 관찰된 물세의 종류는 오리류 21종, 도요류 18종, 갈매기류 8종, 기러기류와 농병아리류, 가마우지류가 각 3종 등 총 56종이라고 설명

- 조사는 2007년 9~12월 서해갑문 수역에서 물새들이 많이 모이는 2개의 수역(강하류, 바닷가)에 각각 길이 4km, 너비 0.5km의 고정관찰 수역을 설정하고 밀물 2시간 전후를 기본으로 해 월별로 2회 진행, 논문은 “조류독감(AI)을 미리 막기 위한 조류이행도 작성의 첫 공정으로서 주요 물새류의 가을철 이행을 연구하였다”고 조사 배경을 밝힘.

##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 美, 국제사회에 對北제재 강화 촉구(9/9, 연합)

- 미국은 8일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강력한 제재가 필수적이라며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촉구
-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 대사인 글린 데이비스는 이날 IAEA 이사회 연설에서 “유엔이 결의한 제재 조치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며 “제재 조치의 이행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와 국제 외교 사회로의 복귀가 유일한 선택 방안임을 확신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
- 데이비스 대사는 “모든 국가들이 유엔의 제재 결의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북한을 상대하는 데는 투명하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이며 핵확산 방지 조약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지적,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목표를 지지한다”면서 “북한은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
- 유럽연합(EU) 역시 성명에서 북한의 우라늄·플루토늄 무기화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에 “즉각적이고 명백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해체할 것을 요구, EU는 또 북한이 지난 4월 영변 핵시설에 배치됐던 모든 IAEA 감시 장비를 철수시키고 시찰자들에 출국 명령을 내린 뒤 불능화됐던 핵시설을 복구하기로 한 결정을 폐지하고 IAEA와의 협조를 재개·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한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여국들도 이와 비슷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날 회의에 참석한 IAEA의 35개 이사국은 모두 북한이 6자회담과 IAEA와의 공조를 재개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음.

● 美, 北 2개 기관 추가 자산동결 (9/9, 연합)

- 미국은 8일 북한이 핵프로그램 활동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2개 북한기관에 대해 추가로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혐의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추가로 자산동결 대상 기업으로 지정

나. 북·미 관계

● 클린턴, 北에 보즈워스 방북 수용 제안(9/12, 미국의소리방송)

- 8월 4일 방북한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  
- 당시 방북에 동행한 존 포데스타 미국진보센터 회장은 지난 10일(미국 워싱턴 현지 시간)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측에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었다”고 언급  
- 포데스타 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또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그가 여러 시간 클린턴 전 대통령과 대화에 임할 정도로 기력이 있어 보였고 “아주 직설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얼굴과 팔에 여전히 뇌졸중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언급

● 美, 北과 양자대화, 2주내 결정(9/12, 연합)

- 미국 국무부는 11일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시간과



장소는 앞으로 2주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레브리핑에서 “북한과 양자 논의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양자대화의 방식과 장소를 앞으로 2주일 내에 결정하려고 한다”면서 “언제 어디서 대화가 진행될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 그는 “우리는 6자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다면 양자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소개
- 이어 크롤리 차관보는 9월 21~25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 그는 “유엔총회가 고위급 지도자들이 6자회담 참가국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다른 지도자들이 6자회담 모든 참가국과 대화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
- 클린턴 국무장관이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유엔총회에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크롤리 차관보는 “클린턴 장관의 일정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라고 대답

● 美국무부, 무엇을 하든 관련국과 긴밀협의(9/6,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9일 6자회담 재개 이전 북미 양자대화 개최에 대한 5자(한·미·일·중·러)간 양해가 이뤄졌다는 보도와 관련, 미국은 어떤 일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6자회담 이전이라도 6자회담을 촉진하는 목적의 북미 양자대화 개최에 5자간 양해가 이뤄졌다는 연합뉴스의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이같이 답변
- 켈리 대변인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대표단에게 (답변) 기회를 넘기고 싶다”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명백히 해 왔다”면서 “이것이 6자회담의 맥락에서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언급

● 美국방정책검토보고서, 北붕괴 변수 검토(9/9, 연합)

- 미국 국방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할 ‘4개년 국방정책검토 보고서(QDR)’ 준비과정에서 북한 정권붕괴(regime

collapse) 변수 등 11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10 국방정책검토보고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본 연구논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5개 이슈팀을 구성, 북한 정권붕괴 가능성 등의 변수를 검토하면서 QDR의 뼈대를 만들고 있음.
- 미셸 플라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지휘 아래 이뤄지고 있는 QDR 준비작업은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미래에 맞닥뜨리게 될 위협을 파악해 맞춤형 국방전략을 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논문에 따르면 제1이슈팀은 북한의 정권붕괴, 파키스탄내 핵무기에 대한 통제상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수행 등을 분석중임.
- 또 제2이슈팀은 중국과 대만, 러시아와 발트해 연안국간의 갈등 문제와 더불어 핵무장을 하게 될 이란을 시나리오로 다루고 있음. 제3이슈팀은 미국 본토방위, 민간지원, 사이버공격, 재난관리 문제를, 제4이슈팀은 전 세계적인 미국의 군사배치 조정 문제를, 제5이슈팀은 국방부 내부 업무 효율성 제고 문제를 각각 검토

● 보즈워스, 6자회담틀 내 북미양자대화 가능(9/8, 연합뉴스)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이는 6자회담이라는 큰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보즈워스 대표는 “미국은 북한과 가까이 양자 대화할 수 있다”며 “다만 미국은 양자 간 대화를 다자 간 대화의 대체물이라고는 어떤 식으로든 생각하진 않는다”고 8일 일본 도쿄에서 언급
-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미국 측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단기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고 7일 전언, 사이키 국장은 최근 북한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폄하

다. 북·중 관계

● 北, 中 국경절에 김영남 파견(9/12, 아사히 신문)

- 중국의 건국 60주년 기념일인 국경절(10월 1일)에 맞춰 북한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특사로 베이징(北京)에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

사히(朝日)신문이 12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고위 관리가 이달 한국의 비정부단체(NGO)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설명, 이 고위 관리리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이름을 제시하면서, 김영남 위원장의 중국 방문 기간에 중국의 중개로 북미 대화를 희망하고 있음을 내비침.
- 북한의 이 관리리는 10월 이후 (북한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에 대해 동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는 뜻도 표명했다고 아사히는 보도, 아사히에 따르면 이 관리리는 또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도 기대하면서 "(북한과) 일본 사이에 비공식 접촉이 시작됐다"고도 언급했다고 보도

● 원자바오, 10월 방북 추진(9/12, 마이니치 신문)

-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10월 초순에 북한에서 열리는 '조(북한)·중 친선의 해' 행사 폐막식 참석차 평양을 방문키로 하고 북한 측과 조정 중이라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2일 보도
- 마이니치는 베이징에 있는 복수의 외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에 앞서 중국 측은 조만간 고위 관리를 북한에 보내 막판 절충을 벌일 것"이라고 관측
-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 취임 이후 첫 방북이 됨.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은 중국 건국기념일(10월 1일) 이후부터 한·중·일 정상회담(10월 10일 예정)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 방북 시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보도

● 중지도부, 북·중 협조 강화로 지역평화 수호(9/9, 연합)

- 중국 지도부가 9일 북한의 정권 수립 61주년을 맞아 북측 지도부에게 축전을 보내 "중·조 선린우호협조관계의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복리를 가져다주고 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에게 보낸 축하전문에서 이

같이 언급

- 축전은 또 “우리들은 조선측과 함께 계속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에 따라 중·조 외교관계 설정 60돌을 계기로 두 나라 사이의 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은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일관하게 귀중히 여기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축원한다”고 덧붙임.

● 中, 北 6자회담 복귀 우회 촉구(9/8, 연합)

- 중국은 핵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화 주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고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상궤도로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언급
- 장 대변인은 “중국은 각 당사국이 대국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한다”고 강조

라. 북·러 관계

● 北우라늄농축 정보 입수된바 없어(9/11, 연합)

- 북한의 우라늄 농축 성공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10일 현재까지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입수된 것이 없다고 밝힘.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발표 내용에 대해 예의주시해 왔다”면서 “북한이 실제 우라늄 농축을 했는지, 이를 무기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 그는 “북한의 발표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거듭 강조
-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거스르고 있고 한반도와 그 주변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 문제가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현재 러시아는 6자회담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형태로 간주하고 다른 관련국들과 함께 회담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

● 러 외무장관,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촉구(9/9, 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8일 “북한이 고립을 피하려면 즉각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재삼 촉구
- 라브로프 장관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대화를 하는 것만이 한반도 핵 문제에서 상호 수용할만한 해결책을 만들 것”이라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협상 재개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도 명시된 내용이다”고 강조,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고립과 위협 정책은 그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할 뿐”이라고 경고

마. 북·일 관계

● 北, 납치문제 새출발 해야(9/11, 교도통신)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대사는 11일 평양에서 교도통신과 회견을 갖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등을 담은 지난해 8월 중국 선양에서의 북일 실무자협의 합의 내용에 대해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힘.
- 통신은 그의 이런 발언은 일본의 차기 정권을 상대로 이들 문제를 의제로 하는 대화를 재개할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특히 송 대사는 납치문제에 대해 “사실상 모두 해결된 문제”라면서 “(북일) 쌍방이 해결했다, 안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해결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우선 납치 해결의 기준을 논의, 조정해야 한다고 밝힘.
- 송 대사는 “일본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주장을 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만약 새 정권 발족 이후 (일본 측으로부터) 접촉이 온다면 실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 그는 또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이 유효하다고 밝히고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라는) 과거를 청산하는 용단 아래, 관계 개선을 하려 한다면 우리도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송 대사는 북한이 결코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

조하면서 “한반도 핵 문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근저에 있다”며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재차 요구

● 日하토야마, 북일관계 개선 北대응에 달려(9/10, 교도통신)

- 일본의 차기 총리로 취임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새 정권 출범을 계기로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시한 것과 관련, “전적으로 북한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0일 보도
- 통신은 하토야마 대표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등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 하토야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미사일을 여러 번 발사했고 핵개발과 핵실험을 했으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도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관계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북한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
- 국민신당의 지미 쇼자부로(自見庄三?) 간사장도 “신정권을 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하면서도 “납치, 핵 문제 등의 해결은 국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압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
- 후쿠시마 미즈오(福島瑞恵) 사민당 당수는 “새 정권 내에서 철저하게 협의 해 나가겠다”고만 답변

● 日교도통신 사장 방북(9/8, 조선중앙통신)

- 이시가와 사토시 사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이 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그러나 교도통신의 방북 목적과 일정은 소개하지 않음.

**3** 대남정세

● 당국, 北황강댐 방류직전 만수위 확인(9/13, 연합)

-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기 직전까지 댐의 높이에 육박할 정도로 물이 팍 차 있었으며, 최근 7차례에 걸쳐 무단방류한

사실을 확인, 정부 고위 소식통은 13일 “정보 당국이 북한 황강댐의 방류 전후 위성사진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무단 방류 직전까지 댐이 만수위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댐이 만수위였던 것으로 미뤄 물을 빼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방류 이전 내린 비에 의해 황강댐으로 물이 자연적으로 유입됐거나 임진강 상류의 지류에 설치된 수십개의 보와 댐(언제) 가운데 일부가 터져 물이 황강댐으로 급속히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 지난 2월 완공된 황강댐은 전체길이 1천100여m 가운데 73%인 810여m가 중앙에는 점토를, 주변에는 자갈과 모래로 다지고 돌을 쌓아 만든 ‘사력(沙礫)댐’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 나머지 구간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음. 이 때문에 물이 차면 붕괴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수위가 높아질 때 긴급하게 수문을 열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정보 당국의 확인 결과 황강댐에는 균열이나 파손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은 “당국은 분명히 의도적인 방류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단순한 방류 필요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분석 중”이라며 “아직까지 ‘수공(水攻)’으로 불만한 징후는 없지만 남측에서 대비하기 어려운 취약 시간대에 대규모의 수량을 방류한 의도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수집해가며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
-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황강댐을 8월부터 지난 6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방류했으며 당시 방류로 인한 임진강의 수위는 40~50cm에 불과했던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은 전언

● 北,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5% 인상 제안(9/11, 연합)

-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9월 10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금년도 임금 인상률을 예년과 같은 수준인 5%로 하자는 합의안을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했다”고 언급
- 그는 “북측 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근로자의 기준 월 임금은 현재의 55.125 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된다”며 “인상된 임금은 올해 8월 1일(소급적용 예정)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 정부 고위당

국자는 “금명간 북측이 제시한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북측은 임금 5%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조속히 합의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

-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북측이 임금을 월 300달러로 올려달라는 요구와 토지임대료 5억 달러를 더 내라는 요구 등을 접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 우리측은 북측이 ‘임금 5% 인상안’을 제시했을 때 “그럼 300 달러 인상안은 철회한 것이냐”고 물었으나 북측은 “일단 5%인상으로 조정하자”는 정도의 답변만 했다는 것임. 특히 토지임대료 5억달러와 공단 노동환경 개선 등 그동안 문제 삼았던 다른 사항들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함.
-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300달러 인상 철회’를 공개 거론하지 않은 것은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열릴 당국 간 회담에서 합숙소와 탁아소 건설, 출퇴근 도로 증설 등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남겨둔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언

● **北신의주에 장염 유행, 의약품 긴급 지원(9/11, 연합)**

- 사단법인 민족사랑나눔(이사장 립인식 목사)은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에서 발생한 유행성 장염 및 설사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의약품 7천만원 어치를 긴급 수송했다고 밝힘. 민족사랑나눔 관계자는 11일 북한의 평안북도 인민위원회가 2주전쯤 이 단체에 유행성 장염과 설사병 치료 의약품의 긴급지원을 요청해왔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11일 새벽 선적된 컨테이너 한대 분량의 의약품이 내주 초 북한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언급

● **정부, 北에 추가설명·사과요구(9/8, 연합)**

- 정부는 8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의 무단방류로 인해 국민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북한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남북간 협의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논평은 전날 북측의 해명에 대해 “정부는 북측의 이런 통지는 우리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우리 측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힘.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논평에



서 ‘무단 방류’란 표현을 쓴 데 언급, “북측이 어제 관계기관 명의로 스스로 밝혀온 바에 따르면 자기들이 무단방류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설명

● 北, 임진강수위 높아져 긴급방류(9/7, 연합)

- 북한은 7일 북측의 사전 통보없는 임진강 댐 방류로 인해 경기도 연천군에서 우리 측 민간인 6명이 실종된 사태와 관련, 강 상류의 수위 상승 때문에 긴급 방류했다고 공식 해명
-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7일 오후 5시께 ‘관계기관’ 명의로 보내온 대남 통지문에서 “제기된 문제를 알아본 데 의하면 임진강 상류 북측 언제(둑)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해명, 북측은 이어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방지를 위해 앞으로 북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
- 북측의 이번 통지문은 7일 오전 정부가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보낸 대북 통지문에 대한 회신 성격임.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북측의 통지는 우리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측의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개성 남북경제협사무소 7일 재가동(9/7, 연합)

- 북측의 지난해 ‘12.1조치’로 폐쇄됐던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사무소(이하 경제협사무소)가 7일, 9개월여 만에 재가동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9월 3일 남과 북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사무소를 7일부터 정상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양측 사무소에 근무자 명단을 교환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우리측 경제협사무소 근무자들이 도라산 출입사무소(CIQ)를 거쳐 개성으로 출경했다”고 밝힘.
- 경제협사무소는 20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같은 해 10월 개소했으며 대북사업을 하는 남측 기업들의 대북 협의 창구 역할을 해왔음.

09.14-09.20

9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장 시찰(9/17, 조선중앙통신)

-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중인 다이빙귀(戴秉國) 외 교담당 국무위원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여부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자강도 희천발전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심야에 보도
- 김 위원장은 희천1호발전소 룡림 언제(댐) 건설장과 희천2호발전소 언제 건설장을 시찰했으며, 군인 건설자들의 공사 속도가 “선군정치의 기초인 혁명적 군인정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소개
- 통신은 김 위원장의 시찰 일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다이 국무위원의 김 위원장 면담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그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자강도 지역을 시찰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됨.
- 시찰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현철해, 리명수 대장을 비롯한 군 고위인물들과 박도춘 자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박남기, 장성택 당 부장들이 수행
- 김 위원장은 지난 3월에도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현지지도 했었음.

#### ● 김정일, 평북도 기업소 현지지도(9/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의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락원기계연합기업소를 잇달아 현지지도하고 기업소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둘러본 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계생산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굳건히 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소를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내미는 동시에 최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언급
- 이어 락원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해 산소분리기공장 등을 둘러보고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산소분리기를 제때에 생산보장하

기 위하여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기술에 기초한 기술개  
건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 시찰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등이 동행

● **김정일 꽤 건강, 통치력 건재(9/20, CNN방송)**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상당히 건강한  
상태며,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CNN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의 8월 방북 결과를 토대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언급
-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잦은 교류가 없기 때문에 (김 위원  
장의 건강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클린턴 전 대통  
령은 그(김 위원장)를 가까이에서 보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 오  
바마 대통령은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한 때  
사람들은 김 위원장이 (권좌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 의심의 여  
지가 없었지만, (지금) 김 위원장은 다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고 언급

● **김정일 관찰 결과 건강 상당히 양호(9/17, 조선일보)**

- 미국은 빌 클린턴(Clinton) 전 대통령의 8월 방북 때 동행했던 주치의(主治  
醫)의 면밀한 관찰을 토대로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 이상에서 회복 중이며  
현재는 안정상태’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는 그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로저 밴드(Band) 펜실베이니아대 의대 교수가 동행, 응급의학 전문의인 밴  
드 교수는 방북 전에 미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될 경  
우에 대비한 ‘교육’을 받았으며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에 필요한 김 위원장의 치아와 안색(顔色), 머리카락, 두피, 발음, 손발의  
움직임, 체중 등에 대해서 정밀하게 관찰할 것을 요청했었음.
-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한과 사전 접촉을 할 때 장거리 해외여행을 할 때  
면 반드시 의사를 동행시킨다고 주장했고, 북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고 함.

- 티머시 키팅(Keating)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1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이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 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 “미국에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가져왔다”고 언급하고 “김정일은 꼿꼿하게(upright) 서 있었다. 그는 클린턴 전 대통령과 말할 때 조리 있게 말했으며, 논리적 토론을 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
- 키팅 사령관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후계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

● 김정일 건강, 실제로는 악화(9/16, 열린북한통신)

- 2008년 8월 중순께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다가 재기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겉으로는 비교적 회복된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악화되고 있다”고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의 온라인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이 16일 주장
- 소식지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이 최근 방북 인사들을 만나고 건강이 좋아진 듯한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 “외부를 겨냥해 연출된 쇼일 뿐 김정일의 건강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
- 소식지는 우선 김 위원장의 뇌졸중에 대해선 “상태가 회복됐다고 한다”며 “지난 7월 이전 김정일은 주변에서 부축을 해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좋아졌다”고 주장, 그러나 “뇌졸중 후유증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올해 5월에 당뇨합병증으로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돼 신장 투석을 1주에 2~3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라고 소식지는 주장하고 “투석을 받기 직전에는 몸이 시들시들하고 투석을 받으면 다시 몸이 회복되는 상황”이라고 설명
- 소식지는 또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자 주치의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권고하고 있으나 (김 위원장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고 주장
- 소식지는 김 위원장이 “정신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잠깐 보면 괜찮아 보일 수는 있어도 뇌졸중을 앓은 이후 가벼운 우울증에 걸려 있다”며 술과 담배를 다시 시작한 것도 건강회복 때문이 아니라 “이런 우울증의 결과”이며 “중요한 정책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초

조한 모습을 보인다”고 전언, 특히 흡연의 경우 김 위원장은 금연했다가 지난해 8월 쓰러지기 1~2년 전부터 다시 흡연을 재개했던 것으로 알려짐.

- 소식지는 “고위간부들 사이에선 김정일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이 떠돈다”고 주장, 소식지는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아 강성대국이 된 뒤 그 유산을 후계자인 아들 김정운에게 물려주고” 싶어 “건강에 별 문제가 없음을 과시하기 위해 더욱 무리를 한다”면서 이로 인해 “실질적인 건강상태”는 더욱 안 좋아지고 있지만 “김정일의 사고판단 능력은 아직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한다”고 설명

● 김정일, 기억력 좋고 양손 자유로이 써(9/15, 요미우리신문)

- 작년에 발병한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왼손에 마비 증세가 남은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실제로는 양손을 자유롭게 쓴다는 증언이 나오음. 북한의 건국 61주년 기념 공연차 최근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면담한 러시아 음악가 파벨 오브산니코프(Ovsiyannikov)는 15일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기억과 말투가 확실했다. 양손을 자유로이 움직였고 담배도 피웠다”고 설명
- 김정일은 장신의 오브산니코프(약 2m)를 마주하고는 “대단히 크시군요”라며 웃는 낯으로 말을 건넸다고 함. 그리고는 무대에 선 북한 성악가들의 이름과 경력을 막힘없이 소개하더니 러시아 가곡 작곡가들의 이름까지 열거하는 등 기억력을 과시

나. 정치 관련

● 北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활(9/19, 연합)

- 북한당국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사령부’로 일컫는 내각에 대한 일부 개편작업을 단행, 최근 북한은 1998년 ‘김정일 1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내각 과학원(현 국가과학원)에 통폐합됐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다시 독립부처로 부활시킴.
- 북한은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내온다”고 결정하고 9월 18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정령 제 301호를 발표했다고 짚막하게 보도

● 北 '부총리 재정상' 임명(9/18, 조선중앙통신: 9/18, 연합뉴스)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8일 '정령'을 통해 김완수 재정상을 해임하고 박수길을 부총리 겸 재정상으로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북한 내각의 부총리는 본래 4명이었는데 이날 인사로 5명으로 늘어났음.
- 통신은 박수길 부총리 겸 재정상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나, 대외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주요인물 가운데 제10기부터 올해 새로 선출된 제12기까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내리 선출된 박수길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있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큼.
- 박수길 함북 인민위원장은 지난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연사지구 혁명전적지를 현지도 할 때와 9월초 함북 경성군과 명천군 경제시설을 시찰 때 그를 영접하는 등 올해 들어 활발한 활동을 벌임.
- 김완수 전 재정상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회의 당시 재정상에 유임되면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에 올랐었는데 통상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내각 기관장을 맡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임명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임.

● 김정일, 다자·양자 핵협상 하겠다(9/18, 신화통신: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8일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 또는 양자 회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북한은 비핵화의 목표를 계속 견지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그러나 김 위원장이 '6자회담'을 적시하지 않고 '다자대화'를 언급함에 따라 북한이 미·북 대화 이후 실제로 6자회담으로 복귀할지 여부가 주목됨.
- 김 위원장은 다이 위원에게 "북·중간 전통 우호 관계는 선배들이 물려준 귀중한 전통"이라면서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층 교류와 각 분야의 협력을 통해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언급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 위원장이 다이 위원을 만나 후 주석의 친서를 전달 받았으면서 양국 친선관계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대화했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 다이 위원장은 16일 평양에 도착해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하고 17 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났음.

● 조선신보, “화해협력 분위기에 찬물” 비난(9/1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9월 4일 중국 선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와 북측주간 접촉이 무산된 것은 남한 정부가 일부 참가자들의 북한주민 접촉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아 “사실상 접촉을 불허”한 때문이라며 이는 “고조되는 남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접견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시 특사조의방문단 파견을 통해 “북남관계에 전환의 돌파 구”를 열어줬고 “온 겨레는...북남관계 발전에 큰 기대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언급
- 신문은 한편 10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실천 해외동포대회’가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주최로 재일동포들과 미국, 중국, 유럽, 캐나다, 독립국가연합을 비롯한 해외동포 통일조직 대표 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고 소개

● 北사회단체들, ‘올해 총공격전 승리 결속’ 결의(9/17,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북한의 주요 사회단체들이 16일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어 ‘150일 전투’의 기세를 몰아 “올해의 총공격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
- 방송은 ‘결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조선신보가 지난 11 일 “(북한에선) ‘150일 전투’가 만풍년을 자랑하듯 여러 단위들에서 연일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100일 전투’ 에로 이어 나간다고 한다”고 전한 것으로 미뤄 ‘100일 전투’를 결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
- 조선직업총동맹은 16일 평안남도 천리마군에서 제63차 전원회의를 갖고 “강성대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제끼기 위한 ‘150일 전투’에서 발휘 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올해의 총공격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 쟁에서 직맹조직들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했고



여성 조직인 조선민주여성동맹도 같은 날 남포시에서 제55차 전원회의를 열어 같은 문제를 토의한 뒤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방송은 전언

- 노동신문은 17일 '장군님 따라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란 기사에서 "격동적인 낮과 밤들을 승리자가 돼 뒤돌아보는 역사의 시각이 왔다"며 "참으로 변이 나는 150일, 일이 터지는 150일, 희한하고 영광 넘친 150일이었다"고 '150일 전투'가 종료됐음을 시사하고 "강성대국 대문으로 단숨에 날아오를 새로운 발판, 든든한 도약대"를 마련했다고 자평, 그러나 신문은 '150일 전투'의 성과나 실적을 구체적인 수치로는 제시하지 않음.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는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다"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놀래우고 우리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는 격동적인 사변들"이라고 말했다고 전언

#### 다. 경제 관련

##### ● 北 최대의 평성시장 폐쇄(9/19, 월스트리트저널)

- 북한이 최대의 비공인 시장인 평성시장을 지난 6월 폐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인용해 19일 보도
- 신문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중국에서의 사업을 위해 북한을 떠난 사람으로부터 이번 주에 이를 확인했다면서 평성시장 폐쇄는 시장 활동의 확산을 늦추려는 북한 당국의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 신문은 북한 당국이 시장 단속을 2005년부터 시작해 2008년 더 강화했다면서 평성시장에서는 3만 개의 가게가 장사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음식과 의류, 중국산 상품들이 거래됐다고 소개
- 신문은 북한에서 개인들이 음식과 상품을 거래하는 비공인 시장들은 당국에 의해 용인돼 오다 2005년부터 단속이 시작됐지만, 당시 교역업자나 탈북자들이 대부분의 마을과 시에서 상당수의 시장이 열리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당국의 시도는 실패했었다고 전언, 신문은 6월 이후 평성에 2개의 작은 시장이 형성됐지만 많은 상인들은 집에서 물건을 거래하고 있다고 소개

- **노동신문, 강성대국 건설대전 속도전 이어가야(9/16, 노동신문; 조선신보)**
  - 노동신문은 16일 '장군님 따르면 승리가 온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종료된 돌격대식 증산운동인 '150일전투(4.20~9.16)'는 2012년 강성대국 대문을 열기 위한 "건설대전의 시범전투"였으며 "보람찬 100여일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해 연말까지 '100일 전투'를 개시할 것을 시사
  - 신문은 2012년 목표 달성을 위해선 "10년, 20년에 할 일을 1년에 해제끼며 내달려야 한다"며 "혁명은 한 전투로만 끝나지 않는다"거나 "최후에 승리할 때까지 계속공격 앞으로!"라고 언급
  - 조선신보는 김 위원장이 "150일로 갑시다"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도 "150일로 갑시다"라고 말했다고 김 위원장의 구호를 소개
  
- **김정일, 추수 총동원령(9/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모든 힘을 집중하여 올해 농사 결속을 잘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올해 알곡 생산의 성과 여부는 한해 농사를 결속하는(끝내는)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며 "전당, 전국, 전민이 가을걷이 전투에 총동원되어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을걷이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지시했다고 설명, 신문은 "강성대국의 대문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서부터 열어야 한다"며 모든 주민이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제철에 와딱딱 해 제깎으로써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기상을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고 촉구
  
- **김정일 '평양을 더욱 웅장화려하게'(9/15, 조선중앙방송; 9월호, 조국)**
  - 조선중앙방송은 최근 수년간 대대적인 평양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8월28일 발표한 '평양시를 현대적인 도시로 보수 개건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담화'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
  - 북한 내각 수도건설부의 김경모 국장은 이날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시 김 위원장이 "평양시의 면모를 일신시키자면 건물과 시설물들을 보수 개건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 봉사망들을 꾸리는 사업을 잘 하며 건물 장식도 품을 들여 손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은 또 건물과 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외장재 문제, 도로명 개칭 등

의 대책도 내놓았으며,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리려는 김 위원장의 구상에 따라 “지금 평양시에서는 타일붙이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김 국장은 설명

- 월간 ‘조국’ 9월호는 ‘평양 리모델링’과 관련, 북한 당국이 “2012년을 목표로 여러 개의 기본 거리들을 새로 형성”하고 “10만 세대의 살림집들을 건설”할 것이라고 보도

● 北, 전국 도시·마을 새단장(9/14, 조선신보)

- 북한이 ‘강성대국’ 달성의 해로 정한 오는 2012년을 목표로 우선 평양의 리모델링에 주력하고 그 “다음에는 몇해 안으로 전국의 도시와 마을이 모두 옷을 갈아입게 될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14일 북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
- 북한에서 “온 나라의 새 단장”에 핵심적 역할을 할 곳이 최근 1단계 공사가 끝나 타일 등 건자재 생산에 본격 나선 대동강타일공장(평남 천리마군), 신문은 이 공장이 현 생산수준으로도 “3년이면 평양의 새 단장이 가능”하고 2012년 2단계 공사가 끝나면 북한 전역의 다른 도시와 마을의 개진, 현대화에 필요한 건재를 생산할 이 공장은 장차 “마감건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이탈리아 수준의 고급 건재를 생산, “주변 나라들 뿐 아니라 세계적인 판도에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이 공장은 또 타일의 원료인 투희석은 함경남도 길주군 룡담리, 고령석은 량강도 은흥군 령하구, 규석은 평안북도 녕변군 옥향리에서 나오는 것을 사용하는 등 “원료와 연료를 국내의 원천에 의거하는 생산체계”를 갖춰 “대외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신문은 강조

● 남포시, 대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9/14, 조선신보)

- 북한 서해안의 항구도시인 평안남도 남포시가 대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5~6년 전부터 추진해온 도시 상수도망의 전면보수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조선신보가 14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남포시는 그동안 시내 용강군에 있는 태성호를 식수원으로 이용했으나 “최근 태성호의 물을 이용하는 지역, 단위들이 늘어나면서 남

포시의 음료수로 이용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어 식수원 공급체계 개선 계획을 세웠음.

- 신문은 “시내에서 제일 높은 지대에 수원지를 설치하고 5대의 양수기로 대동강의 물을 퍼올린 다음 정화소독 단계를 거쳐 자연압력으로 시 안의 모든 주민 세대들에 24시간 음료를 공급”한다고 설명

● 北 평양국제상품전람회 21-24일 개최(9/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대 규모의 무역박람회 격인 제5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의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
- 전람회에는 북한과 중국,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홍콩, 대만 등의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 행사에는 공작기계, 전기 및 전자 설비, 운전기재(운수기재),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 등이 출품

● 北 김정운 주도 경제재건축 연장(9/14, 마이니치 신문)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김정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재건축 캠페인인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를 시작한다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베이징 발로 14일 보도,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 정세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생산성 제고를 위해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일 전투’를 벌인다고 보도
- 북한은 ‘150일 전투’ 과정에서 석탄의 채탄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북한이 생산하는 맥주의 상업광고방송, 상점의 서비스 향상 등 경제활동에 변화가 포착되고 있음.

라. 군사 관련

● 北경비정, 지난주 수차례 NLL 침범(9/19, 연합)

- 북한 경비정이 지난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차례 침범했던 것으로 알려짐. 군의 한 소식통은 18일 “북한 경비정이 지난주 NLL 1마일가량을 여러 번 침범한 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는 NLL 부근에서 조업하는 북

한 어선들이 NLL을 넘어 내려오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 이 소식통은 이어 “이번 주는 북측 경비정이 NLL을 넘지 않고 북한 해역에서 어선들의 동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언

- 북한 어선들은 이달 초부터 연평도 NLL 해상에서 100~300여 척씩 선단을 이뤄 조업하고 있으며 이 중 수십 척이 NLL을 반복해 넘나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소식통은 “(우리)해군 고속정이 NLL을 월선하는 북한 어선을 향해 경고방송을 하면서 퇴치하고 있다”고 소개

## 마. 사회·문화 관련

### ● 평양과기대 준공식 개최(9/16, 조선중앙통신)

- 평양과학기술대학의 1단계 건물 준공식이 16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북측에서 전극만 교육성 부상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진경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성원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하고 김진경 총장을 이 대학 ‘공동운영총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이 김 총장에게 전달됐다고 소개
- 평양시 락랑구역에 자리잡은 이 대학은 남측의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 교육성간 설립 합의에 따라 지난 2002년 중반 착공식을 가진 뒤 2003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 100만㎡의 대지 위에 본부동, 학사동, 종합생활관, 기숙사, R&D센터 등 총 17개동 연건평 약 8만㎡의 건물들을 완공

### ● 북한에 7월 8일 출생자 없는 이유는(9/16, 중국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환구망(環球網))

- 최근 평양을 다녀온 중국 관광객이, 그 이유가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냈다고 중국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환구망(環球網)이 16일 보도
- 이 관광객은 북한 안내원의 말을 인용 “7월 8일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날로, 북한 사람들이 가장 비통해 하는 날”이라며 “이런 연유로 김 주석이 사망하자 7월 8일 출생자들이 모두 7월 18일이나 7월 28일로 출생일을 바꿨다”고 소개, 북한 안내원은 “위대한 김 주석께서 사망한 날을 생일로 삼아

즐거워할 수 없다며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이뤄진 일이 아님을 애써 강조

- 1994년 김 주석이 사망한 뒤 7월 8일생인 북한의 주민들이 애도의 뜻으로 스스로 생일을 바꾸고 그 이듬해부터는 7월 8일 태어난 자녀는 아예 출생일을 바꿔 호적에 올림.

● 김일성대, ‘언어학종합전자사전’ 개발(9/3, 교육신문)

- 김일성종합대학이 올해 ‘150일 전투’ 기간에 올림말(등재 어휘)이 15만개에 달하는 ‘언어학종합전자사전’을 개발했다고 북한의 교육신문이 9월 3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김일성대 문학대학 언어학강좌 교수와 학생들은 “‘150일 전투’가 시작되어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이 전자사전을 개발했다고 소개, 전자사전에는 ‘언어학 전문용어 사전’, ‘비슷한 말 사전’, ‘유래 사전’, ‘성구속담 사전’, ‘연관어 사전’, ‘언어학 영조-조영 사전’, ‘방언 사전’, ‘빈도수 사전’ 등이 들어 있다고 신문은 설명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美, 김정일 발언 6자회담 연결돼야(9/21, 조선일보)

- 미 국무부의 커트 캠벨(Campbell) 동아태 차관보는 19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캠벨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 틀로 복귀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다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는지 지켜볼 준비가 돼 있다는 말로 6자회담 복귀를 촉구
- 이에 앞서 캠벨 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다자 대화 의사도 있다”고 밝히자, 이를 6자회담 복귀의 긍정적 신호로 분석했었음 “그는 “북한이 우리가 요청해 왔던 조건들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뜻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北박길연, 유엔총회 향발(9/19, 조선중앙통신)

-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 제64차 회의(9.20-25)에 참가하기 위해 1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 통신은 박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의 향발 소식을 한 줄로만 짧게 보도

● 북미대화, 유엔총회 뒤 결정(9/18, 연합)

-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7일 정레브리핑에서 북미 양자 대화 여부와 관련, “역내 파트너들과 협의를 계속한 뒤 매우 가까운 장래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 크롤리 차관보는 “유엔 총회기간에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관심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개별적인 대화를 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면서 “유엔 총회를 끝내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 그는 “우리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양자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혀 왔다”면서 “아직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언,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일본의 새 정부가 북미 직접대화에 반대할 수 있다는 지적에 “우리는 대북 전략과 관련해 정말 폭넓은 의견일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

● 美, 6자 밖에서는 北과 어떤 실질대화도 안해(9/14, 연합)

- 미국은 14일 6자회담 틀 밖에서 이뤄지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실질적인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만간 이뤄질 북미 양자대화의 목적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설득에 국한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힘.
-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우리는 6자회담 맥락 밖에서는 북한과 어떤 실질적 양자대화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줄곧 밝혀 왔다”면서 “우리의 목적은 북한을 6자회담과 그 맥락으로 복귀시키는데 있다”고 밝힘.

나. 북·미 관계

● 美여행사, 호화관 북한관광상품 출시 계획(9/18, 미국의소리방송)

-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호화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리모트

랜즈' 여행사가 최초의 호화 북한관광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18일 보도, 이를 위해 이 여행사의 캐서린 힐드 대표는 2주 전 북한을 직접 방문, 평양과 비무장지대, 묘향산 등을 둘러봤다며 “북한은 여행하기에 매우 흥미있는 나라였으며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다”고 VOA와 인터뷰에서 밝힘.

- 그는 이 관광상품 계획이 초기단계여서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관광객들이 개인 제트기로 중국 베이징까지 가서 최고급 호텔에서 하루 묵은 뒤 다시 개인 제트기나 상업용 항공기 편으로 평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소개, 이 회사는 이러한 맞춤형 북한관광 경비로 1인당 하루 최소 1천달러를 잡고 있다고 밝힘. 힐드 대표는 이 관광상품 준비를 위해 북한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북한 당국의 승인 여부는 밝히지 않음.

● 北, 美에 평양과기대 기자재 허용 요청(9/18,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 당국이 미국 상무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대한 컴퓨터 등 첨단 교육기자재의 반출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김진경 평양과기대 총장이 밝힘
- 북한 당국은 미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특히 평양과기대가 반입하려는 기자재에 대한 미국측의 검색도 받아들일 것이며, “그들(미국)이 원하면 언제든 (북한에서) 되가져 나갈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안다고 김 총장은 부연
- 김 총장은 평양과기대는 “국제대학으로 대학 특구처럼 돼 있다”며 “마치 외교 공관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컴퓨터 등을 공관에 가지고 들어가듯 우리도 실습 기자재 등을 북측에 기증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모든 법적 소유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강조
- 미국 국무부는 이 학교 준공식과 관련해 지난 7월 김 총장에게 보낸 국무부 관계자 명의의 축하 메시지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미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北, 美에 전방위 외교 공세(9/16, 연합)

- 북한의 대미 외교공세가 오바마 행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의회와 민간 등 전



방위로 확대, 북한은 8월 초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초청해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도 북미 정부간 양자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임. 이런 가운데 북한은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에게도 적절한 시점에 방북해 달라는 공식 초청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당국은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간단체와 주요 인사들의 방북도 대거 받아들이는 등 민간분야와 접촉 및 교류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소식통을 인용, “최근 북한이 단체인지 개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25건에 달하는 미국인의 방북을 허용했으며 이에 대한 비자 발급도 승인했다”고 전언

#### 다. 북·중 관계

##### ● 김영춘, 中장성 면담(9/19, 평양방송)

-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 차수가 19일 첸리화(錢利華) 중국 국방부 외사관공실 주임을 만났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방송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이날 “국방부 외사관공실 주임인 첸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해방군 외사일꾼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전했으나 대화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이 자리에는 북한군 장성·장교들과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대사와 육군 무관이 배석했다고 방송은 덧붙임.
- 9월 17일 방북한 첸 주임 등 대표단은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6.25기념관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판문점, 북·중 친선탑인 ‘우의탑’ 등을 참관하고 집단체조 ‘아리랑’도 관람
- 첸 주임은 미국, 한국, 일본 등과도 군사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짐.

##### ● 김정일, 中후진타오 친서 접수(9/18,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8일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후 주석의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김 위원장은 또 다이 국무위원과 “두 나라 친선관계를 변함없이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서로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했다고 방송은 소개, 이 면담에는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
- 다이 국무위원은 이날 면담 후 비행기로 귀국했다고 18일 오후 4시경 조선 중앙통신이 보도, 다이 국무위원은 16일 평양에 도착,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하고 17일엔 북중 ‘혈맹’ 관계를 상징하는 우의탑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한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

● 北, 중국요리 배우자, 中에 100명 파견(9/18,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

- 북·중 우의(友誼)의 해를 맞아 북한이 최근 중국에 요리사들을 대거 파견, 중국 요리 배우기에 나섰다. 40명의 북한 요리사가 8월 28일 광저우(廣州) 신동광(新東方)요리학교에 도착, 광둥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중국의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가 18일 보도, 이들은 북한의 1, 2급 호텔에서 근무하는 요리사들로 1년간 체계적으로 광둥요리를 배우게 됨.
- 이들 외에도 각각 30명으로 구성된 북한 요리사들이 베이징과 양저우(楊州)로 파견돼 중국 요리를 익히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
- 신동광학교 관계자는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늘면서 중국 음식 수요가 늘었으나 북한에는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요리사가 많지 않다”며 “북한 국가요리협회의 중국 요리사 양성 계획에 따라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 다이빙귀, 김영남과 北·中관계 논의(9/18, 신화통신)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중인 다이빙귀(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7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8일 보도
- 김영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에 대해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하면서 중국의 건국 60주년을 축하했다고 통신은 보도, 그는 “양국의 우호 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다”면서 “북한은 중국과 함께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회담이 끝난 뒤 다이 위원은 김영남 위원장과 함께 평양대극장에서 가극 '홍루몽'을 관람

● 中다이빙귀 방북, 北최태복 방중(9/16, 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의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9월 14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16일 보도
- 다이빙귀 국무위원은 북한을 방문한 이후 몽골과 태국을 차례로 순방할 예정이라고 RFA는 보도, RFA는 또 같은 소식통을 인용해 15일엔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중국을 방문했다며 그의 방중은 북한의 제2차 핵 실험으로 중국과 북한간 의회 교류가 취소된 이후 관계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
- 그러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최태복 의장이 15일 방북한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을 위해 만수대의사당에서 연회를 마련하고 연설했다고 16일 오전에 일제히 보도한 것으로 미뤄, 최 의장은 15일까지는 북한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

● 北-中, 의학과학 협조계획서 조인(9/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보건성과 중국 위생부가 14일 베이징에서 올해부터 2011년까지 이뤄질 양국 간 ‘보건 및 의학과학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집행계획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최창식 보건상과 주중 북한대사가, 중국 측에서 장모 위생부 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언

라. 북·일 관계

● 北, 日 하토야마 내각 출범 보도(9/18, 조선중앙통신)

- 일본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가 총리로 선출돼 16일 하토야마 내각이 정식 발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뒤늦게 보도, 통신은 하토야마 총리가 16일 특별국회에서 진행된 총리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표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전하고, “이보다 앞서 아소 내각이 총사직하였다”고 밝힘. 그러나 통신은 하토야마 정권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음.

● 北방송, 日 새 정부에 '先 과거청산' 요구(9/17,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7일 '과거 청산이 없는 관계 개선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방송물에서 북한과 일본의 '평양선언' 서명 7주년을 맞아 "과거 청산이 없는 조(북)·일 사이의 신뢰와 관계 개선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새로 출범한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에 철저한 과거 청산과 배상을 요구

마. 기타 외교 관계

● 당대표단, 카자흐스탄 향발(9/19, 조선중앙방송)

- 김태중 국제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아시아 정당들의 국제회의 제5차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1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대표단은 베트남과 라오스도 방문한다고 방송은 소개

● 北노동당-라오스인혁당 회담 개최(9/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라오스 인민혁명당이 16일 평양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날 회담에는 북측에서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라오스 측에서는 방북 중인 아상 라오리 인민혁명당 정치국 위원이 참석, 북한은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한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을 위해 연회를 개최

● 北, 쿠바 서열 3위 사망 애도표시(9/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노동당 국제부는 16일 쿠바 혁명 1세대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후안 알메이다 보스케 국가평의회 부의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시하면서 평양 주재 쿠바 대사관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
- 북한 인민무력부와 외무성, 무역성,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북한-쿠바단결위원회 등도 주북 쿠바 대사관에 조화를 보냈음.
- 대사관에서 열린 헌화행사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리룡남 무역상, 김용진 교육상,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대리, 김태중 당 국제부 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

### 3 대남정세

- **北, 김의장 ‘임진강사태 서한’ 이례적 접수(9/17, 연합)**
  - 북한이 17일 임진강 수해사태와 관련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서한을 이례적으로 접수했다고 국회 대변인실이 밝힘. 대변인실은 “임진강 사태와 관련해 김 의장이 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북한 당국이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공식 접수했다”고 설명
  - 김 의장은 앞서 지난 15일 북측에 보낸 서한에서 임진강 수해사건에 대한 북한 측의 진상 공개,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간 대화,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북한 현장방문 등을 요구, 북한이 우리 국회의장의 서한을 접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북한은 그간 한국에서 보낸 서한 중 유감이나 항의의 내용을 담은 서한은 대부분 접수 자체를 거부해 왔음.
  
- **남북, 이산상봉 대상자 명단 교환(9/17, 연합)**
  - 남북은 17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 참가가 확정된 대상자 각 100명의 명단을 교환, 남북 적십자사는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상봉 행사에 참가할 최종 명단을 주고 받았음.
  - 이번 상봉 행사는 26~28일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금강산에 가서 북측 가족 약 200명과 만나고 이어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이 역시 금강산에서 남측 가족 약 450명과 만나는 방식으로 치러짐.
  
- **정부, 추석 이산상봉에 13억여원 지원(9/16, 연합)**
  - 정부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상봉에 13억1천593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음.
  - 정부는 최근 제2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드는 경비(행사준비비, 국내집결지 숙식비, 이동경비, 체재비, 상봉행사비, 가족공동식사비 등) 지원을 위해 13억1천593만원 이내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16일 밝힘.

- 정부는 또 이산가족 상봉 때 방북하는 상봉 대상자에게 경비로 1인당 10만원씩 받던 것을 면제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던 상봉 준비비는 변함없이 제공하기로 했음.

● **경기도의료원, 개성공단 근로자 건강 양호(9/16, 연합뉴스)**

- 경기도립의료원 산하 파주병원은 9월 8~10일 개성공단에서 남측 근로자 1천29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활동을 벌인 결과, 모두 건강이 양호했다고 16일 밝혔.
- 김현승 파주병원장을 단장으로 일반외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8명으로 구성된 무료진료단은 이번 진료활동기간에 모두 202건의 일반 진료와 5건의 말라리아 검사를 했음. 도립의료원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의료단을 개성공단에 파견, 남측 근로자는 물론 북측 근로자와 주민 등 모두 38만명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
- 도립의료원은 개성공단에 분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언

● **北, 오늘부터 개성기업 실태점검(9/16, 연합뉴스)**

- 북한이 16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방문,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단 감독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5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16일부터 입주기업들을 방문, 실태를 조사하고 민원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통보
- 북측은 앞서 2006년에도 전 입주기업을 돌며 실태점검을 한 적이 있다고 통일부는 전언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9.21-09.27

9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北 후계구도 시사하는 선전벽보 확인(9/24, MBC)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삼남 이름이 ‘김정운’이 아니라 ‘김정은’이며, 후계작업이 진행됐음을 시사하는 북한 내 선전벽보가 확인됨.
  - 24일 MBC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대만의 한 사진작가가 원산 인근에서 촬영한 선전벽보 화면을 보도했다. 벽보에는 ‘만경대 혈통, 백두의 혈통을 이은 청년대장 김정운’이란 문구가 쓰여 있음. 또 후계 구도와 관련된 노래로 알려진 ‘발걸음’이라는 곡의 가사 전문도 실려 있음.
  -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이와 관련, “(김 위원장 삼남 이름이) ‘김정은’이라는 첩보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며 “다만 북한이 확인해주는 사항도 아니고 ‘김정운’인지 ‘김정은’인지 중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발표하지 않았다”고 한나라당 정보위원인 정진섭 의원이 전언
  
- 김정숙 최대업적은 김정일 출산(9/22,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의 60주기(9.22)를 맞아 북한 매체들은 22일 그가 김 위원장을 출산한 게 “대경사”이자 “최대의 업적”이라고 선전하는 등 김정숙 찬양 글들을 잇달아 게재
  -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빛나는 생애’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김정일 출산을 우회적으로 언급, “백두광명성을 높이 받들어 올리신 것은 우리 겨레의 휘황한 앞날이 기약된 대경사”이자 “위대한 계승의 새 시대가 뿌리내린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주장, 이어 김정숙이 “조국과 혁명의 미래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결출한 영도자를 받들어 올리시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민족의 대행운을 마련”해 줬다고 선전
  - 노동신문도 ‘삼일포에 단풍이 불탄다’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이 땅에는 어머님을 한 번도 뵈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자라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강성대국 건설의 주인공들로 성장하고 있다”며 ‘혁명 전통의 계승’을 부각시킴.

- 신문은 또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혁명업적은 선군조선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
- 이어 김정숙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것은 "조국과 혁명,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최대의 업적"이라고 신문은 선전

## 나. 정치 관련

### ● 민주조선, 사회주의 붕괴되면 간부는 실업자(9/27,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7일 '새 사회 건설에서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목의 글에서 과거 사회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간부들이 실업자로 전락했다면서 체제 전환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기득권 세력인 간부와 핵심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켰음.
- 신문은 "계급적 원수들에 대하여 환상을 품고 반체제급투쟁을 약화시키거나 포기하게 되면 어떤 엄청난 후과가 초래되는가 하는 것은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의 비극적 운명이 잘 보여주고 있다"며 사회주의가 붕괴되면 기득권 세력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는 점을 강조

### ● 北, 국가과학원장에 장철 임명(9/26, 노동신문)

- 북한은 최근 변영립 국가과학원 원장을 해임하고 후임에 장철을 임명한 것으로 26일 확인됨.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26일 "150일 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된 데 대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최근 보도문에 대한 각계의 반향을 소개하면서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이 쓴 글을 게재, 북한은 지난 4월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당시 변 원장을 유임시켰었음.

### ● 金 국방 北核 선제타격 가능 발언 비난(9/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용납될 수 없는 도발적 폭언'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

평에서 최근 취임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극히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

- 신문은 이어 남북관계 개선문제는 “민족적 중대사로서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절박한 과제”라고 지적한 후 김 장관의 발언은 “남조선 집권층 내부에 아직도 북남대결 관념이 뿌리깊게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그를 “대결론자”라고 비난

● 북한, 올 4월, 11년만에 헌법 개정(9/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 만에 개정한 헌법에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그 대신 ‘선군(先軍)사상’을 명기한 것으로 밝혀짐.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가 한국이나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유사하면서도 더 강력한 기능을 갖도록 한 것으로 드러남.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일본에 있는 대북 소식통을 통해 최근 개정된 북한 헌법을 소개, 개정된 북한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 강화’, 이 소식통은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주체(主體)사상’과 ‘선군사상’을 짝을 이뤄 사용한 문구가 들어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동일시한 것”이라고 주장
- 1998년 9월에 개정된 북한 헌법에는 ‘사회주의’라는 단어와 함께 ‘공산주의’가 세 번 가량 언급됐었음. 하지만 4월의 헌법 개정에선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
- 또한 이번 헌법 개정에선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한 6개 조항을 신설하면서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규정해 ‘영구 주석’으로 남아 있는 김일성의 위상과 격을 맞췄다”고 이 소식통은 전언. 이는 “국방위원장이 중요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사면권을 행사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고 소식통은 소개
- 이 소식통은 또 “개정 헌법에서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사업 전반을 지도하고,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입안하도록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설명. 기존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는 국방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만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도 사실상 국방위원회가 국가사업을 모두 관장했기 때문에 현실과 법 간의 괴리가 있었음.

● 北, 식료일용공업상에 정연과 임명(9/23,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지난 7월 장관급 내각 기관으로 신설한 식료일용공업성의 상(장관)에 정연과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됨. 조선중앙방송은 23일 평안북도 신의주화장품공장 창립 60돌 기념보고회에 김평해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정연과 식료일용공업상이 참석했다고 24일 보도
- 정 식료일용공업상은 2004년 6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인솔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그밖의 이력은 알려지지 않음.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7월 22일 '정령'을 통해 식료일용공업성을 신설한다고 발표하였음.

● 노동신문, '100일 전투' 독려(9/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승리의 북소리 높이 총공격전에 박차를 가하여 올해 대고조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100일 전투'가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전변의 해로 빛 내이기 위한 최후 돌격전이며 당 창건 65돌이 되는 다음 해에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고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들어설 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한 공격전"이라고 강조
- 신문은 이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150일 전투'에서 거둔 성과를 계속 확대하면서 새로운 '100일 전투' 기록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며 2012년까지 "점령해야 할 목표는 비상히 높고 주어진 기간은 짧지만 우리는 이 기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껴야 하며 그러자면 혁명적 대고조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려나가야 한다"고 독려

● 北노동당 '연말까지 100일 전투' 공식 발표(9/21,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21일 대중동원형 경제증산 운동인 '150일 전투'의 마감과 연말까지 새로운 '100일 전투'의 진행을 공식 발표
- 노동당 중앙위는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매체를 통해 발표한 '보도문'에서 "지난 4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된 '150일 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됐다"며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며 투쟁기풍"인 만큼 "오늘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을 '100일 전투'에 부르고 있다"고 설명, 노동당은 '150일 전투' 시작 때는

이러한 보도문을 내지 않았음.

- 이날 노동당은 '100일 전투'의 시작과 종료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150일 전투'에 이어 곧바로 시작했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한군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인 12월 24일이 99일째가 되며, 그가 지난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주창했던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방문한 12월 25일이 100일째가 된다고 설명

#### 다. 경제 관련

##### ● 김정일, 자립적 경제부흥 강조(9/26, 조선신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이래 "현지지도 강행군"을 통해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기초한 부흥의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생활수준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6일 주장
- 신문은 <현지지도 강행군의 진실> 중편 '경제부흥의 지름길 제시'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는 북한이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의 경제난 시기에 추진했던 "경제의 주체화"의 "결실을 가꾸는 노정"이라며 이같이 언급
- 신문은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렸다는 판단의 1차적인 기준은 인민들의 생활 실감"이라며 "그 무슨 경제지표를 자랑하고 정치 술어를 나열하여도 인민들이 잘살게 됐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면서 "현지지도 강행군의 현장에서 거둬 강조되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

##### ● 北, 스위스회사 통해 마그네샤 유럽 수출(9/25,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의 대표적 광물인 마그네사이트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광산개발 회사인 '퀸테르미나'를 통해 야금공업에 필요한 내화물(耐火物)의 재료인 마그네샤 형태로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
- '퀸테르미나'는 현재 북한에서 '조선마그네샤크링카산업그룹' 및 '승리경소마그네샤공장'과 사업계약을 맺어 다양한 형태의 마그네샤를 생산하고 있다고 VOA에 밝힘.
- 이 회사의 아벨 코플레 이사는 "주로 영국과 독일, 동유럽 국가의 내화물

제조업체들이 고객"이라며 "최근에는 독일이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에서 마그네샤 생산량을 늘려 경소(輕燒) 마그네샤(마그네사이트를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구워 만든 가루 모양의 산화마그네슘)는 연간 10만t, 중소 마그네샤는 4만~5만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

● **조선신보, 北, 2012년까지 경제 집중전 상정(9/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5일 북한이 '150일 전투'에 이어 바로 '100일 전투'를 시작한 것에 대해 "외국의 일부 언론들은 조선(북)의 전력노선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선행한 전투가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150일 전투'의 성과를 나열
- 신문은 '충천한 기세로 100일 전투 전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150일 전투'와 같은 총동원전, 총집중전이 경제적인 비약의 계기점으로 될 수 있다"면서 애당초 북한은 "2012년까지의 집중전을 상정하고 있다"고 강조,
- 신문은 150일 전투 기간에 "천리마제강을 비롯한 금속공업 부문에서 생산이 크게 장성한 것이 경제활성화의 큰 요인"이라며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150일 전투가 끝난 9월 중순에 이미 "지난해에 비해 강철은 5.7배, 압연강재는 4.4배, 주체철은 3.8배로 생산"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수치를 밝히지 않음. 천리마제강은 또 2012년까지의 주체철의 생산능력은 올해의 3배, 생산량은 올해의 3.5배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고 신문은 주장

● **北무역은행, 각국 은행과 거래 확대(9/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조선무역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의 은행과 거래관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전언
- 통신은 "무역은행은 나라의 국제적 권위와 경제적 위력이 비상히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은행의 업무능력과 대외적 신용을 더욱 높이고 국제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자주성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세계 여러 나라 은행들과의 거래관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주장, 또 "무역은행이 지난기간 세계 여러 나라 은행들과 거래관계를 확대하고 대외결제를 원만히 보장해 무역을 비롯한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

- 무역은행은 이날 평양에서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를 가졌으며 행사에는 방북한 러시아, 모잠비크, 몽골, 인도, 태국, 프랑스, 말레이시아의 은행 및 회사대표단이 참석

● FAO, 北, 식량 180만t 부족(9/24, 자유아시아방송)

- 올해 북한의 쌀과 옥수수 생산량이 예년보다 감소해 북한이 앞으로 170만-180만t의 식량을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
- 북한의 올해 예상 쌀 수확량은 240만-260만t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낮아질 수 있으며, 옥수수 수확량도 130만-200만t 사이로 예년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FAO는 분석
- 최근 방북했던 김순권 국제옥수수재단 이사장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올해 옥수수 수확량이 평년의 250만t에 비해 무려 100만t 이상 줄어 들 것으로 예상,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
- FAO의 키산 군장 식량안보 분석관은 “올해 북한에 비도 적당히 오고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는 등 농사짓기에 좋은 날씨를 보였지만 비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고 농기계가 낙후해 생산량은 좋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

● 北채권가 두달 새 약 30% 상승(9/23,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의 가격이 최근 두달 사이에 약 30%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북한 채권의 거래를 대행하는 영국 금융 중개회사인 이그조틱사의 스튜어트 킬버하우스 수석경제분석가는 “현재 북한 채권의 가격이 달러당 9센트로 7월보다 2센트(28.6%) 올랐다”며 “지난 4월 6센트의 최저가로 바닥을 친 이후 계속되는 상승세”라고 설명, 그는 북한 채권가 상승은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에 가해진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우려가 다소 사라진 점이 이유인 것 같다”고 분석
- 서방 은행들은 북한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1994년부터 채권을 발행해 왔으며 북한이 이들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은 약 16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RFA는 소개

● 유럽기업방북단, 투자 모색 방북(9/22, 미국의소리방송)

- 네덜란드 현지 정보기술(IT)과 섬유관련 기업 관계자 10여명으로 구성된 유럽기업단이 대북 투자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2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
- 이번 방북은 네덜란드의 정보기술(IT) 컨설팅회사인 GPI컨설팅사와 북한 상업회의소가 주관하며, 기업방북단은 26일까지 5일간 머물면서 IT와 섬유 등의 분야에서 사업협력 정보를 얻고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단장인 폴 치아 GPI컨설팅사 대표가 설명
- 방북단은 IT와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만화, 컴퓨터 게임, 모바일 게임,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관련 분야에서 북한 업체들과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평양과 근교에 있는 농업, 섬유, 의류 업체의 본사와 공장도 둘러보면서 협력 및 무역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
- 이들은 23일엔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5회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를 참관한 뒤 북한 최대의 IT 연구개발기관인 조선컴퓨터센터를 방문하는 데 이어 24일 김책공대와 정보처리업체 '다코르'를, 25일엔 IT 합영회사 '노소텍'과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를 각각 방문할 예정
- GPI컨설팅사 주도로 네덜란드와 다른 유럽 국가의 기업이 포함된 유럽기업방북단은 지난해 9월 처음 방북했었음. 폴 치아 대표는 "이전에 방북했던 유럽 기업가운데 일부는 북한에서 IT와 BPO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북한과 IT관련 개발용역 사업에 착수했다"며 "네덜란드의 일부 컴퓨터 게임업체들은 IT개발의 일부분을 북한의 소프트웨어 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다"고 설명

● 北, 2012년까지 전역에 대형정수설비 도입(9/17, 노동신문)

- 북한의 국가과학원은 북한 전역의 도, 시, 군들에 '대형 물소독수 제조설비'들을 오는 2012년까지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17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국가과학원은 평양시에 대형 물소독수 제조설비들을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목표를 세웠음.



## 라. 사회·문화 관련

### ● 北, 김책공대에 '컴망' 이용 원격대학 설립(9/25, 조선신보)

- 북한이 올해 중 컴퓨터망을 이용해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도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원격대학을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창설, 본격 운영한다고 조선신보가 25일 보도, 원격대학은 기존의 통신대학, 공장대학, 텔레비전방송대학, 야간대학, 재교육학교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한 형태로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들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다고 신문은 설명
- 신문에 따르면 이 원격대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6년 1월 김책공대에 새로 설립된 전자도서관을 현지도하면서 이 도서관이 진행하는 원격교육을 보고 “이상사회의 면모가 반영된 교육”이라며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한 데 따라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 김책공대에는 원격교육센터가 만들어져 이미 이 대학의 통신생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원격통신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원격대학 강의는 김책공대의 전자도서관에 있는 원격강의실과 원격교육센터에 있는 3개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강의 내용은 실시간망, 비실시간망으로 지방의 학생들에게 제공”된다고 신문은 설명

### ● 北사회에도 노래방 문화 넘실(9/25, 조선신보)

- 북한의 음향기기 전문회사인 ‘메아리음향사’가 2008년 마이크식 화면반주기를 생산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의 오락회 양상이 “기타나 손품금의 반주에 맞춰” 노래하던 것에서 ‘가라오케(노래방)’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조선신보는 25일 ‘언제 어디서나 노래자랑, 마이크식 화면반주기 대중적 보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회사가 ‘수많은 인민군 부대들’에 이 반주기를 보내줬고, 기관, 기업소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개별적으로 구입에 나서는 바람에 “주문량에 생산이 못따라 갈 정도”라고 소개, 이 회사는 올해 2천대를 팔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이 곧 연간 생산능력이어서 시설을 증설, 내년엔 3천대를 생산할 계획이라는 것.

● 北클래식 대중화 선봉 삼지연악단(9/25, 조선신보)

- 북한 만수대예술단 소속 삼지연악단이 클래식 음악 대중화의 선봉에 나섰다. 이 악단의 연주자와 독창가 50여명은 평균 나이 20대 초반에 “모두가 멋쟁이, 뽀뽀한 젊은이들”로 구성됐으며, “어제날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대담하고 혁신적인 안목으로 새롭게 창조된 음악”으로 1990년대 북한 주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보천보전자악단이나 왕재산경음악단의 공연 인기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5일 소개
-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이 악단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여성 악장이 지휘도 하고, 연주 도중에 단원들이 악기를 놓고 손뼉을 치며 청중의 박수를 유도하는 등 파격적인 연주 형식으로 대중과 호흡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둔.
- 조선신보는 북한의 음악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삼지연 악단의 특징은 “음악의 고상한 것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관중이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통속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데 있다”고 설명

● 평양서 고조선시대 석기 제작터 발굴(9/24, 조선신보)

-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최근 평양시 삼석구역 표대유적에서 신석기 시대 유물구덩이 2개와 승호구역 리천리 유적에서 고조선 시대 석기도구 제작장으로 추정되는 집터를 각각 발굴했다고 조선신보가 24일 보도

● 北주민들에게 인민군은 ‘공포의 공산군’(9월호, 임진강)

- 북한에서 ‘공산군’이라는 표현은 원래 “미국이나 남조선과 같은 적국의 군인들이 조선인민군을 가리킬 때 쓴 공포의 호칭”이라고 설명됐었음. 그러나 ‘인민의 군대’였던 북한 군인들이 “심각한 물자와 식량공급 부족에 몰리던 끝에 무서운 강도로 변신”하는 등으로 인해 인민군이 ‘적들의 적’에서 ‘인민의 적’으로 변하고 말아 언제부터인가 주민들이 북한군을 ‘인민군’ 대신 ‘공산군’으로 부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자타가 부르는 인민군의 이름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고 임진강 소식지가 주장

##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 ● 안보리, 北·이란 겨냥 '핵물질 회수 결의문' 채택(9/25, 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정상들은 24일 민간 핵기술을 제공받은 뒤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한 국가에 대해 핵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결의문 1887'을 만장일치로 채택
-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유엔 안보리 핵 정상회의는 결의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물질과 장비를 제공한 국가가 만약 수혜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NPT를 탈퇴하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 이 같은 회수 권한은 수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발동됨. 이는 제공받은 민간 핵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전용한 국가에 대해 군사·외교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한 것으로 북한과 이란에 적용될 것으로 보임. 결의문은 두 국가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NPT가 추구하는 핵확산금지정책에 '주요 위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

### 나. 북·미 관계

#### ● 오바마, 北 새방향 가도록 압박 계속(9/27,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인터넷 주례연설을 통해 "올해 초 우리는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WMD) 개발을 중단하도록 새롭고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면서 이같이 언급
-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연설에서 이번 주 열린 유엔총회 결과 및 피츠버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비확산 책임 준수를 거듭 촉구, 그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노력을 전하면서 "이란과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우리들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 **美, 대북 식량지원 실무대책반 가동(9/25, 자유아시아방송)**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의 재개를 검토하기 위해 실무대책반을 만들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의 마크 매닌 박사가 주장, 매닌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이 식량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암시해오거나 직접 식량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오바마 정부는 그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실무대책반의 활동이 꽤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시사

● **美스타인버그, 곧 비핵화재제 돌입 방안 공개 희망(9/25, 미국의소리방송)**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목표에 강력한 합의를 이루고 있다면서 “아울러 이들 나라는 이런 과정에 어떻게 돌입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24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 정책설명회에서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며칠 안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내주 동북아 순방 때 한국과 일본,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이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 그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부분적인 ‘가 취해졌다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최종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는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 **美대북인권특사에 로버트 킹(9/25,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로버트 킹 전 미 하원 외교위 국장을 북한인권특사에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24일 밝힘. 킹 특사는 톰 란토스 전 하원 외교위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2004년 입안된 ‘북한인권법’ 발의에 관여하기도 했음. 북한 인권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그동안 공석이었음.

● **김정일, 北·美 양자대화 우선시 의도 밝혀(9/22, 교도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북수의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22일 보도

- 소식통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9월 18일 다이빙귀 국무위원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 대화를 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언, 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
- 이어 소식통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대표단에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다자 대화’가 6자회담 복귀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김정일 위원장이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다자 대화와 북·미 양자대화를 병행하고 싶어 하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설명, 그러나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북한과 미국이 수차례 회동한 뒤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언
- 교도통신은 다이빙귀 위원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이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측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소개

● 美, 김정일 발언 6자회담 연결돼야(9/20,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Obama) 미 행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밝힌 “양자·다자 협상” 발언이 6자회담 재가동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미 국무부의 커트 캠벨(Campbell) 동아태 차관보는 19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
-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캠벨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 틀로 복귀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행해 다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는지 지켜볼 준비가 돼 있다는 말로 6자회담 복귀를 촉구

다. 북·중 관계

● 北-中, 군대교류 확대·심화(9/24, 조선중앙통신)

- 중국을 방문중인 북한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23일 베이징의 8.1청사에서 중국의 쉬차이허우(徐才厚)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면담하고 양국 군대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

- 쉬 부주석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중국 당과 정부, 군대는 일관하게 전략적 높이에서 중·조(북) 친선을 대하고 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 이어 그는 “두 나라 군대는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여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며 “현 시기 중·조 두 나라 군대 사이의 교류를 확대하고 내용을 심화시켜 나갈 데 대하여” 말했다고 통신은 소개
- 면담에는 최진수 중국주재 북한 대사관 무관과 마샤오톈(馬曉天)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장,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부주임이 배석했다고 보도

● 中 원자바오 총리 내달 4일 방북(9/26, 연합)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0월 4일 북한을 방문해 이틀 뒤인 10월 6일 평양에서 열리는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양국 소식통이 밝힘.

● 김영남, 中인민일보 사장 면담(9/23,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중인 장옌농(張研農)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인민일보 대표단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장 사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하는 선물을 전달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北에 식량지원(9/25, 조선중앙통신)

- 유엔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25일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조선에 기증하는 식량이 함경북도 라진항에 도착했다”며 “기증식이 25일 현지에서 있었다”고 소개, 그러나 통신은 러시아가 지원한 식량의 종류와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기증식에는 김지석 수매양정성 부상, 채송학 라선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발레리 수히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

## 마. 북·일 관계

### ● 北, 日과 외교문제 대담한 결심 가능(9/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4일 북일간 대화 재개문제에 대해 “조선(북)은 근시안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역사발전의 견지에서 외교문제를 다루고 대담하게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신문은 ‘국제정세의 격변과 조일관계 개선의 기회’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중단된 대화의 재개는 그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판단을 내려 풀어야 할 문제”이고 “조선은 오늘의 대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
- 신문은 “(일본의) 새 정권이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고 과거의 역사를 직시한다면 조선과의 관계개선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총리가 밝힌 지향이 그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정책노선으로 확인된다면 조선측도 호응해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

### ● 민주조선, 美-日관계, 마찰 피할 수 없을 것(9/24,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4일 ‘급격한 변화 속에 낮설어지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에서 새로 집권한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과 미국 행정부간 관계가 “시작부터 뼈격”대면서 “점차 멀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일간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과거 “자민당 정권과 뿌리가 다른 새 정권”이라며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이전을 재검토하고, 일본 해상 자위대의 다국적군에 대한 급유활동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민주당 정권의 정책들을 부각시켜 다룸.

## 바. 기타 외교 관계

### ● 보안성대표단 시리아 방문(9/26, 조선중앙방송)

- 시리아를 방문하는 리병삼 정치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인민보안성 대표단이 26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쿠바대사 연회 개최(9/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정권수립 61주년(9.9)에 즈음해 호세 몬타노 주북 쿠바 대사가 21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이날 연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용진 교육상, 로성실 여맹위원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

3 대남정세

● 남북 동진호선원 2명 20년만 가족 상봉(9/26, 연합뉴스)

- 남북 이산가족 추석 상봉 행사가 26일 오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시작돼 남측 이산가족 97명이 북한에 사는 가족 228명과 60여년 만에 재회의 기쁨을 나눴음. 이번 상봉행사에선 특히 국군포로 한 가족과 남북 어선 동진 27호 선원 두 가족이 '특수 이산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재회

● 개성 北근로자가 고품질 인증 첫 획득(9/25, 연합뉴스)

- 개성공단내의 북한 근로자들이 한국 기업들도 따내기 어려운 정부의 고품질 인증서를 획득,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식품용기 제조업체 (주)성림정공이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청이 수여하는 '싱글 PPM 품질인증'을 획득, 이날 공단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힘. 이 인증은 최근 6개월 동안 생산한 제품에서 불량품 비율이 100만개 중 10개(0.001%, 10PPM) 미만일 때 주어짐. 현재까지 품질 인증을 받은 공장은 전국에 1천664개에 불과하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성림정공은 지난해 7월부터 싱글PPM 품질혁신활동을 시작해 1년 2개월 만에 인증을 받게 됐음. 인증을 심사한 대한상의 측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2~3년 걸려야 받을 수 있는 인증서를 불과 1년여 만에 달성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평가, (주)성림정공은 플라스틱 용기인 식용유 뚜껑을 생산해 CJ제일제당에 납품하는 회사로, 2008년 4월 개성공단에 공장을 설립했다. 현재 88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3명의 한국 측 주재원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음.



● 남북, 개성공단택아소 건립 합의서 체결(9/23, 연합)

- 남북이 23일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 택아소 건립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통일부가 밝힘.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내 택아소 건립과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택아소 수용 인원은 약 200여명이며, 연 면적은 858㎡(약 260평)”라고 소개
-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립비용 약 9억원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 건립 이후 택아소 운영은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맡게 되며 입주기업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기·가스비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소개
- 개성공단 택아소 건립 사업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2007년 합의한 것으로, 정부는 작년 11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택아소 건설비용 9억원을 의결한 이후 설계 등 일부 작업을 진행했지만 남북관계 상황이 악화되면서 공사에는 착수하지 않았음.

● 北화물선, ‘북한산 제수용품’ 가득 신고 부산항에(9/23, 연합)

-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북한산 제수용품을 가득 실은 북한 국적 화물선이 부산에 도착, 23일 부산항만공사와 부산경남본부세관에 따르면 부산항과 나진항을 오가는 북한국적 정기 화물선 ‘단결봉호’(1천592t)가 22일 오후 10시께 나진항을 출발, 25일 오전 8시께 부산 감천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소개
- 열흘에 한번 꼴로 부산과 나진항을 오가는 단결봉호가 부산 감천항에 입항하는 것은 이전 낫설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에는 단결봉호의 화물량이 보통 때보다 크게 늘었음. 이유는 추석을 맞아 마른 고사리와 버섯, 새우, 명태살, 대구, 냉동 문어 등 제수용품을 많이 실었기 때문임.
- 단결봉호의 대리점인 국보해운은 “보통 때 단결봉호가 북에서 신고 오는 화물은 약 6m 짜리 컨테이너로 80~90개였는데 이번엔 120~130여개로 늘었다”면서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으로 쓰이는 나물류에다 해산물이 늘 것으로 안다”고 설명, 북한에서 수입된 농수산물들은 북한 물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재래시장의 도매상으로 유통됨. 북한 농수산물은 무관세여서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다 북한 물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도 나아져 수입량은 꾸준히 늘고 있음.

09.28-10.04

9월  
5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국가원수 아닌 2인자 공항영접 처음(10/4, 신민망; 환구시보)

- 중국 관영 신민망의 인터넷판인 신민망은 애초 당연히 김영일 북한 총리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환영식을 주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갑자기 군중의 환호 소리가 들려서 보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타났다고 하며, 현장의 중국 기자들도 모두 놀랐다고 전언, 중국과 홍콩 언론들의 현장 중계를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붉은 카펫 위를 걸어 비행기에서 내리는 원 총리 일행을 맞았음. 약 30분 동안 진행된 환영 행사 동안 김 위원장과 김영일 총리, 원 총리는 함께 3군 의장대를 사열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원 총리가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본 뒤 자신의 차에 탑승한 뒤 떠났음.

- 원 총리는 중국에도 널리 알려진 북한 영화 '꽃파는 처녀'의 여주인공에게서 꽃다발을 받았으며, 원 총리 일행이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동안 연도에는 수십만의 군중이 손에 꽃다발을 흔들고 "중국 대표단을 환영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쳤음. 관영 환구시보는 순안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들어가는 도로 양쪽에는 '조중 양국 우호 만세'라는 표어가 곳곳에 걸렸다고 소개, 공항에선 김 위원장과 김영일 총리 외에도 북한 당·군·정 고위 간부들과 류샤오밍 평양 주재 중국대사, 북한에 체류하는 중국인들과 중국 유학생들이 원 총리를 맞았다. 김정일 위원장은 건강악화설 이후 처음으로 외국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언

#### ● 김정일, 양묘장·타조목장 현지지도(10/3,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앙양묘장과 타조목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일 보도, 현지지도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현철해 북한군 대장 등이 수행
- 김 위원장은 양묘장에서 "나라의 수립화, 원림화를 실현하는 데서 중앙양묘장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산림조성 사업은 국토의 면모를 일신하

고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일 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게 하는 만년대계의 자연개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고 중앙방송은 전언

- 그는 이어 평양시 교외에 있는 타조목장을 찾아 "타조목장은 인민생활 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타조는 사료를 적게 먹으면서도 많은 고기와 알, 질 좋은 가죽과 털을 생산하므로 수익성이 대단히 높은 짐승"인 만큼 타조기르기를 적극 장려할 것을 지시
- 김 위원장은 이 현지도 일정과 별개로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을 세우는데 공을 세운" 군부대의 군인 건설자들을 만나 기념 촬영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 촬영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현철해 리명수 대장, 최태복 김기남 당 비서, 장성택 부장 등이 함께 했음.

● 김정일, 김일성大 등 평양시내 현지도(10/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메기공장, '12월7일공장' 등을 현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방문, 새로 건설된 수영관에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들러 대학생들의 수영훈련을 지켜본 뒤 도서관 건설 현황을 보고 받고 도서관을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토록 지시했다고 통신은 소개
- 그는 평양메기공장에서 메기의 요리법을 더 다양화할 것을, '12월7일공장'에선 주민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주문
- 현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당 부장, 제1부부장 등이 동행

● 김정일, 軍하사관대회 참가자 만나(9/29,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전군 '초기복무사관'(장기복무 하사관) 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을 만났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9일 보도
- 방송은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군 초기복무사관 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대회 성과를 축하했다"고 밝혔으나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김 위원장은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전군의 초기복무사관들은 그 어떤 명예나 직위도 바람이 없이 조국과 혁명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배기 애국자들"이라며 "높은 전투기술기능과 실력으로 전투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우리 당과 인민군대의 귀중한 보배”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소개

- 만남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원홍·현철해·리명수 대장 등이 동행
- 김정일 위원장은 평양시내 대동강식료공장과 평양방직기계공장도 현지지도했다고 중앙방송이 29일 밝힘.
- 김 위원장의 이들 공장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등이 동행

● 김정운, 국방위 통해 후계공식화 예상(9/28, 열린방송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삼남 김정운은 국방위원회의 제1부 위원장이 되는 방식으로 후계자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이 28일 “북한의 고위소식통”을 인용해 주장
- 방송은 온라인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제35호)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되는 방식으로 후계자로 확정됐으나 정운의 후계자 공식화 절차는 이같이 국방위원회를 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김정일의 유고시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운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방식으로 김정운 세습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

나. 정치 관련

● 北김영일, 양자, 다자 핵협상 용의(10/4, 중국신문사)

- 김영일 북한 총리는 핵문제 논의를 위한 양자, 다자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4일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게 밝힘.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김영일 총리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핵무기 활동’과 관련해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전언
- 김 총리는 “비핵화 실현은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면서 “북한은 다자 및 양자대화를 통해 비핵화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북한은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기

를 희망한다”고 언급

- 원 총리는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유관 당사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
- 원 총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인식이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
- 양국 총리는 이날 총리회담에서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미래의 더욱 긴밀한 발전을 다짐함. 회담 후 두 총리는 경제, 무역, 교육, 여행 등의 분야에 관한 양국 협력협정서에 서명
- 중국신문사는 양국이 국경지역인 압록강변에 새로운 도로와 교량을 건설하는 것에 의견일치를 봤다면 정식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 중국 총리로서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4일 오전 전용기 편으로 방북한 원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항영접 등 극진한 환영 속에 사흘간의 공식 방문에 들어갔음. 원 총리는 5일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북한 핵협상 재개 문제와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를 비롯한 북중 간 경제협력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됨.

● 北언론 매체들, 원 총리 ‘귀중한 친선의 사절’(10/4,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노동신문은 1면에 원 총리의 방북관련 사실을 싣고 “역사적 시기와 정치적 중요성으로 볼 때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며 “조중 친선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방송물을 통해 원 총리를 맞는 평양은 “명절 일색으로 단장돼 있다”고 환영
-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중 두 나라 당과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오랜 친선관계는 오늘 대를 이어 계속 즐기치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소개하고 “조중 친선은 두 나라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날로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

-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 평양신문 등 주요 일간지는 원 총리의 사진과 함께 약력을 상세히 소개했고, 중앙방송도 원 총리의 약력을 별도로 소개

● **北매체들, 10·4선언 2주년 “철저 이행” 강조(10/4, 노동신문; 민주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10/3, 통일신보)**

- 노동신문은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추동하는 불멸의 대강'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10.4선언이 가리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 민족은 능히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현실의 절박한 요구”라고 주장
- 민주조선도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이행해야 할 통일대강'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북남 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북남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자주통일, 평화변영을 이룩하려는 공화국(북한)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이 선언들의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남측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
-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10.4선언 채택은 “조국 통일운동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라며 “역사와 현실은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적극 지지 옹호해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
- 평양방송은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이정표”라며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조선중앙방송도 10.4선언 발표 2주년에 따른 북한 사회과학원의 '반향(반응)'을 소개
- 통일신보는 3일자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글에서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에 이어 또 하나의 귀중한 통일선언”이라며 “북과 남은 서로 존중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민족공동의 발전과 변영,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

● 北매체들, “만경대 가문 혈통” 강조(10/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김 위원장의 고조부인 김응우의 사망 131주기를 맞아 ‘애국애족으로 빛나는 고결한 생애’라는 제목의 글에서 “만경대 가문은 대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소개
- 신문은 “가난하면서도 성실하고 근면하면서도 의절이 강한 것이 만경대 가문의 가풍”이라면서 “김응우 선생님께서 물려주신 만경대 가문의 애국애족의 낮은 연대를 이어 위대한 선군시대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만경대 가문의 혈통은 위대한 장군님(김정일)께서 계시어 더욱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
- 노동신문은 10월 2일에는 김 위원장의 증조부인 김보현의 54주기를 맞아 ‘애국으로 빛나는 고결한 한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보현이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 올린 만경대 가문의 가장”이었다고 주장

● 통일신보, 이산상봉 성과 살려 화해국면 이어가야(10/3,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이산가족 추석상봉(9.26~10.1) 행사가 열린 것을 “화해·협력의 성과”로 평가하며 남북이 “이번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의 성과를 살려서 북남관계를 더욱 활기있게 전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남북관계가 “지난 1년 반 동안 불신과 대결의 악화일로만을 걸어” 왔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월 1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이산가족 추석상봉 문제와 관련한 ‘청원’을 풀어줬다면, “단절되었던 북남관계가 다시 협력의 궤도에 들어서고 금강산에서의 뜻 깊은 가족, 친척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김 위원장의 “숭고한 뜻과 의지가 낳은 사변”이라고 주장

● 北, 추석상봉을 공동선언 이행과정으로 간주(10/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일 끝난 남북 이산가족 추석 상봉행사와 관련, “북측은 이번 상봉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과정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흠어진 가족, 친척뿐이 아닌 온 겨레가 남북 당국의 금후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오늘의 상봉을 공동선언의 이행과정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난 9월 1,2차 상봉행사 때 열린 연회에서 남·북 대표단장들의 연설엔 “금후 북남 인도주의 사업의 추이 뿐 아니라 전반 북남관계 발전에 대한 입장이 담겨 있어 주목됐다”며 남·북측 연설을 소개

● 北, 핵무기 관리·사용·확산방지에서 책임 행동(10/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핵무기의 관리와 사용, 전파(확산) 방지와 핵군축 문제에서 책임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박 부상은 9월 28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또 “우리는 핵군비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유한 핵무기의 사명은 전쟁억제에 있다”며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그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만한 핵억제력만 보유할 것이다. 유럽과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선반도에서도 위협과 억제력은 정비례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뒤늦게 소개
- 박길연 부상은 “미국은 우리 나라는 평화적 위성발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횡을 부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에 도용되고 있다”며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미국이 핵정책을 변경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현 단계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믿음직한 핵보유로 지역의 핵균형을 보장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
- 그는 이어 “조선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자면 미 행정부가 낡은 대결관념을 버리고 최근에 여러 번 성명한대로 변화의 입장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北, 美의 대북핵정책과 연계 비핵화 노력(10/1, 연합)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과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과의 연관 속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이날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없는 세상’ 건설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 결의 1887호에 대해 “전반적 국제사회의 염원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중기준적인 문건”이라는 이유로 “전면배격하며 거기에 조금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이같이 언급

- 그는 안보리 결의 1887호의 채택과 관련,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비핵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그로 인해 “평화와 안정이 심히 유리,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시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부터 그것을 감축하고 철폐하는 것이 세계 비핵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
- 그는 특히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전방 전개와 가중되는 핵위협을 막는 데서 아무런 역할도 놀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미국의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에 악용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북한이 “비핵국가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

● **조선신보, 北로켓 발사, 주민결집 계기(9/30, 조선신보)**

- 북한이 지난 4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북한 주민들의 “정신력을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점이 됐다고 조선신보가 30일 주장
- 신문은 ‘〈현지지도 강행군의 진실 -하-〉 대국적 배짱이 준비한 총공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건설의 현장에서 어려운 과제가 제기될 때면 일꾼 회의나 종업원모임에서는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 발사가 난문제를 풀 수 있는 반증자료로 등장하곤 하였다”고 설명

● **北, 언론매체통해 ‘그랜드 바겐’ 거부(9/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해 “‘비핵·개방·3000’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 철회가 없이 우리의 핵포기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허황한 꿈”이라고 일축
- 통신은 ‘핵문제 해결에 백해무익한 제안’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남조선 고위당국자가 최근 미국을 행각하면서 핵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일괄타결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며 이 제안을 “우리(북한)가 6자회담을 통해 핵계획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는 대가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풀이
- 그러나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서 철두철미 조미(북미) 사이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통신은 기존 북한

입장을 되풀이 하고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일괄타결안을 들고 나온 것은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에 끼어들어 방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

- 이어 통신은 “우리가 그 누구와 ‘관계정상화’를 하고 ‘경제적 지원’이나 받으려고 그따위 얼빠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산”이라며 “핵문제는 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에야 진정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

● 조선신보, 대북 자극 언동 삼갈 것을 주문(9/28, 9/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9일 남북 이산가족 추석상봉 행사를 다루면서 “남측 당국이 진정으로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킬 의사가 있다면 북남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오늘의 시점에서 적어도 북측을 심히 자극하는 언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이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 핵무기저장소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
- 조선신보는 28일 끝난 1차 상봉 행사 자체에 대해선 “통일부도 대화국면이 점쳐지는 시점이라 산하 직원들에게 ‘금강산 가서 술마실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말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고방지와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명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남측 관계자들이 뜻하지 않은 충돌로 인해 행사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한 데 대해선 북측의 관계자들도 일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

● 北매체, 김태영장관 북핵발언 거둬 비난(9/29,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9일 ‘객기는 부리지 않는 게 좋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북한 핵무기저장소에 대한 선제타격 발언을 “호전적 폭언”이고 북한에 대한 “공공연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이 발언과 관련,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 신문은 남북관계가 최근 자신들의 “아량있고 대범한 주동적 조치에 의해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는데 “남조선의 극우보수 세력은 겨레의 염원에 배치되게 북남관계 개선을 한사코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

● 北대사, 원칙 지켜지면 비핵화 적극 노력(9/28, 연합)

- 자성남 영국 주재 북한대사는 28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협상과 관련, “자주권이 존중되고 평등 원칙이 지켜진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
- 그는 또한 “북핵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철회해야 하고 북조선에 대한 핵위협이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
- 자 대사는 이날 오후 영국 왕립군사안보연구소(RUSI)가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대치 상태가 계속되면 진정한 비핵화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자주권이 존중되고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아래에서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北헌법, 김정은 권한·지도이념 제도화(9/28, 연합)

-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11년 만에 개정된 새 헌법은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100조)”라고 규정하면서 ‘임무와 권한(103조)’으로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국방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특사권을 행사한다,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등 6개항을 적시, 새 헌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106조)’으로 새롭게 규정됐음.
- 아울러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관련, 이전 헌법은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등 군사관련 사항만 담았지만 새 헌법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국방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등을 감독하고 대책 수립, 국방위원장 명령·국방위 결정 및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의 폐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기능을 부여.
- 반면 대외적으로 명목상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현재 김영남)의 권한은 특별사면권과 ‘중요조약에 대한 비준·폐기 권한이 국방위원장에게 넘어감에 따라 상당부분 위축됨.

● 김정일, 사회주의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9/28, 연합)

- 지난 4월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 ‘공산주의’라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 김

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산주의는 파악이 안 된다”며 “사회주의는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28일 알려짐.

- 9월 26~28일에 열린 추석 이산가족 상봉 1차 행사(금강산)에서 남측 기자단과 만난 북측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을 소개하면서 “‘공산주의’가 헌법에서 빠진 의미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

## 다. 경제 관련

### ● 潘총장, 北 식량난 심각(10/2,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일(현지시간) “2천 400만 북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식량난으로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반 총장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식량난과 형클어진 보건 체계, 안전한 식음료의 부족 등으로 북한 사람들의 인권 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2008년 12월 발표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의 공동 보고서는 올해 북한 인구 가운데 900만명이 식량 부족으로 기근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반 총장은 “북한 인구의 70%가 공공 식량 배급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려할 문제는 정부 관리들이 배급량을 낮추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지금의 배급량은 하루 에너지 요구량의 3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 그는 이어 “이같이 악화되고 있는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식량 지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냄.
- 앞서 지난 7월 WFP는 심각한 기금 부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긴급 지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WFP는 600만명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5억400만 달러의 기금이 필요하지만, 당시까지 7천500만 달러 밖에 걷히지 않았다고 밝혔었음.

### ● 北매체, 첨단기술 회사 광고성 기사 내보내(9/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북한에서 ‘정보기술(IT)과 지질탐사 등 첨단기술제품 개발에 앞장선 두뇌집단’으로 ‘미래기술회사’를 소개
- 통신은 그동안 “정보기술, 기계기술, 지질탐사 등 여러 분야의 제품들을 연

구 개발" 해온 이 회사가 소유한 핵심기술과 개발한 주요제품들로 지문인식기, 지능감시체계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으며 이런 기술과 제품들은 북한의 여러 경제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첨단 기술제품들을 적극 개발하여 여러 나라와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

● UNDP, 평양서 대북사업 재개(9/30, 조선중앙통신)

- 지난 2007년 3월이래 중단됐던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사업이 재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통신은 "조선에 대한 유엔개발계획의 협조가 다시 시작되는 것과 관련한 행사가 30일 주조 유엔개발계획 대표부에서 진행됐다"고 말했으나 재개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음.
- UNDP 집행이사회는 지난 1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북한의 자금전용의 확대 때문에 2년반 가까이 중단됐던 대북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음.

● 北, 대북투자 이집트 기업회장에 훈장(9/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30일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 이집트의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텔레콤 회장에게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훈장 수여 이유로 "김정일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흥미심을 안고 조선과 이집트 사이의 친선과 경제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 기여했다"고 밝힘.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류영섭 체신상 등이 참석
- 오라스콤은 북한측과 75 대 25 비율로 투자해 설립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를 통해 지난해 12월15일 평양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 사위리스 회장은 수여식 뒤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하는 선물을 전달

● 北, 주요 대형건설장에 군병력 대거 투입(10/30, 평양방송)

- 북한 평양의 10만가구 살림집 건설 사업에 투입된 북한 군인들이 29일 쫓기모임을 갖고 "수도 평양을 웅장화려하게 건설하는 나날에 21세기의 진군 속도를 창조"할 것을 다짐했다고 평양방송이 30일 보도
- 쫓기모임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한동근 상장(우리의 중장) 등이 참석

했으며,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리태일 상장의 보고와 토론을 거쳐 북한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맹세문이 채택

- 김 위원장은 강성대국 건설 목표해인 2012년까지 살림집 10만가구 건설을 중심으로 평양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 평양을 강성대국 달성의 상징물로 내세우기 위해 군병력을 이 사업에 대거 투입토록 지시, 9월 30일 이들 군인력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평양방송은 전언

● 北, 황해북도 미루벌 수로 개통(9/29,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표적 곡창지대인 황해북도 미루벌에 220km의 '자연흐름식' 관개 수로가 개통돼 29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북한은 2006년 황북 곡산, 신계, 수안 3개 군에 걸친 총면적 420km<sup>2</sup> 미루벌의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지류의 물을 이용한 자연흐름식 관개수로 공사에 착수
- 평암저수지 댐에서 열린 이날 준공식에서 김창식 농업상은 준공사를 통해 "황해북도 곡산군 리상리로부터 신계군에 이르는 수 백리 구간에 자연흐름식 물길이 건설됨으로써 전력과 양수설비를 쓰지 않고 미루벌의 논밭을 안전하게 관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인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됐다"고 강조

● 평양국제상품전, 14개국 120여개 기업 참가(9/29, 조선신보)

-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제5차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14개국과 1개 지역에서 120여개 기업이 참가해 1천627종, 6만1천700여점의 상품을 출품했다고 조선신보가 29일 보도
- 전람회를 주관한 조선국제전람회 류정언 과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는 지난해에 비해 470여종, 4만1천700여점이 증가된 것이라며 "봄철에 비하여 가을철 전람회의 무역거래건수는 70% 수준에 있는데 해마다 그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
- 조선신보는 전람회 성과에 대해 "국내 회사들의 활동은 상품수출에 그치지 않는다"며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기술무역에 대한 지향성으로 국내 특허 기술을 반영한 제품들이 출품되고 제품의 성능제고를 안받침한 새 기술이

적극적으로 소개, 선전되고 있다”고 평가

● 北, 벼 추수 시작(9/24, 민주조선)

- 북한 농촌지역에서 올해 벼 추수가 시작됐음. 민주조선은 24일자에서 “100일 전투의 장엄한 포성이 울리기 바쁘게 황해남도 안의 농촌들에서 벼 가을걷이가 시작되었다”며 “도에서는 낱알을 한 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일꾼과 근로자들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고 소개

라. 사회·문화 관련

● 혁명 역사를 기리는 것을 중심으로 추석 보내기(10/3,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에 화환을 보냈고 이들 능에서는 김영일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환 진정식이 열렸다고 북한 매체들은 소개, 만경대에 있는 김 위원장의 증조 부모인 김보현과 리보익의 묘, 조부모인 김형직과 강반석의 묘에도 화환들이 진정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이 참석
- 평양방송은 추석을 전통 민속명절로 쉴 수 있게 된 것은 고 김일성 주석의 뜻을 이어 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덕이라고 선전, 어느 해인가 김 위원장이 “애국심도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며 “그래서 당에서는 추석을 휴식일로 선포하고 교통수단을 보장해 줘 부모들의 묘지를 찾아보게 한다”고 말했다는 것
- 북한 매체들은 이날 추석의 유래와 성묘를 비롯한 풍습을 소개했고, 추석 전날인 2일 저녁 조선중앙TV는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날 평양 시내 버스 운행시간을 별도로 안내하는 방송을 내보냄. 평양방송은 “추석을 계기로 각지 근로자들이 조상들의 묘소를 찾았다”고 보도

● 北, 씨름 대중화 주력(10/2, 조선신보)

- 북한이 민족 스포츠인 씨름의 대중화를 통한 인기몰이에 주력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일 보도, 북한의 씨름협회 흥환원 서기장은 조선신보와 인터



뷰에서 “사람들 속에서 민족적인 문화정서생활의 기풍을 세우는 데서 씨름의 대중화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

- 북한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정규체육수업에 씨름이 포함됐으며 우리의 과외 동아리적인 소조에도 ‘씨름소조’가 생겼고 조선체육대학에는 민족체육학부가 생겨 씨름강좌를 신설, 여기에도 각 도와 시, 군에 있는 청소년체육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소질이 있는 선수들을 선발해 프로씨름선수로 양성
- 프로씨름선수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 ‘9월 10일상’ 무도경기대회와 ‘정일봉상’ 체육경기대회,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등에 출전, 프로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 모두 참가하는 경기도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기가 올해로 7회를 맞이한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대회도 개최
- 특히 북한 씨름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평양시와 평안북도의 라이벌 구도, 조선신보는 “씨름경기는 추석을 전후로 하여 텔레비전으로 방영되고 있다”며 “온 나라 인민들이 열중하는 인기 프로이고 사람들은 자기 지방을 대표하여 출전한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소개

● 北체육위원장, 각 종목서 조총련계 대표기용 시사

-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박학선 위원장은 “축구뿐 아니라 여러 종목에서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선수들이 조선(북한) 대표로 활약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박 위원장은 9월 2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관계자들과 재일본 조선인체육연합회(체련) 대표단간 면담에서 조총련계 축구 선수들이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대표팀에서 활약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총련과의 협력, 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북한에도 ‘해운대’ 전파돼 당국 검열(9/28, NK지식인연대)

- 지난 7월 말 개봉한 후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재난영화 ‘해운대’가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도 급속히 전파돼 이를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고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28일 주장
- 이 단체는 ‘주간북한뉴스’ 소식지에서 ‘현지 통신원’의 말을 인용, “14일부

터 함경북도에 대한 중앙당 27국 검열이 진행됐다”며 “검열의 동기는 평양 시 서평양구역에 위치한 철도대학 컴퓨터에서 한국 영화 ‘해운대’가 발견 되면서부터”라고 소개

- 소식지는 “철도대학 기숙사생들은 9월 5일 오전에 자가생(집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최모씨라고 하는 학생의 USB(범용직렬버스 메모리)를 통해 한국 영화 ‘해운대’를 대학 컴퓨터에 옮기고 저녁에 컴퓨터실에 모여 비밀리에 시청하다가 현장에서 대학 정치부의 순찰에 발각됐다”고 소개
- 소식지는 “통신원에 따르면 ‘해운대’를 담은 USB는 다른 영화를 담은 USB보다 5천원 비쌌고 다운로드 받는 가격도 5천원”이라고 설명

##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 北관리들, 6자회담은 끝났다(10/4, 연합뉴스)

- 북한이 9월 말 방북한 미국 전문가 그룹에 6자 회담은 “완전히 끝났다(over and done)”며 6자회담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북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이 2일 밝힘.
- 이 소식통은 북한 외무성 관리들이 평양을 방문한 존 루이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등 미국 전문가 그룹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언,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 관리들이 6자회담 이외의 다자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소개

#### ● 보즈워스, 北에 협상 재시작 용의 전할것(9/30, 연합뉴스)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자신이 방북할 경우 북한에 대해 핵협상 프로세스를 재시작(restart)할 용의가 있음을 전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힘.
- 보즈워스 대표는 30일 동아시아포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만일 방북할 경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협상 과정을 다시 시작할 용의가 있음을 말할 것”이라면서 “2005년 6자회담 합의

에서부터 (협상은) 출발해야 한다”고 밝혀 9.19 공동성명이 새로운 협상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밝힘.

- 그는 “(방북시) 둘째로는 6자회담이 그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을 말할 것”이라고 언급, 그는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6자회담 내의 양자대화”라고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그 목표가 비핵화 및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이와 관련, 그는 “결국에는 필요한 것은 다자적 해법”이라면서 “그 나라(북한)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나홀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밝힘. 보즈워스 대표는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장기적 해법으로 대화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본다”면서 “군사적 해법은 없으며, 봉쇄도 장기적으로 결과를 낳지 못한다. 협상이 진전을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
- 그는 또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것만으로는 안되며 제재는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유인책) 형태의 가능성과 결합돼야 한다”고 답변

## 나. 북·미 관계

### ● 美, 중동에서의 北확산활동 우려(10/3, 연합)

- 미국은 2일 중동에서의 북한의 확산 활동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전담반이 중동지역을 방문중이라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이끄는 범정부 대표단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를 방문중이라고 언급
- 미국 대표단은 1일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했으며, 4일에는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짐. 이번 대표단에는 금융제재를 다루고 있는 재무부에서 대니얼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포함됐으며, 백악관, 국방부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켈리 대변인은 “우리는 중동에서의 북한 확산 활동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면서 “이번 방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전반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급

● 美, 北 고립·제재 계속 직면할 것(10/1, 연합)

- 미국은 30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핵 무기 확산 근절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히는데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고립과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과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회원국이었다”면서 “그들(북한)이 6자회담 내 우리와의 직접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고, 그들이 핵프로그램 포기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고립과 상당한 제재에 계속 직면할 것”이라고 밝힘.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지켜보는 동안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대북)결의 1874호의 적극적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변
- 그는 “한반도가 완전하게 비핵화돼야 한다는 우리의 정책은 명확하다”면서 “이는 우리의 정책 및 우리의 6자회담 내 관련국과의 대화의 초석”이라고 강조, 크롤리 차관보는 또 북미 양자대화 문제와 관련,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북한으로부터) 양자 대화 제의가 있었고, 우리는 이를 여전히 평가중”이라고만 답변

● 스타인버그, 北, 양자대화 기회 잡아야(9/30, 연합)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30일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 협의를 거쳐 우리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양자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이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이 그 기회를 잡는다면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
- 그는 또 “지금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다른 5개 참가국이 공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 5자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
- 그는 ‘미국의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과 한국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간 한·미가 협의해 온 사안으로, 포괄적이고 결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답변

#### 다. 북·중 관계

- 루하오 中공청단 제1서기 방북(10/3, 조선중앙통신)
  - 최연소 베이징 부시장 경력을 가진 루하오(陸昊)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 제1서기를 단장으로 한 중국청년친선대표단이 3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노동신문, 北中 친선 강화가 일관된 입장(10/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은 두 나라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날로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9월 다이빙귀 국무위원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한 것은 “중국의 당과 정부가 중조 친선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
  - 신문은 이날 ‘자랑찬 투쟁과 전진의 60년’이라는 개인필명 기념논설에서 “조중 친선관계를 계속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며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보다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중국 인민은 중국공산당의 영도밑에 새 생활창조와 사회주의 새 중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와 “세기적인 낙후와 빈궁이 청산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변혁이 이룩돼 나라의 면모가 일신됐다”고 중국의 발전상을 지적했으나 그 동력으로 개방·개혁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발휘한 때문이라고 주장
- 김정일, 中후진타오에 ‘건국’ 60주년 축전(9/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0일 중국 건국 60주년(10.1)을 맞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조·중(북·중) 친선은 두 나라 인민들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라며 “역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조중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대를 이어 변함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언급
  - 북한은 축전을 김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총리

공동명의로 중국의 후 주석과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보냈음.

● **中, 총리 방북시 北에 무상원조(9/29, 연합)**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원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식량과 석유를 무상원조 형식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질문을 받고 “중국은 북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북 무상원조를 계속해 왔다”고 말해 원 총리의 방북 기간 상당한 규모의 무상원조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
- 장 대변인은 “무상원조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은 원 총리 방북 기간 북한과 경제무역, 교육, 여행 분야 등의 협정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

● **北·中, 건국·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9/28, 신화통신)**

- 북한과 중국은 28일 각각 평양과 베이징에서 중국 건국 60주년과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을 개최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대문련)와 북·중 우호협회가 이날 중국의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평양의 인민궁전에서 공동 개최한 리셉션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이 참가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라. 기타 외교 관계**

● **북한과 쿠바, 2010년 상품교류의정서 체결(10/3, 조선중앙통신)**

- 10월 1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북한 정부경제대표단장인 리룡남 무역상과 피델 피게로아 데 라 빠스 쿠바 건설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상품교류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양측은 양국간 경제과학기술협의회 제28차 회의 의정서와 북한 무역성과 쿠바 무역외국투자부 사이의 2010~2015년 가격제정 및 설정원칙 의정서도 조인

● **사르코지, 북한 특사에 자크 랑 임명(10/2, 연합)**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문화부장관을 지낸 좌파

- 의 자크 랑 하원의원을 북한문제 특사로 임명했다고 엘리제궁이 밝힘.
- 엘리제궁은 성명을 통해 “프랑스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도록 자크 랑 의원이 상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성명은 “랑 의원은 또한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랑 의원이 사르코지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된 것은 쿠바와의 대화 재개를 위해 쿠바 특사를 맡은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임. 랑 특사는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을 방문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일정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짐.

### 3 대남정세

#### ● 南, 귀순의사 확인, 송환불가 통보(10/4, 연합)

- 북한 당국이 10월 1일 동해 상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11명의 송환을 요구하고 우리 당국은 전원 귀순의사를 밝혔으며 불가 입장을 통보, 북측은 2일과 4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주민 11명의 송환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전원 귀순의사를 밝혔으며 확인이 필요하면 하라’는 취지로 ‘불가’ 입장을 4일 북에 통보
- 이들 11명은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제3국을 거쳐 들어온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합동조사, 하나원에서의 국내 정착교육 등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

#### ● 어린이 2명 포함 北주민 11명 동해로 귀순(10/1, 연합)

- 북한 주민 11명이 1일 오후 6시 30분께 동해로 귀순, 정부 소식통은 이날 “성인 9명과 어린이 2명 등 북한 주민 11명이 동해상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이들은 우리 측 항구에 도착, 귀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힘.
- 귀순자는 남자 5명, 여자 6명으로, 오후 6시 30분께 3t 규모의 ‘전마선(傳馬船.소형 고기잡이 배)’을 타고 동해상으로 넘어왔다고 이 소식통은 전언
- 그는 “1차 합동신문 결과, 이들은 함경북도의 한 지역에서 출항해 100여 마

일 이상의 동해 먼 바다로 나간 뒤 남측으로 넘어왔으며 1년가량 탈북을 준비한 것 같다”면서 “9명은 일가족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 군 육상레이더 기지에서 이날 오후 3시 48분께 이들의 접근 사실을 포착, 해경에 통보했으며 해경은 4시 15분께 북한 선박에 접근해 귀순의사를 파악하고 강원도 주문진항으로 안전하게 유도한 뒤 양양 해군기지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짐.

● 北, 개성공단 업체 실태파악에 적극적(10/1, 연합뉴스)

- 북한이 9월 중순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회계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입주업체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전례없이 적극적인 태도로 공단 업체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입주업체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선 북한 당국이 업체들의 어려운 부분을 파악해 도움을 주려는 태도라는 평가와 나중에 임금인상 요구자료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 제기로 반응이 엇갈림.

● 이산상봉 마지막날, 상봉단 오후 귀환(10/1, 연합뉴스)

- 약 1년 11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1일 2차 상봉단의 작별상봉을 끝으로 마무리
- 남측 상봉단 429명은 작별상봉을 끝으로 2박3일의 추석 이산상봉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후 1시 금강산을 출발, 동해선 육로를 통해 남측으로 귀환할 예정, 이들은 첫날인 29일 단체상봉과 만찬, 이틀째인 30일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야외상봉 등으로 60년간 쌓여온 한을 달랬음.
- 앞서 9월 26~28일 1차 상봉행사에선 남측 97가족, 126명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에서 6차례 북측 가족 233명과 상봉

● 北매체, 추석 남북이산가족 상봉 보도(9/26-28,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추석상봉 소식을 전연
- 방송은 28일 오후 1차 상봉이 끝난 뒤 “우리측 가족 친척들은 26일 남측 상봉자들과 집체(단체)상봉을 했다”며 “상봉이 시작되자 북과 남의 가족 친척



들은 수십년 세월 한시도 잊은 적 없던 혈육들을 만나 뜨겁게 인사를 나누고 가정 소식도 전했다”고 소개

- 방송은 이어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9월 26일 환영만찬을 주최한 사실과 27일 이산가족들이 가족별 상봉을 한 사실을 전하고 “생사 여부조차 모르던 혈육들을 만난 기쁨속에 우리측 가족 친척들은 김정일 장군님의 인덕정치, 광복정치가 실시되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참된 삶을 누려온 나날들에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했다”며 체제선전에 활용

10.05-10.11

10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창당 64주년 공연 관람(10/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창당 64주년(10.10)에 즈음해 은하수관현악단,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의 합동 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공연 관람에는 최태복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중앙위원회 부장 및 제1부부장들과 주상성 인민보안상,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
  
- 北 김정운 이름 널리 알려져 있어(10/6, 더타임스)
  - 북한에서 지난 4월 엄청난 규모의 화려한 불꽃놀이가 있었고 이는 ‘젊은 장군님’ 김정운을 위한 것이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고 더 타임스가 6일 보도
  - 북한 정권의 후계문제와 관련해 이 신문은 “평양에서 많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있었지만 4월 봄 하늘을 밝혔던 것이 가장 환상적이었다”며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평양 엘리트 사이에서는 이 불꽃놀이가 ‘젊은 장군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졌다”고 보도
  - 더 타임스는 “1년 전만해도 북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 ‘김정운’의 이름을 들었었지만 이제는 널리 알려져 있다”며 “역사상 유일하게 공산주의 독재정권을 세습받기 위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강조, 신문은 “올해 초 젊은 장군님을 칭송하는 노래가 엘리트층에 퍼졌으나 최근 남한으로 유출된 북한 내부분서에 따르면 김정운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금지됐다”며 “북한의 안내원들도 이를 들어봤지만 김정운의 이름을 언급하자 피하려 했다”고 설명
  
- 김정일 후계자 김정은, 당 조직부서 부국장급(10/6, 중앙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에 내정된 셋째 아들 김정은(25)이 현재 노동당 조직 관련 부서에 ‘부국장급’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6일 보도, 또 김정은의 후계 공식 데뷔는 이르면 내년부터 북한이 강

성대국 진입 시기로 공언한 2012년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정부 관계당국은 분석

-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은 1984년 출생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 당국은 ‘정식으로 통학하며 수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수나 군부 인사를 불러 개별 교습을 받은 후 졸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아버지인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군 복무를 한 경력은 파악되지 않았음. 관계당국은 북한이 지난 4월부터 김정은을 ‘친애하는 김 대장 동지’로 부르기 시작했으며 김정은 찬양 노래인 ‘발걸음’을 보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힘.

● 北, 후계자격으로서 배반않을 ‘충실성’ 내세워(10/5, 마이니치신문)

- “제2국제당(제2인터내셔널)에 공헌한 베른슈타인, 카우츠키와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배반해 수정주의의 길로 전락했으며, 스탈린 사후 권좌에 오른 흐루시초프에 의한 수정주의가 대두해 이후 배신자인 고르바초프에 의해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참상이 일어났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최근 보도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습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위대성 교양자료’에 들어 있는 대목임.
- 마이니치 신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한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는 김정은이 김 위원장에게 “한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있고 그의 선군사상과 이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선군영도의 계승자로서 정당성과 필연성을 갖고 있다는 선전에 주력하고 있음.
- 김정은의 군사적 재능 입증사례로 자료는 그가 특히 포병전에 능하며, 북한군이 위성항법장치(GPS) 수신기와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지도를 작성한 것도 김정은의 아이디어라고 주장, 자료는 또 장거리 로켓 발사 때 김 위원장과 함께 직접 시찰했다고 밝혀 그가 위성관제소 현장에서 참관했다는 당시 대북소식통의 말을 확인했고, 4월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치러진 ‘축포 야회’를 김정은이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밝혀 역시 당시 소식통의 말을 확인했음.
- 이 자료는 김정은에 대해 “위세 좋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 등 우리 수령님(김일성)과 우리 장군님(김정일)을 꼭 빼닮은” 외모까지 거론하며 “유일무이한 후계자”로 내세웠음.

## 나. 정치 관련

### ● 北매체, 남북관계 발전 입장 불변(10/1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1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 등을 거론하면서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려는 변함없는 입장의 반영”이라고 밝힘.
- 사이트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의 결실’ 제목의 글에서 올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은 “전적으로 우리 공화국(北)의 아량있는 노력의 산물”이라며 “우리 측이 최근 금강산, 개성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는 데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대범하고도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강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16 면담’에 따른 5개항의 교류사업 합의를 상기시킴.
-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0일 최근 방북 결과와 관련, “북한 측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했을 뿐 아니라 일본, 한국과도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해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전언
- ‘우리민족끼리’는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나감에 이 과정을 통하여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중요한 요구”라며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 이행을 통해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할 것을 절절히 바라고 있다”고 주장

### ● 창당 64돌 축포야회 개최(10/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저녁 평양 ‘당창건기념탑’ 광장에서 창당 64돌 축포야회 ‘위대한 당을 따라 신심높이 가리랴’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해 북한 언론매체들이 10일 보도
- 야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전병호 최태복 김국태 김중린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리용무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유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 당·군·정 간부들

이 대거 참석, 또 야회에는 북한 주재 외교사절과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  
 - 최태복 비서는 연설에서 “축포의 불보라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주위)에 일심단결하여 이 세상 끝까지 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며 온 천지를 진감하며 울려퍼지게 될 축포성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승리의 뇌성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

● **北매체들, 노동당 창당기념일 김정일 찬가(10/11, 연합)**

- 북한 노동당 창당 64주년을 맞아 북한 매체들은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사설 등을 일제히 쏟아내고 그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과 ‘150일 전투’에 이은 ‘100일 전투’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주문  
 - 신문은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동지의 부강조국 건설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는 세련된 위대한 향도자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우리 조국과 혁명의 백전백승의 상징”이라며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우리 당을 수령 결사옹위의 전일체, 선군혁명동지의 대오로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

● **北, 북미회담서 美핵정책 변경 판별(10/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9일 ‘비핵화 실현을 위한 조선의 현실적 대응’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의 구호를 동북아시아에서 구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대화를 통해 조·미(북·미) 두 나라가 비핵화에 관한 논리의 접점을 찾는 것”이라며 “조선에 있어서 문제의 초점은 미국의 핵위협”이라고 주장  
 - 북한은 “(이러한) 핵문제의 근원으로부터 쌍무 및 다무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미국의 핵정책 변경 여부에 대한 판별을 선결과제”로 정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핵으로 조선을 위협하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다자회담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신문은 주장  
 - 이어 신문은 “동북아시아 비핵화와 조선반도 비핵화의 발기지는 조선”이라고 주장하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에 대한 북한의 제안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

- **北, 타조목장 현대화 기여 당부부장에 영웅칭호(10/8, 조선중앙방송)**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7일 타조목장 현대화에 기여한 문경덕 노동당 부부장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8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정령’을 통해 문 부부장이 “타조목장의 과학화, 공업화, 사회주의화를 훌륭히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크게 공헌”했다며 영웅칭호 수여 배경을 설명
  - 문 부부장은 2002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조선대양회사 총사장의 직함을 갖고 장성택 현 국방위원 겸 노동당 행정부장, 박남기 현 노동당 부장 등과 함께 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남한을 방문했었음. 그는 2003년 제 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됐고 2002년 ‘김일성훈장’도 받았음.
  
- **민주조선, 美 인권특사 지명에 “적대정책” 반발(10/6,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무슨 체면에 인권을 운운하는가’라는 제목의 6일자 기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로버트 킹 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국장을 북한인권특사에 지명한 것을 “반공화국 압살정책”이라고 반발
  - 신문은 “미국은 ‘북조선 인권담당특사’로 하원에서 인권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툼) 랜토스의 수석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킹을 임명했다”며 “이것은 미국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핵분야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인권분야로 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
  
- **北, 핵보유국 걸맞게 행동하고 있다(10/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이스라엘이 최근 북한과 이란간 핵개발 협력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허튼 여론”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리 공화국(북)은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자기 할 바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
  
- **원자바오, 방북 성과 만족(10/6, 조선중앙통신)**
  -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6일 오전 북한 방문을 마치고 귀국에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감사 전문을 보내 “방문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원 총리는 전문에서 “우리들은 중조(중국-북한) 관계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고 깊이있는 의사소통을 진행하여 광범한 공동인식을 이룩하였다”며 “이번 방문은 쌍방 사이의 호상(상호) 이해와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였으며 두 나라의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추동하였다”고 평가

- 그는 북한의 “열정적인 환대와 주도세밀한 조직사업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방북 기간에 “사회주의 건설위업에서 이룩한 기뻐할 만한 성과를 직접 보았으며 중국 인민에 대한 조선 인민의 깊고 두터운 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
- 그는 이 전문을 김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총리 세 사람 앞으로 보냈음.
-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평양 순안구역 ‘조중 친선 택암협동농장’을 참관, 통신은 6일 오후 원 총리의 귀국 소식을 전하면서 공항에서 환송식이 열렸으며 원 총리가 “수도(평양)의 거리들에서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았다”고 보도

#### 다. 경제 관련

##### ● 北, 1980년대 말 최고실적 돌파 목표(10/7, 조선신보)

- 북한은 ‘150일 전투’(4.20~9.16)에서 기록적인 생산 실적을 올렸으며, 일부 기업소는 2012년까지 “1980년대 말에 이룩한 최고 생산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조총련 계열 조선대학교의 지영일 사회과학연구소장이 주장
- 조선신보에 기고한 ‘지영일 교수의 월간 경제평론’ 150일 전투와 경제강국 건설 전망이라는 글에서 “2012년의 생산목표를 현재 생산수준의 3배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들이 적지 않으며” 금속, 전력, 석탄공업, 철도운수 부문의 어떤 기업소에서는 6배로 내세운 곳도 있다고 주장

##### ● 경제연구, 제재 극복책으로 ‘절약투쟁’ 강조(2009년 3호)

- ‘경제연구’는 2009년 3호에서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 “절약 투쟁”을 적극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이 학술지는 '절약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중요 방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면 희천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산업 건설과 수십만 가구의 살림집, 공공건물 건설 등의 살대한 규모의 기본 건설"을 조기 완료해야 본건며 이를 위한 '절약 투쟁'의 확산을 촉구

## 라. 군사 관련

### ● 北, 핵시설 복원작업 마무리 단계(10/6, 연합)

- 북한의 핵시설 복원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북한이 올해 초부터 영변 등에 있는 핵시설 복원 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최근 복원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포착됐다"고 밝힘.
-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4월 14일 불능화 작업이 진행 중이던 핵시설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 핵시설 1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시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은 전언

### ● 北, 신형 단거리미사일 KN-06 개발(10/6, 동아일보)

- 북한이 지난해부터 사거리와 정확도를 향상시킨 KN 계열의 신형 단거리미사일을 개발하는 한편 최근에 대포동 2호급 장거리미사일의 엔진 연소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6일 보도
-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부터 KN-01 지대함미사일과 KN-02 지대지미사일보다 사거리와 정확도를 개선한 KN-06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신문은 보도

## 마. 사회·문화 관련

### ● 노동당 65주년 기념 문학축전 개최(9/26, 문학신문)

- 북한이 내년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65주년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1년 기간의 '전국 문학축전'을 지난 9월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문학신문은 26일은 북한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가 노동당 창당 65주

년을 기념하는 전국 문학축전을 내년 9월 말까지 1년 기간으로 개최한다고 보도

- 신문은 '전국 문학축전 조직 요강'에서 축전 참가 자격을 '조선작가동맹 소속의 모든 작가'로 밝히고 소설, 시, 아동, 고전문학과 문학평론 분야 응모 작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내년 11월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하며 입선자에게는 "해당한 시상"을 한다고 설명
- 신문은 작품 주제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대성'과 '선군혁명 영도력'을 비롯해 '혁명교양·계급교양', 주민들의 '수령결사 용위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력, 6.15 공동선언이 밝힌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입각한 통일투쟁 등을 제시

##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 ● 北, '핵없는 세상' 결의 배경 입장 전달(10/7, 연합뉴스)

-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재로 지난달 24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핵없는 세상' 결의 1887호를 전면 배격한다는 공식 입장을 안보리에 전달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대사는 1일자 서한을 통해 핵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들이 핵무기를 철폐하지 않는 한 북한도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고 미국의 대북 정책과 연계해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하겠다고 밝힘. 이 서한은 9월 3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발표한 것과 같은 것임.

#### ● 中, '김정일 발언' 높이 평가(10/7, 연합뉴스)

-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김정일 위원장이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통해 이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음.

- 그는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양자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면서도 “각자가 마땅히 6자회담 프로세스를 추진해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 그는 “중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한 및 다른 유관 당사국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

● 스타인버그, 대북제재식 이란제재 가능(10/7, 연합뉴스)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이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힘.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란 핵문제와 관련한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상당한 성공”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언급  
- 그는 “(대북제재 결의는) 매우 중요한 조치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면서 “이란 문제에서도 복제될 수 있다”고 말해 대북제재와 같은 강력한 경제제재를 담은 이란판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침.

● 日, 北 6자회담 조건부 복귀 의사 환영(10/6,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조건부 복귀 선언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오카다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6자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으나 성명에서 특별히 6자회담이라는 용어를 언급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  
- 그는 이어 “북미 양자대화는 6자회담에 앞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엄격히 이뤄져야한다”며 “6자회담이 곧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러시아, 北조건부 6자회담 복귀 발언 환영(10/6, 이타르타스 통신)

- 러시아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일단 환영을 표시함.  
-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은 6일 관영 이타르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6자회담 협상으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는 데 대해 환영하며 이를 더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즉각적인 협상 재개를 촉구

● 김정일,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10/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무위원장은 5일 방북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는 (이미) 조미(북미) 회담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하였다”며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통신은 김 위원장이 원자바오 총리의 숙소를 방문, 면담한 자리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조미 양자회담을 통하여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는 반드시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고 소개
- 김 위원장은 백화원영빈관에서 면담 뒤 원 총리 일행을 위해 만찬을 열고 원 총리와 작별인사를 나눴다고 통신은 보도, 만찬에는 북측에서 장성택, 김양건 노동당 부장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영일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

나. 북·미 관계

● 美NGO, 北리근 이달 말 방미 초청(10/11, 연합)

- 미국 국무부는 9일 북한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10월 말 방미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이 리근 국장을 미국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음.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레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미 행정부가 리 국장의 미국 방문을 허가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

● 北리근, 10월 말 방미 추진(10/9, 연합)

- 북한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26~27일 미국 서부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외교소식통은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NEACD 참석차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미국이 비자를 발급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연

- NEACD는 미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 '세계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가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 6자 회담 참가국 외교·국방부 관료와 학자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다자간 포럼으로, 올해는 26~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라호야에서 개최됨.

● 美, '김정일 언급' 신중판단 유지(10/7, 연합)

-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7일 워싱턴 포린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언급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최근 수주, 수개월간 했던 것과는 다른 언급"이라면서도 "앞으로 상황 진전에 따라 이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열리게 된다면 북한이 6자 회담 복귀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해 보겠다면서 "말이 아닌 북한의 행동에 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

● 美당국자, 북미대화 형식, 대표 등 협의중(10/7, 연합)

- 미국은 북미대화를 결정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누구를 대표로 보낼지 등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미 국무부 당국자는 7일 연합뉴스 기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대화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직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양자대화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5자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언급

- 이 당국자는 "다만 어떤 형식이 가장 좋은지, 또 대화에 나서는 사람은 누구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6자회담 재개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최선의 기회를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 파트너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구체적인 대화 형식 등의 문제를 두고 관련국간 협의 절차가 진행중임을 시사

다. 북·중 관계

● 中충칭-北평양 관광노선 개설(10/9, 중경상보)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당시 중국과 북한이 체결한 관광 협약에 따라 중국 충칭에서 평양을 관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노선이 개설된

다고 중경상보(重慶商報)가 9일 보도

- 신설되는 충칭-평양 관광노선은 4일 코스로 선양과 단둥을 경유, 육로로 평양을 왕복하는 코스와 베이징에서 항공편을 이용, 평양을 가는 2개 코스로 운영, 관광비용은 선양-단둥을 거치는 육로 코스가 2천 위안(약 34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징 경유 코스는 이보다 약간 비쌀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북한 관광 중국인들이 현지에서 도박을 즐기는 것을 문제 삼아 2006년 중단했던 북한 단체관광을 2008년 9월부터 다시 허용했음.

● 북·중 접경 지역서 사린 검출(10/9, 아사히 신문)

- 중국군 특수 부대가 2008년 11월과 2009년 2월 랴오닝성 단둥 주변 북한과의 접경 부근의 공기 중에서 맹독성 물질인 사린을 검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중국 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9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중국측은 실험이나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 중국 특수 부대는 연습을 겸해서 정기적으로 공기 중의 화학 물질을 조사하는데, 북한측에서 바람이 불어 올 때 조사한 결과 우연히 1m<sup>3</sup>당 0.015~0.03 $\mu$ g의 사린이 검출되었음. 이에 따라 중국군이 항공기로 독을 제거하는 물질을 살포했다는 정보도 있음.
- 사린은 검출될 당시와 가까운 시점에서 북한에서 살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언, 사린은 독성이 강해 군사 연습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북한측이 무언가 실험을 했던가, 보관 또는 운송 중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추정

● 中, 6자회담 추진에 자신감 피력(10/7, 신화통신)

- 중국 정부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담을 계기로 6자회담 추진에 자신감을 피력, 8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은 7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6자회담의 앞날에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언급
- 앞서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도 평양에서 홍콩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6자회담의 조건부 복귀 입장과 관련, 북미 양자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양자회담이 6자회담을 대체하지 못한다며 6자회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

● 北, 거주중인 화교·중국인 감시 강화(10/8, 조선일보)

-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참여한 6월 이후 북한당국이 북한 거주 화교와 중국인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중국과 북한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최근 중국을 방문한 화교들을 '중국 정부 스파이'로 몰아 감시하는 경우가 많아 화교들이 아예 중국 방문을 자제하고 있다고 함.
- 특히 최근 중국에 다녀온 평양의 화교가 '남조선 간첩'이란 혐의로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 방문을 위해 나진세관을 통과하는 북한 화교들의 수가 작년어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함.
- 북한 거주 화교들은 약 8000~1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주로 평양·신의주·청진 등에 살고 있음.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 가서 산 물건을 북한에서 팔아 생기는 수입으로 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난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북한 당국의 통제에서 자유로웠음. 그러던 화교들이 최근 '최악의 탄압을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통제와 감시를 받게 된 것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참여한 데 대한 북한의 불만표시라는 해석이 많음.
- 북한은 화교뿐 아니라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진출한 중국기업 종업원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언, 최근 보위부는 이 지역의 중국기업에 파견된 중국인 종업원 2명을 북한 여성을 농락했다는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짐.

● 北, 홍루몽 개작, 북중친선 계승 의미(10/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북·중 친선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평양 '피바다가극단'에서 개작, 방북했던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관람한 가극 '홍루몽'에 대해 북·중 친선관계 계승의 상징으로 평가
- 신문은 '조(북)·중친선의 귀중한 전통을 빛내어주는 역사적인 예술작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극 '홍루몽'의 재창조는 수령님(김일성)께서 중국의 노세대 영도자들과 함께 장구한 기간에 걸쳐 마련한 귀중한 조·중 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계기로 됐다”고 주장

- 신문은 “문화교류는 가장 친근한 진정이 담긴 친선의 언어, 우호의 유대”라며 “지난해에 우리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중국을 순회공연하고 올해에는 평양예술단, 조선영화음악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공연무대를 펼쳤으며 연극 ‘네온등 밑의 초병’과 가극 ‘홍루몽’이 재창조된 것은 중국인민과의 친선과 우호의 정을 귀중히 여기는 조선인민의 진실한 성의로 된다”고 주장

● 김영남, 中청년대표단 면담(10/7,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루하오(陸昊) 공청단 제1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청년친선대표단과 환담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선신보, 북·중관계에서도 北의 ‘핵보유’ 내세워(10/7, 조선신보)

- 북한과 중국간 수교 60주년 기념일에 즈음한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은 북·중간 친선의 전통과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추구해야 할 공동의 이익을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조선신보가 7일 주장
- 신문은 ‘조·중 친선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중 수교 60돌은 “두 나라 협조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었다고 평가, 신문은 특히 “조선(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은 바뀌었다”며 “지역 내의 국제관계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고 주장
- 신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역내에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더라도 “조선과 중국은 ‘전통적인 친선’에서 언제나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게 협조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정립할 수 있다”고 주장

● 中, 北 나진항 부두 개발권 확보(10/7, 연합)

-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통해 오랜 염원이었던 압록강 대교 건설을 성사시킨 중국이 북한 나진항 부두 개발권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중국 다



렌(大連)의 환경설비 제조 전문업체인 창리(創立)그룹이 나진항 1호 부두의 개발권을 따냈다고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 관계자가 7일 밝혔다.

- 이와 관련 창리 측은 “이미 북한 최고위층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중국 중앙 정부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라며 “(중국 정부의 허가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또 “북한 측도 나진항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조만간 공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언
- 창리가 확보한 나진항 부두 개발권은 1호 부두의 2, 3호 정박지를 보수, 확장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권임. 38만㎡ 규모인 나진항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不凍)항으로, 1호 부두 2, 3호 정박지 보수 및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연간 100만t 규모의 하역 능력을 갖추게 됨.
- 창리 그룹은 나진항 1호 부두 전용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중국 훈춘에서 나진항까지 93km의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나진항 1호 부두 독점 사용권을 확보함에 따라 중국은 동북지방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물류비가 저렴한 동해를 통해 남방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창춘과 지린, 투먼 일대를 개방 선도구로 개발,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삼으려는 창-지-투(長-吉-圖) 개발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北비단도 특구 건설 지원나선 중국(10/7, 조선일보)

-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번 방북에서 적잖은 ‘선물 보따리’를 풀었는데, 공개된 것만 2억달러를 웃뎀. 무상 경제 원조와 기술·교육 분야의 지원 협정, 관광산업 관련 협정, 중국측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신압록강대교 건설 등이 있음. 북한에 절실한 석유·식량 무상 원조는 5000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 중국측이 1억5000만 달러 가량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신압록강대교 건설도 북한 입장에서선 2002년 무산된 ‘신의주 특구’의 꿈을 되살릴 수 있는 카드임. 중국은 수년 전부터 연간 27억달러에 이르는 양국 교역 규모에 맞게 기존 압록강철교 외에 신압록강대교를 건설하자고 주장했으나 북한은 유사시 중국군의 진입 루트가 될 수 있어서 이를 반대해왔음.
- 북한이 입장을 바꿔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합의한 것은 이 대교가 북한이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압록강 하구 ‘비단도(緋緞島) 자유무역지대’ 프로젝트의 기반 시설이 되기 때문임. 신압록강대교는 비단도를 지나감. 북한은 이 외에 관광 분야의 협력 협정을 통해 중국 관광객의 북한 관광 확대 길을 텃음.

● 원자바오 귀국, 평양시민 수만명 환송(10/6, 환구시보; 신화통신)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2박 3일간의 북한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6일 귀국길에 올랐음. 중국 신화통신과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평양 시민 수만명이 아침 일찍 가두로 나와 원 총리를 환송했다고 평양발로 보도

● 中, 북미회담 6자회담 대체 못한다(10/6, 평향(鳳凰)TV)

-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수행해 북한을 공식 방문 중인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6일 평양에서 홍콩 위성방송인 평향(鳳凰)TV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힘.

- 친 대변인은 “중국은 북핵문제가 제기된 이후 줄곧 대화를 권고하고 촉진해왔다”면서 “과거 4자회담은 물론 6자회담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건설적인 대화를 하도록 교량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

● 원자바오, 마오쩌둥 장남 묘지에 헌화(10/5, 연합)

-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북한 공식 방문 이틀째인 5일 평안남도 회창군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묘’에 있는 마오쩌둥의 장남인 마오안잉의 묘지를 참배

- 원 총리는 열사묘 가장 앞자리에 위치한 마오안잉의 묘지와 반신 흉상 앞에 꽃다발을 바친 후 “마오안잉 동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조국은 강대국이 됐으며 인민은 행복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언급

라. 북·일 관계

● 日, 김정일 관계개선 발언에 기대·우려 교차(10/11, 연합)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10일 3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협상 이후 6자회담이 개최돼, 북한의 핵 폐기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일단 긍정 평가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6자회담이나 북일 관계 개선의 전제가 되는) 북미 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지 않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일단은 북미간 대화를 주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 北, 일본과 양자대화 열망(10/9, 연합뉴스)

- 북한은 양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과의 대화를 열망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중국을 방문 중인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상이 전언, 오카다 외상은 이러한 분위기를 최근 원자바오 총리를 수행, 북한을 다녀온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서 전해 들었음.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 대화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이후에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확실하는 모습이었다고 오카다 외상이 전언

● 北, 日서 핵 피폭 검사약 수입 시도(10/6,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지난 5월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기 한 달 전 일본 무역업체로부터 비밀리에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시약 수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

마. 기타 외교 관계

● 北대외문대표단, 이란·파키스탄 방문(10/8, 조선중앙방송)

- 전영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친선대표단이 8일 이란과 파키스탄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佛대북특사, 11월 9~10일 방북(10/6, 교도통신)

- 일본을 방문 중인 자크 랑 프랑스 대북담당 특사는 6일 교도(共同)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11월 9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힘.
- 랑 특사는 자신의 임명 경위와 관련,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프랑스가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그러면서 그는 “당연히 관계국과 협력할 것이며, 단독 행동을 취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

- 프랑스는 유럽 주요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으며, 특사의 임무에는 국교 수립의 타당성 검토도 포함돼 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

### 3 대남정세

#### ● 북, '귀순주민' 또 송환요구(10/9, 연합)

- 북한이 10월 1일 동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 11명의 송환을 4번째로 요구, 통일부는 북한이 8일 동해 지구 군통신 채널을 통해 귀순자 전원의 송환을 요구했다고 9일 밝힘.
- 북측이 주민들의 송환을 공식 요구한 것은 지난 2일과 4일, 5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임. 이에 따라 정부는 군 통신 채널을 통해 '11명 전원이 귀순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원한다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통일부는 전언

#### ● 개성공단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10/9, 연합)

- 9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분양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월 1일부로 개성공단 분양권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권을 공장 건물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까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계약 규정을 폐지, 다만 토지이용권을 양도받은 기업은 애초 분양받은 업체의 업종을 승계해야 한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언
- 이에 따라 분양권을 파내고도 남북관계 경색, 불투명한 근로자 공급 전망 등을 이유로 공장 건설을 미루고 있는 업체들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음. 또 기존 입주기업들은 경과기간(건물등록일로부터 2년) 제약 없이 언제든지 공장 건물이나 토지이용권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게 됐음.

#### ● 13일 신계사 복원 2주년 남북합동법회(10/8, 연합)

- 금강산 신계사 복원 2주년을 기념하는 남북불교도합동법회가 13일 오후 2

시부터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에서 남북 불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2007년 10월 13일 금강산 신계사가 복원된 지 2년이 된 것을 기념하고 남북불교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합동법회를 열기로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과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 개성공단, 北에 969명 요청했는데 5명만 충원(10/8, 조선일보)

- 개성공단에 입주한 의류제조업체 A사. 올 초 개성공단에 입주한 뒤 북한 직원 70여명을 배정받았다.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여서 충원을 요청했지만, 1~2명씩 띄엄띄엄 왔음
-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 2007년 10월 이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아파트형 공장 업체들(총 31곳)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7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1곳 중 25곳이 올 9월 말 현재 모두 969명의 근로자를 충원해달라고 요청, 그러나 이 중 실제로 충원된 5명 뿐임
- 북측은 충원 요구에 대해 “개성 시내의 인력 부족 현상 때문”이라는 설명만 되풀이함. 대북 소식통은 “이주가 어려운 북한 체제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노동력을 데려오기도 힘들다”며 “최근 평안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당 충성도 등을 심사해 인력을 데려온다는 말이 나도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

● 정부, 北 관련 컨테이너 4개 10월에 검색, 방호복 찾아내(10/5, 연합뉴스)

- 정부가 9월 부산항에서 북한과 관련된 ‘위해(危害) 물품’이 실린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 4개를 검색했던 것으로 5일 밝혀짐. 방호복은 방사능이나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특수 의복으로 그 자체로는 ‘위해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방호복이 핵 시설이나 화학무기 공장 등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10.12-10.18

10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나. 경제 관련
- 다. 군사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일 관계
- 다.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 김정일,李大통령 방북 초청(10/18,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미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가 밝힘. 이 당국자는 지난 14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한국, 일본, 슬로바키아 순방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를 들면서 김 위원장의 이 대통령 방북 초청 사실을 언급,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 같은 방북 초청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음.
-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이 당국자의 발언이 정확한 것인지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우리는 북한 관리들이 남한과 대화에 관심을 보였다는 언론보도를 지켜봐 왔고, 이명박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을 포함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상기시킴. 모렐 대변인은 별도의 이메일 답변에서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했던 북한의 고위관리들이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남-북 접촉의 전망에 대해 논의를 했던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혀 이 시점에 이 대통령 방북 초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

#### ● 北, 핵무기 전면적이고 완전한 철폐 주장(10/18, 조선중앙방송)

- 북한 대표는 10월 12일 열린 유엔총회 제64차 회의 1위원회 회의에서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서 군축 특히 핵군축 문제는 의연히 초미의 문제로 되고 있다”며 북한은 “지구상에서 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폐를 주장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8일 보도
- 그는 미국이 최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제창한 데 대해 언급하고 “세계 최대 핵보유국들이 핵 군축에서 앞장서면 여러 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핵보유국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이것은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깨끗이 청산하는데도 유익할 것”이라고 언급
- 북한 대표는 이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냉전의 마지막 유물을 청산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

현하자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면서 “최근 조선반도에서의 사태 발전은 국제무대에서 핵 군축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라고 지적했다고 방송은 밝힘.

● **노동신문, 북남협력 위한 실천행동 필요(10/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현실은 북남협력을 위한 실천행동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실천행동으로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 그러나 지금 남쪽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북과 남이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라는 실로 놀라운 망언들까지 튀어나와 북남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
- 신문은 “북남관계는 어느 일방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민족의 통일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실천행동만이 우여곡절을 거듭하는 현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 결정적 조건을 지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조선신보, 노벨상 오바마, ‘변화’공약 실천해야(9/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명예로운 수상에 부끄럽지 않게 자신부터 ‘체인지(변화)’ 공약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 **노동신문, 평화협정, 가장 합리·실천적 비핵화 방도(10/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조선반도 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미국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과 미국간 평화협정 체결이 “조선반도(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불안정한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방도의 하나”라고 주장.
- 신문은 북한 핵문제를 ‘조선반도 핵문제’로 확대규정하고 “조선반도 핵문



제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에야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의 조건에 '세계의 비핵화'까지 포함시킴.

- 신문은 북·미간 평화협정을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방도의 하나"로 제시하고 "조미 사이에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조미 교전관계를 평화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진시킬 수 있다"며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을 제거하며 평화를 담보하는 평화협정 체결에로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

● 노동신문,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주장(10/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화해, 협력의 실현은 북남관계 개선의 길'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추석을 계기로 열렸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성과를 토대로 "금강산, 개성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는 등 협력, 교류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북남 선언들에 따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를 적극 실현해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북)의 변함없는 의지"라고 거듭 주장, 신문은 "북과 남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활성화하고 사회문화와 인도주의 분야 등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해 나간다면 서로의 자원과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 이용하여 전국적 판도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끊어진 민족의 유대를 다시 잇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

● 북, 오극렬·김경희가 뜬다(10/14, 한국일보)

- 북한의 대외적 권력서열이라고 할 수 있는 주석단 서열에 최근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중앙위 경공업부장이 새로 등장했다고 한국일보가 14일 보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15주기 중앙추모대회 주석단 서열'에 따르면 오극렬은 7위, 김경희는 15위에 올랐다고 신문은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권력실세이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주석단 서열 명단에 들어갔음.

- 최근 주석단 서열에 따르면 올 2월 임명된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도 김격식 전 총참모장을 대신해 주석단 서열에 처음 등장, 이번 주석단 서열에서 1~4위까지는 지난해 9월 서열과 똑같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의 순, 5위 전병호 국방위원과 6위 이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비교할 때 순위를 맞바꾸었음. 지난해 9월에는 7위였던 김격식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순위에서 빠지고, 올 1월 사망한 김익현 인민군 차수, 이종산 인민군 차수, 남승우 조총련 부의장 등이 이번 서열에서 제외됐다고 한국일보는 보도
- 이번 주석단 서열에 포함된 23명을 소속기관별로 보면 국방위원회 및 군부 8명, 조선노동당 8명, 최고인민회의 4명, 내각 1명, 기타 2명 등임.

● 노동신문, 당원 역할 강화 독려(10/13,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조선 노동당원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라는 장문의 '편집국 논설'을 통해 2012년을 목표로 한 '강성대국' 건설은 "노동당원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대한 임무"라며 노동당원의 역할 강화를 독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소개

● 北 함경북도 인민위원장에 한홍표 임명(10/13,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함경북도 인민위원장에 한홍표(61) 함북 청진시 인민위원장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됨, 조선중앙방송은 13일 함북 김일성 혁명사적관 창립 40돌 기념보고회가 12일 열렸다고 전하면서 한홍표를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호칭
- 한 위원장은 2002년 6월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03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에 선출됐으며 2003년부터 함북 청진시 인민위원장으로 있었음.

● 원자바오, 北,南과 관계개선 의지

-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

- 특히 최근(4~6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원 총리는 “남한과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밝힘.

## 나. 경제 관련

### ● 北류경호텔 완공은 2012년? (10/15, BBC)

-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돼온 평양의 105층짜리 류경호텔이 마침내 완공될 것인가? 2008년 여름 재개된 류경호텔 건설 공사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에 맞춰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BBC가 15일 보도
- 평양 재단장 작업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외벽 유리를 붙이고, 피라미드형 건물의 두 벽에 회색 콘크리트를 바르는 작업을 하고 있음.
- 현재 류경호텔 완공 작업을 맡은 회사는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임. 이 회사는 북한에서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구축, 영업할 수 있는 4억달러 계약을 맺었으며, 이 계약의 일환으로 류경호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오라스콤의 최고운영책임자인 할레드 비차라는 이집트 엔지니어 수 십 명과 북한 노동자 약 2천명이 류경호텔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그는 일단 건물 외장 작업을 마무리한 후 2010년 후 건물 내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 경제연구, 강냉이눈·쌀겨에서 기름짜내자(경제연구, 2009년 3호)

- ‘경제연구’ 2009년 3호는 ‘기름 문제를 푸는 것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먹는 기름과 공업용 기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기름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
- 잡지는 식용유 확보책과 관련, “먹는 기름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도는 강냉이눈을 갈라내어 기름을 짜는 것”이라며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강냉이눈과 쌀겨에서 기름을 뽑고, 거기에서 나오는 강냉이눈박과 쌀겨박으로 집짐승 먹이를 해결하면 많은 고기를 얻게 된다”고 설명

● 압록강대교 2010년 8월 착공 가능(10/15, 단동신문)

- 단동신문은 15일 단동시 관계자를 인용 “양측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8월께 압록강 대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 이 관계자는 “압록강 대교 건설에 대한 양측의 합의 이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압록강 대교 건설에 적극적인 만큼 착공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 중국은 2007년 초 북한을 방문한 우다웨이(武大僞)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노후한 압록강 철교를 대체할 대교 신설을 제의했으나 북한 측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2년여 간 애를 태워왔음. 중국은 압록강 대교가 신설되면 북중 교역량 확대는 물론 북한이 대외 개방에 나설 경우 풍부한 지하자원 확보에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압록강 대교 신설에 적극적이었음.
- 중국은 신설되는 압록강 대교 건설비 10억 위안(약 1천700억 원)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민주조선, “아글타글 아껴야”(10/7, 노동신문)

- 민주조선은 10월 ‘연료, 동력 절약 월간’을 맞아 “연료, 동력을 절약하며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주문, “100일 전투가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수요를 보장하려면 생산을 늘이는 것과 함께 “있는 연료와 동력을 절약하며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강조

다. 군사 관련

● 北 대화하면서도 또 무력 협박(10/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해군사령부는 15일 “남측 해군 함정들이 12일 하루 동안에만 정상적인 고기잡이를 하는 우리(북한) 어선들이 저들(남한)의 수역을 침입했다고 하면서 10차에 걸쳐 16척의 전투함을 우리측(북측) 영해에 침입시켰다”고 주장
- 북한 해군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보도’에서 “(남한 함정들이) 어선 단속을 구실로 불법의 ‘북방한계선’(NLL)을 고수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남조선 군(軍)당국의 처사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이란 언급하고 이어 서해

상의 “제3의 충돌”까지 거론하며 “경고 뒤에는 행동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남조선 군당국은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

● 北, KN-02 단거리미사일 5발 발사(10/12, 연합)

- 북한이 12일 오전과 오후 동해안에서 사거리 120km의 KN-02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동해안에서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모두 5발 발사했다”면서 “오전에 2발, 오후에 3발을 각각 발사했다”고 보고.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정치범 수용소 4곳 폐쇄(10/17, 연합)

-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17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에 따라 지난 10년간 정치범 수용소 10곳 중 4곳을 폐쇄했다고 밝힘. 이날 ‘북한 정치범수용소 현황’이라는 자료에서 “북한은 90년대까지 10개 정치범 수용소에서 20여만명을 수용하다가 90년대말 국제사회의 비난 등으로 4개 수용소를 폐쇄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는 요덕과 개천 등 6개소에서 15만4천명이 수감돼 있다”고 설명, 북한 정치범이 15만여명이라는 것은 각국의 인권보고서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임.
-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는 6개 수용소 가운데 함경남도 요덕과 함북 회령이 각 5만명으로 가장 많은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고 이어 평안남도 북창 1만9천명, 함북 화성과 평남 개천이 각 1만5천명, 함북 청진이 5천명이 수용돼 있음.
- 이 가운데 요덕 수용소는 일정 기간을 거쳐 심사 후 출소할 수 있는 ‘혁명화 구역’과 사망할 때까지 종신 수용되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5곳은 모두 종신 수감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 폐쇄된 수용소 4곳은 평북 천마, 함남 단천, 함남 덕성, 자강도 동신으로, 모두 4만7천명이 수용돼 있었음.

● 北고고학연구소, ‘조선인류학전서’ 집필중(10/16, 조선신보)

-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북한이 주장하는 한민족의 ‘본토기원

설'을 종합체계화하기 위해 '조선인류학전서'(전7권)의 집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6일 보도

- 한민족의 '본토기원설'은 '민족이동설'과 달리 한민족이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태어나 평양을 중심으로 진화·발전해왔다는 것임. 연구소는 이미 두 권 분량의 집필을 끝냈으며 내년까지 집필을 완료하고 2011년 출판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언

● 北비변사등록 번역본, 2011년 출판(10/15, 조선신보)

-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가 조선시대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의 번역을 마치고 2011년 출판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5일 보도
- 신문은 1998년 시작된 번역사업이 총 150책(권)으로 전부 완료됐다고 하며 “11년간에 걸치는 방대한 번역작업에는 30~40대의 새 세대 젊은 학자들이 참가”해 ‘비변사등록’ 원문 2만7천 쪽을 번역한 원고가 30만매에 이른다고 소개

● 北, 현재 신종플루 감염자 없다(10/14, 조선일보)

- 북한에는 신종플루 감염자가 현재 한명도 없다고 북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의 박명수 서기장(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원장)이 밝힘. 조선신보 14일자에 실린 인터뷰에서 주변 국가에선 신종플루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유독 북한만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냐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환자가 있는데도 없다고 우리가 숨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강조
- 그는 또 “국제기구의 협조도 받으면서 많은 양의 타미플루를 비축하고 있다”며 “현재 주변 나라들에서 발표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도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 그는 “치료약제의 국산화를 위한 준비도 본격화”돼 의과학원에서 치료약제의 시험생산을 이미 끝냈으며, “예방약제, 약진(백신)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소개
- 북한의 방역대책과 관련, 그는 “국내 감염보다도 외부로부터의 비루스(바이러스) 반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평양비행장, 신의주, 두만강의 국경역을 비롯한 “출입국의 모든 감문에서 검사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주장

##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 미국방부, 北 ‘독사’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10/18, 연합)

- 미국 국방부는 지난주 북한의 KN-02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일명 독사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이라고 밝힘.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독사 미사일 발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언급
-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도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강화해야만 한다”고 언급, 이 당국자는 특히 “미국은 주로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거리 미사일이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에는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들을 위해 ‘확장억지력’ 등 방위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방부의 이 같은 판단은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미 국무부의 입장과 큰 온도차를 보이는 것임.
-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3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유엔 결의 위반 여부는 미사일 사거리 등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무부의 이런 반응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화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과잉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해석되고 있음.

#### ● 미당국자, 전작권 전환, 2012년 상황 봐야(10/18, 연합)

-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시기와 관련, 원만한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최종 전환결정은) 2012년의 상황이 어떨지에 기초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전작권 합의 내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이전에 (한반도의) 정치적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명백한 결정을 하도록 매우 분명하게 돼 있다”고 밝힘.

● 美, 북미 대화 제3국 개최 요구(10/18, 요미우리신문)

- 버락 오바마 미국 정권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양자 대화와 관련해 장소는 제3국에서, 참석자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으로 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
- 미 정부는 최근 북한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의 방미를 허가, 그의 방미 기간 성 김 미 북핵 특사와 접촉하도록 할 방침임.
- 북미 협상 소식통과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뉴욕에 있는 북한의 유엔 대표부 등을 통해 보즈워스 대표가 참가하는 양자 대화 개최지로 중국 베이징(北京)이나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 베이징에서 개최되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참여시키는 것도 가능
- 미국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강석주 부상을 협상 대표로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언,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를 사전에 약속할 것도 요구하는 등 북미 대화가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이란 인상을 피하려 하고 있으며, 대화 시기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시작되는 내달 중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美 국무부, 北리근에 비자발급 결정(10/17,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0월 말 방미를 추진 중인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에게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이 16일(현지시각) 밝힘.
- 리 국장은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美 국방부, 北미사일 발사 도움 안돼(10/15,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의 제프 모렐 대변인은 14일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 모델 대변인은 오는 18~23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한국, 일본, 슬로바키아 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분명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무익하고, (정세를) 잠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국과 주변국이 용인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

● **美, 북미대화, 6자회담 내에서 이뤄져야(10/14, 연합)**

- 미국 국무부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4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는 6자회담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 중국을 방문 중인 캠벨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이 북한에 미국과의 독립적인 대화는 ‘카드’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힘.

● **북 美 그레이엄 목사, 고위관리 면담(10/14, 조선중앙통신; 10/13, 조선중앙방송)**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1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미국의 저명한 부흥전도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자 구호단체 ‘사마리탄즈 퍼스’의 회장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를 만나 환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박 외무상이 그레이엄 목사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면담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음.
- 그레이엄 목사는 평양에 새로 건설하는 치과병원에 19만 달러 상당의 의료 장비와 물품을 전달했으며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와 함께 진행 중인 북한 병원에 대한 전력 지원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블럼 대변인은 소개
- 그레이엄 목사는 13일 전용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으며 도착 직후 “미·조(북) 사이의 더 좋은 관계를 위한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조선에 왔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은 13일 보도

● **힐러리, 대북 제재 완화 의사 전혀 없다(10/13, 연합)**

- 힐러리 클린턴(Clinton) 미 국무장관은 13일 핵 문제와 관련, 대북(對北) 제재를 완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힘. 북한을 6자 회담 협상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 무

엇이 됐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완화를 제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언급

- 그는 또 “북한이 (스스로) 6자회담에 돌아온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대화의) 목표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종식(complete end)이어야 한다”고 언급

## 나. 북·일 관계

### ● 日, 北납치문제 다시 점화 (10/15,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 정부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협상이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관측되자 미국 등을 통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재조사를 요청기로 했음.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최근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게 북미 양자 대화는 물론이고 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6자회담 참가 의사를 밝힌 만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미국을 통해 북한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요청할 방침임.

## 다. 기타 외교 관계

### ● 케냐, 北과 ‘평화적 핵기술 교류’ 관심표명(10/16, 자유아시아방송)

- 케냐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핵기술의 ‘평화적 사용’을 내세워 북한의 핵기술에 관심을 표명, 모세스 웨탕굴라 케냐 외무장관은 최근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축하하는 행사에서 “케냐 정부는 북한이 핵을 군사적 용도가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케냐 신문 ‘더 스탠더드’를 인용해 보도
- 웨탕굴라 장관은 또 “케냐도 경제와 에너지 개발을 위한 평화적인 핵기술의 사용을 원하며 북한뿐 아니라 교류를 원하는 모든 나라와 이 기술을 나누고 싶다”는 뜻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송은 보도
- 북한의 박현재 우간다 주재대사는 10월 12일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음와이 키바키 케냐 대통령에게 양국간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외교 증서를 전

달했다고 ‘더 스탠더드’는 보도, 비동맹 가운데 온건국가로 분류되는 케냐는 지난 1975년 5월 12일 북한과 수교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서도 북한의 상주공관 개설을 허락하지 않고 북한 공식대표단의 접수를 거부해 왔음.

● **북한-스웨덴 최근 인권대화 가져(10/14, 연합)**

- 북한에 상주대사관을 둔 스웨덴은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최근 북한과 인권문제 대화를 갖고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고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면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는 등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라르스 바리의 주한 스웨덴 대사가 14일 밝힘.
- 바리의 대사는 “지난 12일 북한 외무성의 김춘국 유럽담당 국장이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을 방문해 양국간 인권 대화가 이뤄졌다”고 밝힘. 스웨덴측은 북한 김춘국 국장과 인권대화에서 또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 제8조에 ‘인권 존중 및 보호’ 규정을 삽입한 것을 향후 EU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작은 진전’으로 반영할 뜻을 내비쳤고, 김 국장은 이를 긍정평가 했다고 바리의 대사는 전언
- 스웨덴측은 “특히 유엔 대북 인권보고관의 방북 조사를 허용하도록 촉구했다”고 바리의 대사는 소개, 스웨덴측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방안도 논의했으며, 이미 스웨덴은 북한 관계자들을 초청해 인권관련 부문을 교육·훈련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북한 관계자들을 초청, 시장경제에 관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

**3 대남정세**

● **세계교회협의회 대표단, 평양 도착(10/17, 조선중앙통신; 연합)**

- 세계교회협의회(WCC) 대표단이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초청으로 17일 방북,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무얼 코비아 총무를 비롯한 WCC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만 짧게 보도, WCC 대표단은 10월 20일까지 북한에 머물며 북한 교회와 당국 관계자를 만나는 한편 코비아 총무는 평양 봉수교회에서 설교할 예정

● 北인도지원 요청, 정부 검토하겠다(10/17, 연합)

- 남북은 16일 개성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 그러나 북측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리 정부에 인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측은 후속 대화의 단초를 마련
- 남측은 이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9.26~10.1)에 이어 다음 달 서울과 평양에서 교환 상봉 행사를, 내년 설을 즈음해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를 각각 개최하자고 제의, 또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활용, 상시적으로 상봉행사를 진행하고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촉구, 그러나 북측은 우리 측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은 채 사실상의 '상응조치'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돌아가서 검토하겠다'고 답변
-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선 김의도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은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측은 이산가족 추가상봉 등에 있어 남측의 '성의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언급을 한 뒤 (후속 논의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 별도로 요청을 했다"고 전언, 김 위원은 "북측은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품목과 수량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소개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지원 요청에 대한 정부 방침에 언급, "일정한 규모의 순수한 인도적인 지원은 조건없이 하고 대규모 지원은 당국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언급

● 남북 기독교계, 내주 홍콩서 접촉(10/16, 연합)

- 남과 북의 기독교인들이 내주 홍콩에서 만나 상호 교류확대와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노력 방안을 논의,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따르면 세계교회협의회(WCC)가 21~23일 홍콩 추엔완에서 개최하는 '도잔소 회의 25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통일 국제협의회'에 남한 대표단은 물론 북한 대표단도 참석, 행사에는 남측에서 각 교단 대표와 권오성 NCCK 총무를 비롯해 50여명이, 북측에서 강영섭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4명이 참석할 예정

● 정부, 北 ‘유감’ 표명 사과로 공식 인정

- 북한이 14일 임진강 댐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가족에게 조의(弔意)를 전했고, 정부는 북한의 이런 입장을 “사과로 본다”고 했음.
-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음.
- 북측은 또 무단 방류 원인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통일부는 소개, 북측은 ‘더 큰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댐 붕괴 등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설명

● 미사일 발사에도 남북 실무접촉 재개(10/14, 연합)

- 남북은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을, 16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각각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남북 불교도, 금강산 신계사서 통일기원 합동법회(10/13,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가 13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10.19-10.25

10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묘향산유원지 시찰(10/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묘향산 유원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여러 시간에 걸쳐 하비로 입구부터 만폭동에 이르는 긴 구간의 참관 노정을 직접 답사하면서 유원지 건설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향후 유원지 건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언
  - 김 위원장의 시찰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최태복 김기남 노동당 비서, 장성택 박남기 당 부장, 현철해 리명수 군 대장이 동행
  
- 김정일, 자강도 희천 경제시설 시찰(10/25,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희천시의 청년전기연합기업소, 희천제사공장, 희천공업대학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청년전기연합기업소의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새로 건설된 도서관을 시찰하고 “컴퓨터망에 의한 열람은 경제적인 뿐 아니라 임의의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 도서관 운영을 정상화 함으로써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 김정일 위원장은 희천공업대학을 방문해 과학 기술교육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중앙방송이 소개
  -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는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박남기 장성택 당 부장, 주규창 리제강 리재일 당 제1부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 평양 만수대거리 시찰(10/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만수대거리에 새로 완공된 주택들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거리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만수대거리의 살림집들이 “인민들 모두가 살게 될 살림집 건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된다”며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전달했다고 통신은 전언

- 그는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꾸려나가기 위해선 “거리 형성과 도로 건설, 각종 건축물들의 배치와 형식을 특색있고 전망성있게 하며 고도의 인민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교육, 보건, 체육, 문화후생시설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이날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비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부장, 당 중앙위 제1부부장들인 주규창, 리제강, 리재일이 수행

● **北서 김정은 찬양가 만들어져(10/20, 르 피가로)**

-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막내아들인 김정은에 대한 찬양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20일 아르노 들라 그랑주 기사가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쓴 르포 기사를 게재
- 이 기사에서 신문은, 현재 북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안은 김 씨 가문의 3대 세습 문제라면서 평양-베이징 간 기차 안에서 만난 북한 사업가의 말을 인용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후계세습)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전언, 신문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도 찬양가와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고 소개
- 또 “김일성 주석은 여전히 공식 국가원수로 남아있다”면서 “2012년은 북한에서 모든 것의 기준점으로, 그 때까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세계 첫 공산 왕조의 권력승계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 **서방외교관, 北주민들 ‘김정은 후계’ 알아(10/19, 연합뉴스)**

-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정은이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청년 대장(Young General)’이라 부른다고 북한 내부에 정통한 서방 외교관이 19일 밝힘.
- 이 외교관은 이날 오후 서울주재 한 외국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북한 관리들도 공식적으로는 김정은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현재 후계 구도에 관한 논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이 외교관은 부인하는 북한 관리에게 최근 대만 사진작가가 원산에서 찍어 인터넷에 공개한 김정은 선전 포스터 사진을 증거로 들이밀자 북한 관계자



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김정은이 후계자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공개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면서 “후계자 공개 시점은 올 연말이 될 수 있고 2012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

## 나. 정치 관련

### ● 北언론, 자본주의 향기에 현혹되지 말라(10/25, 노동신문; 민주조선)

- 노동신문은 25일 특히 신세대들이 “자본주의 향기로운 바람”에 물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
- 민주조선은 25일 ‘자본주의 향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제국주의 반동들은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단련되지 못하고... 새것에 민감한 새세대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악용해 온갖 낡고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양식을 자본주의 ‘향기로운 바람’에 실려 대대적으로 침투시키고 있다”고 주장, 신문은 특히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반동들은 우리나라에도 자본주의 향기로운 바람을 끊임없이 불어대면서 우리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허물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며 “자본주의 향기로운 바람에 청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문제는 그들의 운명을 구원하고 민족의 밝은 전도와 미래를 담보하는 매우 중대한 사업”이라고 강조

### ● 北, 유엔에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 요구(10/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유엔의 날’인 24일 ‘유엔은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유엔에 대해 “새 세기의 시대발전의 요구에 부합되는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

### ● 北, 한미 군당국에 “남북관계 정상화 제동” 비난(10/24, 노동신문; 민주조선)

- 최근 한미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은 24일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을 통해 “대화과 협력을 위한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군사적 조치로 대응해 나선 호전광들의 도발적 망동” 등으로 비난

- 민주조선은 특히 “핵무기로 동족을 해치려는 미국에 추종해야 전쟁밖에 초래할 것이 없다”며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핵전쟁이 터지면 남조선의 그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고 위협하고 “남조선 당국은 이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해야 하며 미국의 장단에 춤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긴장완화 분위기를 해치는 전쟁모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확장억제력의 실현수단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태”라고 규정

● 남북 정상회담 탐색속 北, 연일 당국대화 강조(10/22, 노동신문; 10/23, 조선신보; 10/3, 통일신보)

- 노동신문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모색하는 남북 당국간 접촉설이 남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것과 공교롭게도 때를 맞춰 22일 ‘북남선언 이행을 추동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북남 사이에 여러 갈래의 대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노동신문은 북한이 최근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바로잡고 민족의 단합과 협력, 통일을 추동하기 위한 일련의 대범한 조치들을 취했다”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과 공동보도문 합의, 추석 이산가족 상봉,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특사조의방문단 파견 등을 열거, 그리고 그 목적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데로 지향되고 있다”고 강조
- 통일신보 10월 3일 ‘화해와 협력의 길에서 이룩된 성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관계가 “지난 1년반 동안 불신과 대결의 악화일로”를 걷다가 “다시 협력의 궤도에 들어서고 금강산에서의 뜻깊은 가족, 친척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송고한 뜻과 의지가 낳은 사변”이라고 주장
-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중 하나는 22일자 노동신문이 “우리의 모든 노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데로 지향되고 있다”고 강조한 데서 드러난다.
- 조선신보도 이례적으로 23일 ‘조선의 언론들이 북남관계의 개선을 촉구’라는 제목과 ‘협력, 교류의 분위기 이어나가자’라는 부제로 노동신문, 민주조선 등 북한 매체들의 이같은 대남논조를 종합해 보도, 신문은 “조선의 국내 언론들이 북남 선언들에 따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켜 나갈 것을 호소하는 논조를 펴고 있다”며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비롯한 신문들은 최근시기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북남관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논설, 논평을 연일 게재하고 있다”고 보도

● 전국선군시대 공로자대회 폐막(10/22, 조선중앙통신)

- 제2차 전국선군시대 공로자대회가 22일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당·정·군 간부들과 기념촬영을 했음.

● 조선신보, 北 행동계획, 핵군축과 연계 구상(10/21, 조선신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과의 양자회담 진전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한 가운데 북한은 “금후의 행동계획을 국제적인 핵군축, 핵철폐의 움직임과 연계시켜 구상”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1일 보도

- 신문은 ‘〈조미 다음에 다자〉, 합리적인 대화방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영일 내각 총리가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조선반도 비핵화는 전 조선반도와 그 주변 나아가서 세계의 비핵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같이 언급

- 신문은 북한에 있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1차 대상은 당연히 미국”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우선 두 나라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진행되게 될 조미(북미) 회담의 성과 여부는 미국이 조선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길을 선택하는가 어떤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 이에 대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조선(북한)이 종착점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강조,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

- 신문은 이어 원자바오 총리가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담 후 북한이 ‘한국, 일본과도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조선반도 비핵화가 주변지역 즉 동북아시아의 핵군축, 핵철폐와 직결된 문제라면 조선이 과거 6자회담에 참가한 나라들과 대화하는 것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며 “조미회담 하나만 개최되어도 모든 문제가 단번에 풀리지는 않는다. 지역에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따로 있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나라도 있

다”고 말해 앞으로 북핵협상을 ‘핵군축 협상’의 성격으로 끌고 갈 것임을 시사

● 노동신문, 대결관념으로 주저하지 말아야(10/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대결관념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남측에 대해 “대결관념에 사로잡혀 기회를 보지 못하고 주저한다면 북과 남은 언제 가도 화해하고 단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긴장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며 “대결관념을 버리지 않고서는 북남관계 개선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다. 경제 관련

● 국제적십자, 대북지원에 2년간 1천700만달러 배정(10/24, 미국의소리방송)

- 국제적십자자연맹은 2010년과 2011년 2년간 대북 지원사업에 1천752만달러를 배정, 취약계층 지원과 상수도 개선 사업 등을 벌일 계획, 국제적십자자연맹은 최근 확정된 ‘2010-2011 국가별 사업계획’에서 북한 주민들의 영양 실조 방지와 보건의료 상황의 악화 방지를 위해 가장 취약한 계층 850만명에 대한 필수 의약품과 기초 의료 서비스 지원을 비롯한 대북 지원사업 계획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

● 천리마, 경제관리 정보화 필요성 강조(2009년 9월호, 천리마)

- ‘천리마’ 9월호는 ‘경제관리와 경영활동의 정보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당면 과제인 ‘경제강국’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관리와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 잡지는 경제관리와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수단을 확보하고, 통신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기반시도 경제분야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계획, 통계, 회계계산에 이용되는 경제계산 프로그램의 경우 국가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잡지는 강조

● 北관광당국, 재미교포 북한관광 환영(10/2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기간에 방북한 미국인 관광단에 처음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여성 2명이 포함됐으며 북한 관광당국 관계자는 더 많은 재미교포들이 북한관광에 참여하길 희망했다고 미국의 북한관광 전문 여행사 대표가 밝힘.
-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여행사’의 월터 키츠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미국인 관광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었다며 “이번에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교포 여성 2명을 처음으로 관광단에 포함시켰는데 북한 관광당국 관계자가 한인 동포의 방문을 언급하면서 다음부터는 더 많은 한인동포들의 방북을 희망했다”고 전언
- 그는 또 평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이전과 달리 관광단을 안내한 3명의 북한 안내원 모두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 정도”였다고 설명하고 “관광안내원들은 운전중에도 수시로 휴대전화를 조작했는데 문자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고 소개

● 中관광객 가장 선호하는 北기념품은 우표(10/21, 중국평론신문망(中國評論新聞網))

- 북한을 관광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기념품으로 북한의 우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21일 중국평론신문망(中國評論新聞網)에 따르면 최근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 북한 우표 수집이 유행하고 있다고 전언
-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 관광객은 “허용된 곳 말고는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데다 비싼 가격에 비해 품질이 좋은 상품은 거의 없다”며 “그나마 북한만의 특색을 잘 드러내는 것이 우표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 비싸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답변

● 北, 가을철 국토관리사업 주력(10/19, 평양방송; 10/15,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국토관리총동원 기간(10~11월)을 맞아 도로 보수와 강·하천 정비 등에 주력, 평양방송은 19일 남포시 국토환경보호관리부 김복만 부부장의 말을 인용, 남포시는 당정이 “합심해 도로와 강·하천, 산림을 선군시대의 요구대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평양-남포간 ‘청년영웅도

로'를 비롯해 100km가 넘는 도로의 보수와 와우도와 대동강의 독공사 등을 “균중적 운동”으로 벌였다고 설명

-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15일 “각지 일꾼과 근로자들이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에 펼쳐나 짧은 기간에 여러 대상의 강·하천 제방공사와 보수, 도로 건설 및 정리, 거리와 마을 꾸리기를 비롯한 국토관리 전반 사업”에서 획기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함경남도과 함경북도, 평양시에서 “강·하천 제방공사와 정리사업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

## 라. 군사 관련

### ● 北, 이란 통해 시리아에 WMD기술 이전(10/23, 연합)

- 북한이 이란을 통해 시리아에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됨.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이란: 미국의 관심과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시리아에 다양한 형태의 WMD와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이란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우려를 제기
- 또 이란의 재래식 무기 현황을 전하면서 이란이 북한에서 소형 잠수함을 도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 보고서는 “이란은 수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한에서 조립된 잠수함을 구입했거나 조립 부품을 구입했을 수 있다”고 지적
- 이 밖에 보고서는 이란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북한 등과의 군사 분야 협력 관계는 주로 무기 구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힘.

### ● 北, 미얀마를 무기이전 중간기지로 활용(10/22, 연합)

- 북한이 미얀마(버마)를 무기 거래의 중간 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주요 무기관련 회사가 최근 미얀마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원은 21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미얀마 관련 청문회에서 미얀마가 안보상 미국에 위협을 주는 이유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힘. 로이스 의원은 “우선 북한이 버마를 이용하고 있

다”면서 “북한이 무기와 금지품을 이전하기 위해 그곳(버마)의 항만과 소형 비행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

- “또 버마가 핵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을 구매했다”면서 핵 커넥션 의혹을 거듭 제기, “그 다음 이유로는, 북한의 주요 무기 회사 중 하나가 최근 수개월간 버마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해 왔다”고 주장, 그는 “마지막 이유는, 핵관련 목적이 있다고 일부에서 말하는 (버마) 수도 인근의 광범위한 땅굴 건설에 북한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보도들”이라고 주장

● 北핵시설 20곳에 전문인력 3천명 근무(10/22, 연합)

- 북한 내 핵시설은 모두 20개이고, 약 3천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이 22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북한 핵시설현황’에 따르면 북한내 핵시설은 영변의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해 모두 20개로 조사되었음. 영변엔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로 원자로, 실험용 원자로, 임계시설, 핵연료봉 제조시설 등 11개의 핵 관련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우라늄 정련공장과 우라늄 광산은 황해북도 평산과 평안남도 순천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됨.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에 핵심인력 200여명을 포함해 모두 3천여명의 전문인력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

마. 사회·문화 관련

● 통일신보, 안중근, 개인테러 매달린 민족의 풍운아(10/24,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24일 안중근(1897-1910) 의사를 “민족이 기억하는 반일애국열사”라고 평하면서도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데 대해서는 “개인테러”라고 주장, 통일신보는 안 의사의 의거 100주년을 맞아 그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북한에서 그에 관한 영화와 연극이 만들어진 사실을 언급하며 “세월이 흘러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애국자의 삶은 겨레의 기억속에 길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
- 신문은 그러나 안 의사를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던 탓에 개인테러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고 끝끝내 한몸 바쳐서도 독립 염원을 이룰 수 없

있던 민족의 풍운아”라고 주장, 신문은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후에도 이봉창, 윤봉길 등 많은 의사들의 “일제와 그 앞잡이들에 대한 개인터러가 계속 이어졌지만 테러의 방법으로는 결코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해석

● 北청파대동굴서 구석기후기 인류화석 7점 발굴(10/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자들이 황해북도 황주군 청파대 동굴에서 구석기시대 유적과 유물 1만4천여점을 발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
- 청파대 동굴은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 알려진 평양시 상원군 검은모루 유적으로부터 서남쪽으로 34km 떨어져 있으며 입구너비가 6m, 길이가 32m, 천장높이가 13.7m되는 석회암 자연동굴이라고 통신은 설명
-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2문화층에서 나온 5개체분에 해당하는 7점의 인류 화석으로, “약 2만~6만년전까지 활동한 신인(新人)의 것으로 확증된” 2개의 위턱뼈와 3개의 아래턱뼈를 비롯해 모든 뼈화석들이 형태가 뚜렷하게 매우 잘 보존돼 있다고 통신은 설명, 그중 제일 오래된 화석은 약 4만~6만 년 전의 것으로서 이른 시기의 신인의 뼈화석이며, 북한 고고학계에선 이 화석을 ‘황주사람’으로 명명했다고 통신은 밝힘.

● 北에도 모바일 게임 인기(10/23, 조선신보)

- 북한에 휴대전화 보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도 인기를 모으고 있음. 조선신보는 23일 “조선에서 3세대(3G) 이동통신봉사를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났다”며 “손전화(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즐기는 오락프로그램도 국내 여러 단위에서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보도, 지난 16일 개막한 제20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도 다양한 모바일 게임이 선보였음.
- 게임은 ‘류경장기’, ‘류경바둑’, ‘영어단어찾기’, ‘칙칙폭폭’, ‘잔디깎기’, ‘꼬마화가’, ‘오목’ 등으로 주로 지능형 게임임. 조선신보는 “손전화 오락은 작은 대면부(액정화면), 작은 기억용량의 이용, 적은 배터리 소모 등 손전화 단말기의 특성에 맞게 제작됐다”며 “그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장기, 바둑을 비롯한 지능놀이가 위주로 되고 있다”고 소개



- 조선컴퓨터센터에서는 앞으로 평양 시내 여러 곳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제품 판매점, 정보봉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오락프로그램을 판매할 계획

● 北, 국제합작 영화 제작 적극 추진(10/22, 조선신보)

- 북한이 지난 2월 '내각 위원회급'으로 신설한 국가영화위원회 산하에 국제영화합작사를 설치하고 외국 영화사와 영화합작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조선신보는 22일 "국가영화위원회 국제영화합작사가 외국의 영화업체들과의 합작을 염두에 둔 6편의 영화문학(시나리오)을 공개했다"며 "합작을 염두에 둔 영화문학의 소재에는 역사물이 많다"고 보도
- 조선신보는 "국제영화합작사는 6편의 영화문학에 흥미를 가지는 외국의 영화업체, 영화인들과 사업협조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 신문은 또 "합작사는 과거에 공개된 3편의 영화문학과 관련한 계약을 이미 맺고 현재 (상)대방들과의 협조속에 영화제작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 어느 국가의 어느 영화사들인지는 밝히지 않음.

● 北안변평야, 두루미 월동지 조성노력(10/21,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 동해안 원산 부근의 안변평야를 국제적 멸종 위기 철새인 두루미의 안전한 월동지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생태보존운동을 벌이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국제두루미재단'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
- 재단은 2008년 방북해 안변 지역의 농부들에게 유기농법을 전수했고 중국으로부터 쌀 도정기기를 구입해 북측에 전했으며 5천~6천 그루의 과일나무도 지원했다고 밝힘. 농업 생산량 증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공급을 확대하고 두루미들에게도 먹이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

##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 골드버그, 中 대북제재 이행 불변(10/21, 연합)

- 중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이후에도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북제재 조정관이 20일 밝힘.
- 중국을 방문 중인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날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 중국 관리들과 회동한 뒤 베이징 웨스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변, 골드버그 조정관은 “중국 측과 좋은 분위기에서 매우 협조적으로 회담을 했다”면서 “특히 회담에서는 제재의 핵심원칙이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제재는 다자회담, 즉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1874호와 1718호 등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점 등 3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언급
- 그는 “북·미간 양자회담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다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 그러면서 그는 이날 방중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등 북한 관리들과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고 답변

### 나. 북·미 관계

#### ● 뉴욕서 북미 접촉, 리근-성김 회동(10/25, 연합)

- 방미 중인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이 24일(이하 현지시각) 뉴욕에서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성 김 북핵특사와 만나 양국간 현안을 논의
- 리 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에 도착해 성 김 특사와 회동
- 리근 국장은 약 1시간에 걸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성 김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 그는 이어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며 말을 아꼈고 미국측과의 추가 회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또 볼 수도...”라며 여지를 남김. 하지만, 배석했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명길 공사는 “여기서 오늘 더 만날 계획은 없다”면서 “샌디에이고에 가서 보자”고 말해 향후 샌디에이고 등에서 북미 간의 추가 접촉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성 김 특사는 리 국장이 떠난지 50여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건물을 떠났음. 미 국무부의 노엘 클레이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리 국장이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다”며 “리 국장의 방미 기간인 24일 성 김 특사가 북한의 비핵화와 6자회담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뉴욕에서 리 국장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고 밝힘.
- 이날 리 국장과 성 김 특사의 회동도 1시간 정도만 진행됐지만 협의를 마치고 나오는 리 국장의 표정은 밝아보여 논의가 원만히 진행됐음을 시사

● **조총련 부의장, 한반도 문제, 공은 美에(10/23, 조선신보)**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허종만 책임부의장은 22일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미국 방문과 조(북)미 접촉,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조선방문이 예견되고 있다”며 “조선문제에서 공은 미국측에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23일 보도
- 허 책임부의장은 이날 일본을 방문한 피터 휴즈 북한 주재 영국대사와 총련 중앙회관에서 면담을 갖고 “조선의 핵보유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기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님의 유훈”이라는 입장을 밝힘.
- 그는 “일본정부의 적대시정책으로 인하여 조·일간에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총련이 두 나라 사이에서 다리의 역할을 다해왔다”며 평양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대북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자세를 지적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측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언
- 휴즈 대사는 “총련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평양 방문시에 조선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다자회담에 임할 의향을 표명한데 대하여 환영하고 유관국들도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신보는 소개

● **北 리근 뉴욕 도착...북미 접촉 이뤄질듯(10/23, 연합)**

-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해 방미 일정에 들어감. 리 국장은 23일 오후 3시40분께 일본 나리타 공항발 노

스웨스트항공편으로 뉴욕 JFK 공항에 도착, 리 국장은 뉴욕에 하루나 이틀 머문뒤 샌디에이고로 이동해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 북한 문제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 미국 측과 양자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성김-리근 빠르면 주말 회동 가능성(10/23, 연합)

- 미국은 23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릴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및 뉴욕에서 열릴 토론회 참석차 방미하는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북핵특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힘.
-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성 김 특사 또는 다른 미국 당국자가 동북아 협력대화가 열리기 전인 이번 주말 리 근 국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일축하지는 않음. “그것과 관련해 발표할 것은 전혀 없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북미 양자간 접촉은 빠르면 동북아 협력대화가 열리는 26~27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미 접촉 문제를 언급하면서 “비공식 회동”이라고 언급

● 美그레이엄목사, 방북결과 美정부측에 설명(10/22, 미국의소리방송)

- 지난주 방북했던 미국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방북기간 박의춘 외무상,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과 만난 결과를 이미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화통화로 설명한 데 이어 한두주 내로 직접 면담을 통해 설명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2일 보도
- 저명한 부흥전도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기도 한 그는 북한 당국자들과 면담에서 평양에 북한주재 외국 외교관들을 위한 교회 설립을 허용해 줄 것과, 북한이 지난 1968년 나포한 미국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VOA는 전언, 그레이엄 목사는 방북 기간 박의춘, 김계관 외에도 이달 하순 방미하는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면담

● 클린턴 美국무, ‘북핵 대응원칙’ 주목(10/22,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1일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는 관계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등 북핵 대응원칙을 표명, 클린턴 장관이 제시한 북핵 대응 원칙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됨.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과의 양자대화가 준비돼있고, 북한의 협상장 복귀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조치가 있어야 제제가 풀릴 수 있으며,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는 결코 관계정상화가 없다는 것임.

● 김계관, 성공적 북미회담까지 적극 협력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앞으로 성공적인 조미(북미)회담이 진행될 때까지 우리가 적극적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김 부상은 19일 밤(현지시간) 방영된 미국 폭스뉴스 ‘온 더 레코드’ 프로그램과의 간이 인터뷰에서 “조미 두 나라 인민(국민)의 공동 목표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서 이같이 언급
- 김 부상의 언급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자 구호단체 ‘사마리탄즈 퍼스’의 회장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지난 13일 북한을 방문할 당시 동행한 폭스뉴스 기자의 ‘미국 국민에게 직접 전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 美, 김정일, 이대통령 초청 언급(10/19, 연합)

- 미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18일 “우리는 지금 갑작스럽게 북한이 (입장을 바꿔) 우호적으로 나오는 단계에 도달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이달 초) 북한을 방문했다”고 언급, 이 관계자는 로버트 게이츠(Gates) 국방장관의 아시아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 동행하는 기자들을 위한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음에 취할 단계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언급. 이 관계자는 언제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초청했는지, 한국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다. 북·중 관계

● 북한우표전시회 베이징서 개최(10/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우표전시회가 ‘북·중친선의 해’를 맞아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

징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소개, 이번 전시회에는 4천600여종의 우표가 전시됐으며 북한우표연구토론회도 개최되었음.

● 北 남포항 개방하나, 中에 보세가공 승인(10/19, 연합)

- 북한이 중국에 남포항 보세가공 업체 설립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 남포항을 개방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긴 했지만 외자 유치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보세가공업을 허용한 것은 개성공단과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에 이어 남포항을 수출가공과 자유무역 특구로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
- 북한 당국의 '기업 창설 승인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3월 22일 북한의 '명봉연합회사'와 중국의 '산둥 영성성달전자유한공사'의 남포항 일대 개발을 승인, 북한 무역성 명의로 발급된 이 승인서는 총 880만 유로(약 152억 원)의 초기 투자비 가운데 북한 측이 55%, 중국 측이 45%의 지분을 출자, 평안남도 남포시 갑문2동에 합영회사를 설립토록 했음.
- 북한은 토지 등 물자를 대고 실질적인 개발 자금 380만 유로(약 66억 원)는 중국 업체가 부담하는 조건, 계약 기간은 2058년까지 50년간으로, 항운과 해운업, 운전기자재의 수리.정비 및 재수출, 중계업은 물론 보세가공업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
- 이 합영회사는 남포항 갑문 남쪽 해안 개발은 물론 이 일대 해수면 매립 개발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해안 토지 면적은 100만㎡로, 330만㎡인 개성공단 면적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향후 해수면 매립 개발이 이뤄지면 총 개발 면적이 4km<sup>2</sup>로 늘어나 개성공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규모를 갖추게 됨.
- 승인 당시 영성성달 측은 2008년 10월까지 등록 자본을 납입하고 올 10월까지 공장을 완공, 본격 조업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투자가 이뤄지지는 않았음.

라. 북·러 관계

● 北원산-러 블라디보스토크 자매 결연(10/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원산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가 '자매관계 설정 및 친선과 협조

강화에 관한 협정'을 19일 원산에서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조선-러시아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리일섭 원산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러시아측에서 이고르 푸시카료프 시장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관 공사참사가 참석.
- 두 도시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시 사진 전시회와 러시아 도서 기증식도 19일 북한 강원도미술전람관에서 개최
- 블라디보스토크시 대표단은 18일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해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 이고르 푸시카료프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이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과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마. 북·일 관계

### ● 통일신보, 日, '무라야마 담화' 계승으론 안돼(10/24,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24일 '선택을 바로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조선인민과 세계인류가 바라는 것은 어정쩡한 반성의 답습이 아니라 피비린 과거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이라고 강조
- 통일신보는 "반성의 답습인가, 사죄와 배상인가. 일본은 선택을 바로 해야 한다"며 "우리 민족에게 끼친 과거의 죄악에 대해 일본은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

## 바. 기타 외교 관계

### ● 北, 몽골주재대사에 리철광 임명(10/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몽골주재 대사에 리철광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간략히 보도
- 2004년 8월 임명됐던 박정도 대사의 후임인 리철광 대사는 2001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사를 지냈었음.

- 북한과 몽골은 1948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나 북한은 1999년 8월 경제난 등으로 울란바토르 주재 대사관을 폐쇄했다가 2004년 8월 다시 문을 열었음.

● **주북 시리아 임시 대리대사 연회 개최(10/23, 조선중앙통신)**

- 주북 시리아 임시 대리대사가 22일 대사관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64주년을 축하하는 연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연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리룡남 무역상, 김태종 당 중앙위 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이 참석

● **베를린아시아여성영화축전 북한영화 상영(10/23, 조선중앙통신)**

- 독일에서 열린 제3차 베를린아시아여성영화축전에서 16일 특별일정으로 북한 영화 '한 여학생의 일기'가 상영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소개, 축전기간 '꽃 파는 처녀', '도라지꽃', '홍길동', '춘향전' 등의 북한 영화가 상영

**3 대남정세**

● **경남 민간통일운동단체, 31일 北에 의약품 보내(10/25, 연합)**

- 경남의 민간 통일운동단체인 사단법인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 삼천'은 평양 제1인민병원 외과병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오는 31일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 의약품 등을 보낸다고 25일 밝힘. 이번에 전달하는 물품은 진통제와 항생제, 고혈압약 등 의약품(6천만원 상당)과 혈체어 10개, 이동 혈압측정기 10개 등임.

● **남북, 정상회담준비 추가접촉 방침(10/23, 연합)**

- 남북은 최근 제3국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접촉을 가진데 이어 조만간 고위급 수준의 본격적인 접촉을 가질 것으로 23일 알려짐. 이번 제3국에서의 남북간 접촉이 실무급 수준이었다면 향후 접촉은 사실상 특사 성격의 고위급 수준 접촉이 될 것으로 알려짐.



- 남북관계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이날 “최근 실무급 접촉에서 장소 등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남북접촉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연내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 한 핵심당국자는 “남북간에 정상회담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가 있는 만큼 만약 성사가 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지난번 실무접촉에서 남북간 이견이 노출됐던 정상회담 장소 문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신변안전 문제를 고려, 판문점 등 중립적인 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이와 함께 201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산 모래 반입 재개 논란(10/23, 조선일보)

-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우리측 모래 반입 업체들의 계속된 요구와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북한산 모래 반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북한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495만6000m<sup>3</sup>의 모래를 팔아 3627만달러를 벌었고, 2008년에도 945만9000m<sup>3</sup>를 판매해 2673만달러를 벌어들임. 그러나 2009년도 들어서는 1~4월에 75만 3000m<sup>3</sup>의 모래로 147만달러를 얻었을 뿐임. 북한의 모래 사업은 군부 소속 회사들이 주로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 모래는 해주와 고성 두 곳에서 들여오고 있음.

● 올해 대북 보건의료 지원 급감(10/22, 연합뉴스)

- 남한 민간단체들이 지원한 북한의 정성제약, 대동강제약 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해선 남한 제약회사들의 기술지원이 시급하다고 김진숙 보건복지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이 22일 밝힘.
- 그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이 민간단체나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집행한 보건의료분야 대북 지원액은 지난 2007년 367억원에서 지난해 262억원, 올해는 10월 현재 57억원으로 급감, 이때문에 어린이와 임산부 사망률 감소, 영양 장애율 개선 등을 목표로 한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에서도 식량지원은 목표 대상의 39%에 그쳤고, 어린이 설사치료제는

1년 총 필요량의 50%만 공급됐으며, 임산부 영양제 지원은 대상의 50%에  
 게 6개월간으로 제한됐고 영양실조가 심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  
 식 지원도 전체 필요의 25%만 지원되는 실정이라고 밝힘.

● 남성욱, 김정일, 장성택·김정은 압박 시작(10/22, 연합)

-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21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삼남 김정은과 관련, “지난 6~7월 군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아버지  
 (김정일)와 충돌하는 일이 생기면서 김정일이 장성택, 김정은 리더십을 압  
 박하기 시작했다”고 언급, 남 소장은 이날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에서 열  
 린 도산아카데미 조찬 세미나에 참석, “지난 8월 이후 후계논의가 물밑으  
 로 가라앉은 상태”라고 밝힘.
-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 겸 노동당 행정부장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 당  
 중앙위원회 경공업부장의 남편으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지휘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남 소장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차 방  
 남한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났을 때 “지금 이 어  
 느 때인데, 군사적 도발로 문제를 풀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며 “금강산 관  
 광을 비롯한 여러 사업은 북한이 하기에 달렸다”고 말했다고 전언, “대통령  
 께서 김 비서에게 ‘잘못된 행동을 얼마 안 있다 원상회복 시켜놓고 마치 착  
 한 일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으려는 일은 이명박 정부에서 절대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소개
- 남 소장은 최근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움직임에 언급, “쌀은 안 되고 옥  
 수수를 3만t 범위 내에서 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호의를 베풀기 때  
 문에 북한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상봉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언급
- 남 소장은 김 위원장의 활발한 대외활동에 대해 “대역을 쓰는 경우도 있고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배우가 세 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  
 기 대외활동) 74회는 과장된 숫자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
- 이어 “미국은 보즈웬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특사인 만큼 김 위원장에게  
 직보하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꼭 만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보즈웬스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야 하고 강석주를 만나려면 최소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

● 北, 임진강회담서 南책임론 제기(10/21, 연합)

- 북한이 지난 14일 남북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우리 측 인명피해에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남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으로 21일 알려짐.
-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측은 당일 총 1시간 35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제1,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이행됐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언, 북측은 또 방류로 인해 자신들에게도 인명피해가 있었다면서 남측에 피해를 주기 위해 고의로 수문을 연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던 것으로 알려짐.
- 실제로 임진강 사고 당일인 9월 6일 북한에서 4~5세로 추정되는 남자 어린이가 숨진 채 떠내려 왔다가 우리 군 초소병에 발견되었음.
- 아울러 북측은 수위가 올라갔을 때 남측의 경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 정부, 北에 軍통신현대화 장비제공(10/21, 연합)

- 정부는 남북 육로통행 관리에 사용되는 군 통신선의 현대화를 위한 자재·장비를 북한에 제공기로 했다고 21일 밝힘. 통일부는 “19일 북측에 우리 국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통신선로 개선공사를 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도 20일 동의의사를 통보해 왔다”며 “28일부터 통신선로 개선에 필요한 광케이블, 통신관로 등 20억원 상당의 통신 기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각기 자기측 구간에서 필요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 통일부는 이어 “선로개선공사는 남북이 자기측 구간에서 공사를 하고 군사분계선 상에서 선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공사에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10.26-11.01

10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수풍발전소 현지지도(10/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수풍발전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수풍발전소의 기술개선(改建) 상황과 전력생산 실태를 살펴보고 “전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발전설비들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벌이고 새로운 기술을 창안 도입”해야 한다면서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존 발전기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건설 중인 발전기 설치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
  - 현지지도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장성택,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당 중앙위 제1부부장들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소개
- 김정일, 군 공연 관람(10/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33차 군무자예술축전에 참가한 제567부대, 제531부대, 제762부대, 제630부대 산하 중대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공연 관람 후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전진하여온 우리의 영광스러운 혁명사는 예술의 위력을 뚜렷이 중시한 음악정치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공연은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국방위원 겸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원홍, 현철해, 리명수 대장, 한동근 상장 등 군 지휘간부와 최태복,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당 부장 및 제1부부장들과 책임간부들이 함께 관람
- 김정일, 묘향산 시찰(10/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묘향산 유원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 이날 시찰에는 최근 제3국에서 남측 인사들과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수행

- 조선중앙통신은 시찰 동행자 명단을 밝히면서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최태복.김기남 노동당 비서, 장성택, 박남기 당 부장, 현철해, 리명수 군 대장 등만 거론하고 김양건 부장의 동행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조선중앙 TV가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김 부장의 모습이 포착
- 한편 김 위원장은 여러 시간에 걸쳐 묘향산 입구부터 만폭동에 이르는 구간의 참관 노정을 직접 답사한 뒤 “참관자들이 모든 명소에 다 가볼 수 있게 하려면 답사 도로를 잘 닦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로 건설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언

● '김정일 후계' 김정은 청진 9군단 방문(10/27, 조선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유력한 셋째아들 김정은이 지난 9월 9일 북·중 국경지역을 담당하는 함경북도 청진의 9군단을 극비리에 방문해 군단장과 정치위원들을 만난 것으로 26일 알려짐. 김정은은 이날 “장군님(김정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대는 국경을 책임진 9군단”이라고 말했다고 함.
-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요즘 북한에서 제1전선은 휴전선이 아닌 북·중 국경지대라고 함. 휴전선 부근과 달리 이 지역에선 북한 군인들이 탈북자들에게 쏘는 총소리가 하루도 끊이지 않을 정도로 위기감이 높다는 것임. 최근엔 9군단 간부 중 마약과 돈벌이 등에 관련된 경우가 많아 국방위에서 직접 관리에 나섰다고 함. 특히 외국 정보기관들이 9군단 관계자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어 북한 지도부의 위기감이 더 커졌다고 소식통들은 전언, 1996년 6군단 지휘부가 반란을 시도했던 것도 외국 정보당국의 매수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으며 북한 핵심부는 비슷한 사건이 9군단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임. 김정은이 직접 9군단 방문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언

● 北후계자 김정은, 찬양가요 '발걸음' 공인(10/27,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을 찬양하는 첫 가요 '발걸음'이 북한사회에서 확실하게 공인된 것으로 북한 언론 매체를 통해 드러나

주목

- 북한 언론은 이미 지난 2월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각종 공연 관람에서 ‘발걸음’ 노래를 들은 소식과 북한 내부의 여러 행사에서 이 노래가 공연되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보급되고 있는 실태를 꾸준히 보도해왔음. ‘발걸음’ 노래에 직접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에서 ‘발걸음’이 공공연히 소개됨으로써 이 노래의 정치적 비중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와 더불어 절대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음.
- 북한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치적 후계자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셋째 아들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공연 관람 등을 통해 다섯 번이나 들은 것으로 나타났음.
-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발걸음’을 감상한 것은 올해 2월 인민군 제26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할 때, 당시 공연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부대 선전대원들이 ‘발걸음’을 불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월 23일 전언, 또 중앙통신은 지난 4월21일 김 위원장이 제10215부대 예술선전대 공연과 같은 달 26일 군 창건일 기념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에서 ‘발걸음’을 합창 또는 혼성중창으로 관람했고, 5월 26일 인민군 ‘감나무중대’ 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볼 때도 ‘발걸음’을 들은 것으로 전언, 이어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지난 9일 김정일 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황해북도 예술극장을 시찰하고 도(道) 예술단의 개관공연을 관람한 소식을 전했는데 당시 합창으로 ‘발걸음’이 불린 것으로 확인되었음.
- 북한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연과 행사에서 ‘발걸음’이 주요 레퍼토리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음. 올해 5월 자강도 강계시 학생들이 강계경기장에서 공연한 집단체조 ‘장군님 정든 고향’의 뒷부분은 ‘김정일 장군의 노래’와 ‘발걸음’의 노래선율에 따라 마무리됐다고 북한 언론은 전언, 역시 앞서 4월에 열렸던 군 창건일 기념 조선인민군협주단 공연과 6월 소년단창립일을 맞아 개최된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종합공연에도 ‘발걸음’이 공연곡의 하나로 사용됐음.
- 특히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6월 19일 내각 상업성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상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소식을 전하면서 “성에서는 노래 ‘발걸음’에 대한 보급사업도 진행하고 모든 일꾼들이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면서 오늘의

150일 전투”에 매진토록 하고 있다고 보도

- ‘발걸음’은 후계자 김정애에 대한 첫 찬양가요로 북한 최고의 작곡가라는 보천보전자악단의 리종오가 작사와 작곡을 한 것으로 전해짐. 북한의 김정애에 대한 ‘위대성 교양자료’에는 ‘발걸음’을 “21세기의 수령 찬가”라고 주장

## 나. 정치 관련

### ● 北, 아프간 정세 주시(10/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비싼 대가를 치르는 침략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미국은 저들이 강점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주장, 신문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을 증파하고 현지 주민들을 유혹하기 위해 돈을 뿌린다고 사태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침략자들은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라고 주장

### ● 노동신문, 남북관계 개선은 절박한 과제(10/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북남관계 개선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족적 과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북남 사이에 북남관계를 시대의 지향과 겨레의 염원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며 남북간 “대화과 접촉, 내왕과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으로 북남관계는 대결 잔재를 털어버리며 ‘우리민족끼리’ 이념 따라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지난해부터 남조선에서 북남선언들을 부정”하면서 “북남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주장, 그러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신문은 주장하고 “최근 우리가 취한 주동적인 조치들은 그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
- 이어 신문은 남과 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이 “북남관계 개선에 장애요인”이지만 “이것도 북남 사이의 대화과 접촉,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



● 조선신보, 北, 대결구도 전환 통큰 결단 가능성(10/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9일 ‘북조·미(북·미)-북남 연동의 기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두 수레바퀴가 맞물려 굴러가는 정세발전”을 염두에 두고 “사태의 진전 상황에 따라선 조선반도(한반도)의 대결구도를 전환시키는 통이 큰 결단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
- 신문은 또 북한이 10.4선언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 서려면 “종래의 정책적 틀에 구애되지 않는 선택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다”거나 “정세발전의 주도권을 틀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주저하는 일 없이 행동한다”, “북측 당국의 대담성은 6.15, 10.4(선언)를 마련한 실적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등으로 ‘통 큰 결단’ 가능성을 거듭 강조
- 조선신보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최근 북한 언론매체들의 논조는 “조미관계의 진전과 북남관계의 발전이 연동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권고”라고 주장하고 “격동의 시대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남측 당국이 상응한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
- 신문은 특히 “조미 양자회담의 준비가 다그쳐지는 가운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 꾸리기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다”며 “여러 갈래의 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최근 북한 노동신문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대남 평화공세가 ‘전술적 차원’이 아닌 정책기조의 변화라고 주장
- 신문은 “김정일 장군님의 특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것도 그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 등 특사조의방문단을 시종 김 위원장의 ‘특사’로 표기
- 북한은 북미관계에선 “만단의 준비를 갖춰 이번 기회에 미국과 비핵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상할 용의”를 갖고 있고 남북관계에선 “언론매체를 통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남측에 호소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

● 노동신문, 간부들에 ‘송풍기 역할’ 독려(10/28,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28일 ‘일꾼들은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선 간부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에서 “송풍기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신문은 “일꾼들이 (화로의) 송풍기와 같이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위력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야 온 나라에 혁명적 대고조의 열풍” 이 휘몰아친다며 이런 방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고 강조

- 신문은 “혁명의 송풍기”는 ‘시대어’라고 규정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시기 70일 전투, 100일 전투를 벌이던 때처럼 집중적인 선전선동 공세를 드세차게 벌일 것”과 간부들 자신이 “이신작칙(以身作則, 솔선수범)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할 것을 요구

● **조선신보, 오바마 ‘대북 대화’ 공언 실행해야(10/2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방미와 관련, “부시 정권은 대조선 강경책에 매달려 수년간의 세월을 허비하였지만 오바마 정권은 다행히도 조선(북한)의 외교관을 다시 미국에 불러들이는 환경을 조성할수 있었다”며 미국에 북한과 대화할 것을 촉구
- 조선신보는 28일 ‘유연실행’이라는 제목의 ‘메아리’ 코너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때 부시 1기 행정부의 대북 직접 협상 거부 정책을 비판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대화할 용의도 표명해 놓고 당선된 뒤엔 “어느새 전임자의 전철”을 밟아 “협상을 중단시켜 조선을 또 한차례의 핵 시험으로 폐밀고 말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주장
- 신문은 “오바마 정권이 쓸데없이 시간을 보낸 것을 후회한다면 대화 상대방이 그러하듯이 ‘유연실행’의 원칙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유연실행’에 대해, 신문은 북한은 “대화에는 대화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고 자신들이 말한 대로 이행하는 나라라고 주장

● **민주조선, 1984년 대남 수해지원 언급(10/26,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6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일관한 노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984년 8월 남한에 수해가 발생했을 당시 북측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이를 계기로 남북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던 점을 강조
- 민주조선은 “우리 공화국은 지금까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시종일관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대표적 사례로 대남 수재민 지원을 꼽음. 신문은 남측 수해 당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큰물피해를 입은 남녘동포들의 가궁한 정상을 몹시 가슴아파하면서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북측이 지원한 쌀 5만섬, 천50m, 시멘트 10만t, 의약품 759박스는 “미국과 일본의 구호금에 비해 각각 900배, 180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었다”고 지적

- 특히 신문은 “남조선 수재민들에 대한 우리 공화국의 구호물자 제공을 계기로 북남사이에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여러 갈래의 접촉과 대화가 진행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 이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 입장은 확고하며 변함이 없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역설

#### 다. 경제 관련

##### ● 대동강식료공장 준공(10/31, 조선중앙방송)

- 대동강식료공장이 건설돼 30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1일 보도, 준공식에는 광범기 내각 부총리와 정연과 식료일용공업상 등이 참석했으며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 공장 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에게 감사문을 전달

##### ● 北, 상하이 세계박람회 준비위 구성(10/3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1일 “조선이 2010년 5월에 개막되는 상하이 세계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무역성 구본태 부상이 상하이 세계박람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구총대표로 선출되고 비상설 준비위원회가 조직됐다”고 보도
- 조선신보는 “전람회 개막식에는 고위급 대표단의 파견이 계획되고 있다”며 “박람회 기간인 9월6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날’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도 고위급대표단이 파견된다”고 소개

##### ● 北휴대전화 가입자 9월말 현재 10만명(10/31,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 9월말 현재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1일 이집트에 본사를 둔 중동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EFG-헤르메스’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
- 이러한 추산치는 지난 6월 말 현재 4만8천명에 비해 석달만에 2배 이상 늘

어난 것인데, 그 이전 3개월 동안에도 1만9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었음.

● 北공장·기업소들 ‘컴퓨터화’ 경쟁(10/30, 조선신보)

- 신문은 ‘경제단위들의 컴퓨터화 경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5~22일 열린 20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는 지난해에 비해 60여개 단위가 더 참가해 성·중앙기관 컴퓨터화 부문, 공장·기업소 컴퓨터화 부문, 전시 부문, 경연 부문, 제품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고 설명
- 신문은 이날 ‘임업성 정보추진화 성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선 북한 임업성이 산하 목재생산 사업소들의 생산, 경영, 판매공급 활동을 컴퓨터로 지휘하는 생산종합지령체계를 수립했으며, 중앙과 지방 사업소간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컴퓨터 화상회의 체제도 갖춰 나가고 있다고 전언

● 北에너지전문가들 유럽서 재생에너지 기술연수(10/3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비재래식 에너지개발센터’의 재생에너지 전문가 4명이 최근 약 10일간 독일과 스위스의 대학, 연구소, 기업을 방문해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 기술에 관해 연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스위스의 비정부기구인 ‘캠퍼스 튀어 크리스투스’의 스테판 부르크하르트 북한 담당관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에너지 전문가들이 “스위스의 연방기술연구소를 비롯해 태양열과 풍력 발전기를 제작하는 회사 등을 방문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과 이를 사용하는 제품 등을 둘러본 뒤 전문가로부터 관련 기술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힘.
- 10월 26일 귀국한 이들 북한 전문가는 특히 가정에서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열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주택을 설계하는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과 에너지를 전력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에 관해 유럽의 대학, 전문기관, 기업 등과 교류·연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고 방송은 소개

● 北농업성, 2010년 식량부족 악화 예상(제302호, 오늘의 북한소식; 10/28, 연합뉴스)

- 북한 농업성이 북한의 내년 식량 상황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 28일 주장

- ‘오늘의 북한소식’ 302호에서 “지난 10월 1일 농업성에서 곡창지대인 황해 남·북도와 평안남·북도 농장들의 예상 수확량을 종합해 이같이 제기했다”며 “농업성에서는 내년 식량위기를 모면하려면 무엇보다 올해 수확한 알곡을 허실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
- 이러한 보고에 북한 노동당 중앙당은 국경지역의 세관을 다 열고 ‘무역 원천을 새로운 방법으로 구상해 외국과의 무역이 끊이지 않게 하여 식량을 많이 들여오도록 하라’고 무역회사들에 지시를 내리는 등 식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좋은 벗들은 소개

● 北내각, 100일 전투 대책 논의 (10/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를 기한으로 한 ‘100일 전투’ 수행 대책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회의에서는 ‘150일 전투(4.20~9.16)’ 목표와 3/4분기 인민경제 계획의 수행 결산 및 ‘100일 전투’ 대책과 3/4분기 예산집행 결산 등이 상정됐으며 김영일 총리와 박수길 부총리가 각각 보고했다고 통신은 보도, 회의에서는 “올해를 위대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는 데서 4/4분기가 중요”하므로 ‘100일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 회의에는 김영일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부서장들이 참가했으며 내각 직속 기관 책임일꾼과 관리국장, 도·시·군 인민위원장, 도 농촌경리위원장, 주요 공장·기업소의 지배인들이 방청

라. 군사 관련

● 北매체들, 南정부와 분리해 군당국 비난 공세(10/31, 연합)

- 북한 매체들이 대남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남한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고 있으나 남한 군 당국에 대해선 최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의 계기 때마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이라며 정부와 분리해 강하게 비난
- 31일에도 우리민족끼리는 국군이 실시중인 ‘호국훈련’을 빌미로 “동족대결을 조장하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더욱이 엄중한 것은 이번 전쟁연습이 경색됐던 북남관계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북남관계를

개선할 데 대한 내외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올려퍼지고 있는 때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 北, 최근 KN-02 시험발사는 KN-06 개발 목적(10/3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10월 12일 실시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5기의 시험발사는 기존의 KN-02보다 사거리가 긴 고성능의 KN-06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가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
  - 베넷 박사는 “북한이 발사한 5발의 KN-02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는 고성능의 미사일(KN-06)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 발사의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KN-02 미사일은 군사적 측면에서 성능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변형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
  
- 北 10월 발사 단거리미사일 모두 실패(10/2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10월 12일 실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5기의 발사시험이 모두 실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대북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
  - 대북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10월 12일 동해로 발사한 KN-02 미사일 5발 가운데 “두발은 발사 직후 곧장 바다에 떨어졌고, 두 발은 표적을 맞히지 못했으며, 마지막에 쏜 미사일은 불발로 끝났다”고 방송은 보도
  - 북한은 당일 오전 6시와 8시를 전후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오후 5시에서 6시30분 사이에 추가로 3발을 발사

##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묘향산서 황새냉이과 새 식물 발견(10/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중앙식물원연구소가 묘향산에서 황새냉이과에 속하는 새로운 식물 종류를 발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
  - 북한은 이 식물에 ‘향산황새냉이’라는 이름과 ‘*Cardamine hyangsanensis* S.K.KO et J.O.Ri, Sp.nov’라는 학명을 붙임. 통신은 “묘향산의 칠성동에서 식물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는 향산황새냉이는 여러해살이 풀”이라면서

서 “땅속의 뿌리줄기는 짧고 줄기는 30~40cm정도 되게 외대로 곧추 자라며 털은 없을 뿐 아니라 잎은 깃모양의 겹잎인데 두께는 얇다”고 밝힘.

● 평양 놀이공원도 급강하탑 새로 설치(10/30, 조선신보)

- 지난 4월 현대화 공사에 착수한 북한 평양 시내 개신문 인근의 놀이공원인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 궤도회전반, 2중회전반, 3중회전반, 급강하탑 등 새로운 놀이시설이 새로 설치된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 놀이공원에는 힘겨루기, 오토바이 운전 등 30여 종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전자오락관과 각종 식당과 청량음료 매장도 갖춰질 예정

● 北, 고조선 나무곽 무덤 발굴(10/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평안남도 룡강군 후산리에서 고조선 시대의 나무곽 무덤을 발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이 무덤은 “고조선의 마지막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유물들은 고조선 시기의 청동제련 및 철주조, 가공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통신은 소개

● 北도 세계적 신종플루 확산에 긴장(10/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아직 신종플루 환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철저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만 최근 종종 언론보도를 통해 강조,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조선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와 지역에서 신형독감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여 비행장, 무역항, 국경초소들에서 검역사업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해 북한 보건 당국이 초비상 상태를 보여줌.
- 통신은 그러나 “신형독감이 발생하지 않은 조선(북한)”이라고 주장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신형독감 바이러스의 침습을 막기 위한 검역체계를 완비하고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

● 김정일, 김일성대 세계일류로 현대화 지시(10/29, 조선신보)

- 김일성종합대학이 최근 실내 수영관을 짓고 전자도서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3, 9월 두 차례 이 대학을 현지지도하면서 “세계 1등급의 대학으로 꾸릴”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29일 보도

- 이 대학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올해 2차례 이 대학을 현지지도하면서 이 학교의 “전반 현대화 사업”을 점검했다고 신문은 설명, 김일성대엔 원래 야외수영장이 있었으나 보수 필요성이 제기되자 김 위원장이 “보수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상급의 현대적인 수영관을 건설해 주자”면서 이는 대학교 직원과 학생들에게 안겨주는 자신의 선물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언
- 김일성대는 현재 3호교사 건설도 추진하고 있고, 유개운동장(뿔개를 씌운 운동장), 교직원 주택, 학생 기숙사 건설도 계획 중인데 김 위원장은 “대학 거리를 새로 형성”할 것도 지시했다고 신문은 소개, 김정일 위원장은 이 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를 졸업

##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 EU, 북한에 6자 회담 복귀 촉구(10/31, 연합)

- 유럽연합(EU)이 북한에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 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북한을 방문한 EU 대표단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
- 대표단은 또 북한이 우리농 농축 사실을 공개하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대변인은 전언, 스웨덴, 스페인,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대표단은 10월 26일 평양에 도착, 이날로 5일 간의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칩.

### 나. 북·미 관계

#### ● 보즈워스, 방북시 김정일과 대화 원치 않아(11/1,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 북한이 원하는 북미 간 고위급 대화를 위한 양측 간 물밑 접촉에서 미국 측



은 대화의 장을 이용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타진하지 않았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1일 보도, 신문은 복수의 미국 내 북미협상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이는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과 연관해 북한이 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

- 미국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정권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전제로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고,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방북에 의욕적이지만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언
- 또 아사히신문은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방북할 경우,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에 “6자회담 틀 내의 움직임”이라고 설명해도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달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언
-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미국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조건으로 내건 6자회담 복귀에 대해 북한이 태도를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미국도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전언

● 리근, 유익한 대화 나눴다(10/31, 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 중인 리근 북한 미국 국장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측 인사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 그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샌디에이고와 이곳에서 세미나를 했고,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성 김 대사와 만났다”고 밝힘. 그러나 그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문제 등과 관련된 질문에는 일체 함구
- 이날 세미나에는 당초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성 김 북핵 특사 등 미 국무부 관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특사의 행보와 관련, “뉴욕에 가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다른 국무부 관리도 뉴욕에 가지 않았다”고 언급

● 보즈워스, 11월 하순 방북(10/29, 요미우리신문)

-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인 다음 달 하순에 북한을 방문, 북미 협상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양측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보도
-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서 북한의 회

담 복귀를 둘러싼 최종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관측, 신문에 따르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은 10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리근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과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북핵 특사 사이의 회담에서 이뤄졌음.

- 이 소식통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방북의 조건이었던 만큼 연내에는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美당국자, 6자회담 재개 진전 없어(10/29, 연합)**

- 미국 정부의 핵심 당국자는 28일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성 김 특사와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간에 이뤄진 일련의 연쇄 접촉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된 특별한 진전이 없었음을 시사
- 이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10월 24일 뉴욕 회동에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북미 접촉 결과와 관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힘. 다만 그는 이번 일련의 접촉이 “많은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대화였다”고 평가
- 그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와 관련, “성 김 특사가 북한 및 다른 나라 대표단과 많은 비공식적 대화를 했다”고 언급, 북미간 비공식적 접촉이 있었음을 시사, 그는 이어 “성 김 특사가 지난 토요일 리 근 국장을 별도로 만났지만, 또 다른 공식적 만남을 가질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언급

● **美국무부, 성 김 뉴욕방문 결정안됐다(10/29, 연합)**

- 미국 국무부는 28일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성 김 특사가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이 참석하는 토론회에 함께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특사의 뉴욕 회의 참석 여부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언급
- 성 김 특사는 리 근 국장도 참석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 주최로 열린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하기 위해 26~27일 샌디에이고를 방문

● 美, 北테러지원 재평가 의무화(10/29,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북한행위보고서'를 앞으로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함.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의 2010 회계연도(2010 10.1~2011 9.30) 국방예산인 국방수권법에 서명
- 북한의 지난 4월과 5월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와 관련, 테러지원국 지정여부를 재평가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 법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수권법 발효 후 30일 이내에 북한을 법적 기준에 따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2008년 6월 26일 이후 북한의 행위를 조사한 상세보고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이 테러행위와 테러범 및 테러조직을 지원한 증거가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제출해야 하며 북한이 2008년 6월 10일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범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조사해야 함.
- 이러한 조사를 통해 북한이 테러리스트나 테러행위와 연계된 국가를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무부 장관은 즉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함.

● 美관리, 北인권 6자회담 의제화 필요성 제기(10/27, 연합)

- 마이클 포스너 미국 국무부 민주·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26일 북한의 인권상황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6자회담 내에서 의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힘. 포스너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가 세계 종교자유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 데 맞춰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무부와 의회가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힘.
- 포스너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의제가 확대된) 6자회담과 더 광범위한 정치문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내가 국무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인권문제가 어디에서나 의제화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

● 美, 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9년째 지정(10/27,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6일 북한을 비롯해 중국, 미얀마(버마), 에리트레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s)으로 지정, 이에 따라 북한은 2001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뒤 올해까지 9년째 연속 종교탄압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해 “북한 헌법은 종교적 신념을 자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번 조사기간에 북한에서 극도로 빈약한 종교자유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지적,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최근 수년간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단체에 대한 조사와 억압, 박해를 강화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 보고서는 “15만~20만명이 종교적 이유로 정치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던 탈북자들은 종교자유를 이유로 수감된 경우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더욱 열악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힘.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의 의미에 대해 “종교의 자유는 모든 건강한 사회의 초석”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가치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가치”라고 밝힘.

다. 북·중 관계

● 北 최태복 귀국(10/31, 연합뉴스)

- 최태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31일 4박 5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최 비서를 단장으로 한 노동당 대표단은 이날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을 떠남.
- 최 비서는 27일 베이징에 도착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 부장과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선전부장 등을 만났으며 명문대학인 칭화(淸華)대와 중관촌(中關村) 과학기술단지 등을 방문, 28일에는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예방, 북·중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최 비서 일행은 29일부터 30일까지 중국 개혁개방 1번지인 광둥(廣東)성을 시찰하면서 후 주석의 측근인 왕양(汪洋) 광둥(廣東)성 당서기와도 만난 뒤 베이징으로 돌아옴.
- 베이징 소식통들은 “최 비서의 방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산당과 노동당 사이의 정기적인 고위급 교류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분석

● 北-中, 나진·청진항 합작개발 나서나(10/31, 연합)

- 중국이 북한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 대북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가운데 지린(吉林)성 정부 대표단이 최근 북한 함경북도와 나진선봉시를 방문해 청진항과 나진항 합작개발 방안을 논의,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주목
- 한창푸(韓長賦) 성장(省長)을 대표로 하는 지린성 정부 대표단이 10월 26-27일 함경북도와 나진선봉시를 방문, 한홍표 함경북도 인민위원장과 김수열 나진선봉시 인민위원장 등과 차례로 만나 청진항과 나진항 공동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린성 관계자가 30일 밝혔음.
- 이 관계자는 “이번 방문에서 양측은 청진항과 나진항 공동 개발 방안은 물론 북중 접경지역 다리 보수, 북·중 접경지역에서 나진과 청진항에 이르는 도로건설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며 “나진항 공동개발을 포함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전언,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말을 아꼈음. 이번 방문에서 양측은 또 경제무역 합작과 변경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북·중수교 60주년과 북·중친선의 해를 맞아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
- 중국의 성장(省長)이 경제 합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방북에 앞서 합작사업과 관련해 양측이 이미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며 그 핵심은 나진항과 청진항 합작개발일 것으로 보임.

● 中후진타오, 北김정일에 “편리한 시기 방중” 초청(10/29, 조선중앙통신)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주도록 초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통신은 후 주석이 중국을 방문 중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 비서를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면담한 자리에서 최 비서에게 이러한 방중 초청 의사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이 4년전 북한을 방문해 “열렬한 환대”를 받은 것을 회고했다고 설명
- 후 주석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에 이은 북한 노동당대표단의 방중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두 나라 관계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중수교 60주년인 올해 “‘중조친선의 해’를 계기로 열린 경축행사들과 교류, 협조를 통하여 전통적인 중조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소개
- 후 주석은 또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와 내왕을 가일층 확대하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조선 동지들과 함께 노력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청년 외교관들 북한 방문(10/29, 연합)

- 중국의 젊은 외교관들이 북한 외무성의 초청을 받아 27일부터 31일까지 4박5일간 북한을 친선 방문, 중국 외교부는 29일 쑨웨이둥 외교부 아주사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청년 외교관 대표단이 27일부터 방북길에 올랐다고 밝힘.
-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청년 외교관 대표단의 방북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대표단은 외교부 관련부서의 젊은 외교관들로 구성했다”고 설명, 중국 청년 외교관 대표단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면담하고 북한 청년 외교관들과 교류활동을 벌이는 한편 묘향산과 판문점 등을 둘러볼 예정

● 노동당 대표단 방중(10/27,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27일 중국 방문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대표단은 이날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류홍차이(劉洪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부장,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가 비행장에서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中,北 접경지역 경제개발 내용(10/27, 연합)

- 엔벤(延邊)조선족자치주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화룡(和龍)시와 난평(南坪)을 잇는 철도 건설공사가 9월 1일 착공됐다”고 밝힘. 압록강 대교 건설 합의, 남포항에 대한 중국 기업의 보세무역 허용에 이어 최근엔 북한 무산 광산의 철광 운송 확대를 위한 철도가 착공됐고 압록강에는 수력댐을 건설키로 양측이 합의

라. 북·러 관계

● 교육대표단, 러시아 방문(10/29, 평양방송)

- 러시아를 방문하는 량학순 교육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일꾼대표단이 2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북 러시아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 친선노동(10/29, 조선중앙통신)

-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시아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29일 평안남도 천리마군 ‘조선·러시아친선 고창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을 하고 지원물자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마. 북·일 관계

● 日, 北 화물 검사법 각료회의 의결(10/30, 연합)

- 일본 정부는 30일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 관련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화물 검사 특별조치법안을 의결, 이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른 조치로서, 화물검사는 해상보안청과 세관이 실시하도록 하였음.
- 당초 자민당 정권에서 추진했던 해상자위대의 화물검사 지원 조항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음. 이는 자위대의 국외 파견에 반대하는 연립 여당인 사민당의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임. 정부와 여당은 현재 소집된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가결할 방침이고, 공명당도 찬성하고 있어서 내달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됨.
- 정부가 이날 확정된 법안은 선박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관련 물품이 실려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상보안청이나 세관이 입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바. 기타 외교 관계

- **시리아 정부경제대표단 평양시 참관(10/29, 평양방송)**
  - 시리아 정부경제대표단이 29일 만경대를 방문하고 평양방직공장, 만수대 창작사 등을 참관했다고 평양방송이 29일 보도
  
- **佛특사, 방북 선발대 평양서 활동중(10/28, 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의 자크 랑 대북정책 특사의 11월 방북을 앞두고 선발대가 이미 북한 평양에 도착해 활동중이라고 랑 특사가 밝힘.
  - 북핵 6자회담 참여국을 순방하는 일정의 하나로 미국을 방문중인 랑 특사는 뉴욕주재 프랑스 영사관에서 프랑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한 프랑스 대표단이 북한에 이미 도착해 있다”며 자신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랑 특사는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11월 9~10일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랑 특사는 이달 초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6자회담 참가국을 모두 방문해 북한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청취한 뒤 북한 문제 해결을 포함, 동북아 안보와 평화를 위해 프랑스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
  
- **北, 우간다 경찰훈련 지원하고 경각지 빌려(10/28, 자유아시아방송; 뉴 비전)**
  - 북한이 아프리카 우간다의 경찰간부 훈련 프로그램에 태권도 교관 등 무술 요원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신문을 인용해 28일 보도
  - 우간다 관영 언론인 뉴 비전은 “우간다의 마사딘에 위치한 카바일 경찰학교가 지난 9월부터 경찰 지휘관들과 정보기관의 요원들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 훈련 과정을 시작했다”며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요원들이 태권도를 포함한 무술 교육을 전담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 간부훈련엔 특히 우간다와 인접한 남수단도 참여하기로 했고 소말리아와



부룬디도 참여 의사를 밝힘으로써 우간다뿐 아니라 주변국의 경찰들도 함께 참여하는 합동 훈련이 될 것이라고 보도해 이들 나라 경찰간부들도 북한 무술요원의 지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우간다 경찰 교육 지원은 작년 3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우간다 방문 때 체결된 북한과 우간다가 ‘교육협조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북한은 올해 봄부터 경찰과 경호요원을 훈련하기 위한 인력을 우간다에 지원, 북한은 우간다로부터 “대두와 쌀 그리고 뽕나무를 경작할 수 있는 땅과 훈련 요원들의 임금과 거주 비용 등 약 450만 달러에 해당하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우간다 현지 언론은 전언

● EU트로이카 대표단, 정치대화 차 방북(10/26, 조선중앙통신)

- 유럽연합(EU) 트로이카 대표단이 ‘북-EU 정치대화’ 참석차 2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클라스 프레드릭크 몰린 스웨덴 외무성 정치부총국장 겸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이 대표단 단장이라고 소개, EU 트로이카는 EU 순회의장국과 집행위원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대표단은 지난 3월에도 북한을 다녀갔고 1998년부터 거의 해마다 방북해 북한과 정치대화를 가졌고 2001년에는 첫 인권대화를 갖기도 했음.
- 북한언론은 종전에는 EU 트로이카 대표단의 평양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도 방북 목적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정치대화라고 밝힘.

3 대남정세

● ‘디도스 공격’에 북한 체신청 IP 동원(10/30, 중앙일보)

- 지난 7월 청와대·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 동원된 IP(인터넷 주소)가 북한 체신청이 사용해온 IP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30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10월 29일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IP 추적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고, 국회 정보위원들은 “지난 7월 발생했던 한·미 26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 중국에서 선을 임대해 쓰는 북한 체신청의 IP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 신문에 밝힘.

● 정부, 北, 지원요청때 규모 언급 안했다(10/29, 연합뉴스)

- 정부는 10월 16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식량 10만t을 요구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북한이 구체적인 품목이나 수량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힘.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시 실무접촉에서 북한측은 우리에게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고 우리 수석대표는 돌아가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그 검토 결과, 지난 26일 대북 통지문을 통해 옥수수 1만t과 분유 20t, 의약품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
- 그는 또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도착지 단서조항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보도 내용에 언급, “분배 투명성 문제는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면서도 “(16일 접촉에서는) 그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

● 北매체, 南주민 26일 자진 월북(10/27,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남한 주민 강동림(30)씨가 26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진월북”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 등이 27일 보도
- 방송은 강씨에 대해 “2001년 9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남조선군 22사단 56연대 3대대 9중대 1소대에서 근무”했으며 “삼성 반도체회사 노동자로 있다가 퇴직해 의거하기 전까지 별교읍의 어느 한 돼지공장(양돈장)에서 일했다”고 설명
- 방송은 또 강씨가 군복무중 “여러차례 공화국 북반부를 동경하여 의거하려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그는 자기의 의거 염원이 실현된 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못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 그는 해당기관의 따뜻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소개

● 북한산 모래·송이·무연탄반입 건별승인(10/27, 연합뉴스)

- 앞으로 북한산 모래와 송이버섯, 무연탄 등 3개 품목을 반입할 경우 매건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통일부는 27일 “‘포괄승인 품목’이었던 송

이와 모래, 무연탄 등 3개 품목을 '개별승인품목'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오늘 '남북반출·반입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고 밝힘.

- 남북 교역에서 포괄승인 품목은 세관 신고만으로 반출입이 가능하지만 개별승인 품목은 반출입시 매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번 조치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5.25)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에 현금이 제공되는 남북교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임.

● 정부, UNEP 대북 환경사업에 2차 지원(10/27, 연합뉴스)

- 환경부는 9월 유엔 산하 유엔환경계획(UNEP)에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쓰일 2차 기탁금 9억6천100만원을 신탁했다고 27일 밝힘.
-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환경부 예산과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 총 40억원(환경부 20억원, 통일부 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UNEP 신탁기금에 기탁하는 형식으로 북한 내 환경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 정부는 2007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UNEP과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을 체결하고 환경부 예산으로 1차 기탁금 10억원을 납입한 바 있음.
- 기탁금은 환경개발센터 역량강화, 환경교육과 인식증진, 친환경주택사업, 대동강 통합 수자원관리 등 4개의 시범사업에 우선 쓰일 예정임. 환경부 자체 예산을 활용한 신탁은 끝났으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신탁만이 남게 되었음. 환경부 관계자는 "기탁금이 시범사업에만 제대로 쓰이는지,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UNEP 등과 협의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에서 추가 기탁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다"고 언급

● 정부, 北에 옥수수 1만톤 지원 통보(10/26, 연합뉴스)

- 정부는 26일 북한에 옥수수 1만t을 지원하겠다고 통보,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첫 대북 식량 지원이 이뤄지게 됨.
- 정부는 이날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종하) 명의로 '지난 16일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북측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감안해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 계

층을 위한 옥수수 1만톤 분유 20톤,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 조선적십자회(위원장 장재언) 앞으로 보냈음.

- 형식상 지원 주체는 한적이지만 옥수수 1만톤의 구입·배송비용 약 40억원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 분유 20톤(1억5000만원 상당)과 의약품만 자체 마련한다고 정부는 밝혔음. 옥수수는 중국에서 구입해 곧바로 북으로 보낼 예정이며 실제 지원까지는 30~40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짐.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9월 01일	김정일 위원장, 인민군 제264개연합부대 지휘부 방문 및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중통(9/1)
	전국농기계전시회 개최(황해북도 곡산군, 9.1-3)	중통(9/3)
09월 02일		
09월 03일	김정일 위원장, 성진제강연합기업소와 김책대흥수산업소 현지지도	중통(9/3)
	김정일 위원장, 해산시에 운전기재들 전달	중방(9/4)
	김정일 위원장, 경성혁명사적관 등 경성군, 명천군의 여러 부문사업 현지지도	중통(9/3)
	평양미술대학 미술전람회 개막	중통(9/3)
09월 04일	조선신보, “조·미·북·남관계 개선 병행” 주장	조선신보(9/4)
	러시아 ‘21세가 관현악단’ 첫 공연 진행(평양대극장)	중방(9/5)
	쿠바대표단, 만경대 방문 및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	중방(9/5)
	북, 플루토늄 무기화 완료 및 우라늄 농축 실험 성공 주장	중통(9/5)
09월 05일		
09월 06일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창작	중통(9/6)
09월 07일		
09월 08일	김정일 위원장, 러시아-북예술인들 합동공연 관람(만수대예술극장)	중통(9/8)
09월 09일		
09월 10일	전국인민소비품 전시회 개막(평양 중앙경공업제품건본관)	중통(9/10)
09월 11일	첫 러시아상품 전문상점 개점(평양)	조선신보(9/11)
09월 12일		
09월 13일	김정일 위원장,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연합부대 종합기동훈련 참관	중통(9/13)
09월 14일	북, 6.15와 10.4 공동선언 이행 촉구	노동신문(9/14-16)
09월 15일	김정일 위원장,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낙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9/15)
	북·중, 09-11보건의학과학분야 협조 집행계획서 조인	중통(9/15)
09월 16일	자연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토론회 개최	중방(9/16)
	평양과학기술대학 준공식 개최	중통(9/16)
09월 17일	김정일 위원장, 자강도 화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중통(9/17)
09월 18일	박길연 외무성 부상, 유엔총회 제64차 회의(9.20-25)에 참가차 평양출발	중통(9/19)
	김정일 위원장, 중후진타오 친서 접수	중방(9/18)
09월 19일	기록영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백두의 여장군 김정숙동지’ 상영(인민문화궁전)	중통(9/19)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첸리화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과 면담	평방(9/19)
09월 20일		
09월 21일	제5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최(3대혁명전시관, 9.21-9.24)	중통(9/14)
	‘국제평화의 날’ 기념모임 및 사진전시회(천리마문화회관)	중통(9/12)
09월 22일	김정숙 사망 60돌 중앙추모대회 개최(평양체육관)	중방(9/22)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9월 23일		
09월 24일	북, 벼 추수 시작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신석기 시대 '유물구덩이' 2개 발굴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민주조선(9/24) 조선신보(9/24)
09월 25일	북, 새로운 천리마 속도로서 '희천속도' 제시	노동신문(9/25)
09월 26일		
09월 27일	노동당출판사, '김일성 선집' 제2권 '증보판' 출판	중방(9/27)
09월 28일	베트남 정복의 대북기증 쌀, 남포항 도착 보도 북, 추석계기 남북이산가족상봉 행사관련 보도	중통(9/29) 중방, 중앙TV, 노동신문, 중통, 조선신보(9/28-10/4)
09월 29일	김정일 위원장, 대동강 식료공장, 평양방직기계공장 현지지도 김정일 위원장, 평양시내 경공업부문 공장들(김일성종합대학, 평양메기공장, 12월7일공장) 현지지도	중방(9/29) 중통(9/29)
09월 30일	북, 남측 '그랜드 바겐' 제안 비난 북, 대북투자 이집트 기업 오라스콤텔레콤 회장에게 '친선훈장 제1급' 을 수여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서 대북사업 재개	중통(9/30) 중통(9/30) 중통(9/30)
10월 01일		
10월 02일		
10월 03일	김정일 위원장, 평양시 교외 소재 타조목장 현지지도 중국청년친선대표단(단장: 루하오(陸昊)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 제1서기) 평양 방북	중통(10/3) 중통(10/3)
10월 04일	中원자바오총리 방북(10.4-6) 김정일 위원장, 中원자바오총리 평양비행장에서 영접	중통(10/4) 중통(10/4)
10월 05일	김정일 위원장, 中원자바오총리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5월1일경기장)	중방(10/6)
10월 06일		
10월 07일		
10월 08일		
10월 09일	김정일 위원장,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황해북도예술극장 현지지도 김정일 위원장, 당창건 64돌 경축 축포야회 참관(당창건기념탑 광장) 러시아 내무군 아카데미협주단 공연 개막(평양대극장)	중방(10/9) 중방(10/10) 중방(10/9)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남북 불교도, 통일기원 합동법회 개최(금강산 신계사)	중통(10/13)
10월 14일	노동신문,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주장	노동신문(10/14)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김정일 위원장, 러시아 내무성 내무군아카데미 협주단 공연 관람	중통(10/18)
10월 18일		
10월 19일	북원산·러 블라디보스토크 자매 결연 보도	중통(10/19)
10월 20일		
10월 21일	김정일 위원장, 평양 만수대거리 시찰	중통(10/21)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북, 몽골주재대사에게 리철광 임명	중통(10/24)
10월 25일	김정일 위원장, 묘향산유원지 시찰	중통(10/25)
	김정일 위원장, 자강도 희천 경제시설 시찰	중방(10/25)
10월 26일		
10월 27일	북, '남주민 26일 자진 월북' 보도	중통, 중방(10/27)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중통(10/27)
10월 28일		
10월 29일	조선신보, "조·미·북·남관계 병행발전 의지" 재강조	조선신보(10/29)
10월 30일	김정일 위원장, 평안북도 내 협동공장·농장·기업소·발전소 현지지도	중통(10/31)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평안남도 룡강군 후산리, 고조선 시대 나무곽 무덤 발굴	중통(10/30)
	'대동강식료공장' 준공식	중방(10/31)
10월 31일	북, 상하이 세계박람회 준비위 구성	조선신보(10/31)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